



2

0

2

5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작품집

초판 1쇄 발행 2025년 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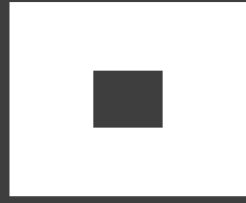
지은이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24회 졸업생
펴낸이 다원서가

책임편집 이인서
기획/편집 박경준 강도영 이민희
디자인 다원서가
발행처 다원서가 (010-9290-2230)

ISBN 979-11-985615-2-7 (03810)

정가 10,000원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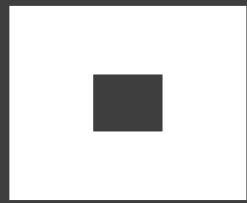


2

0

2

5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작품집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2025년 제 24회 졸업생

졸업생
추천사

새로운 시작에 두려움을 느낄 때면 저는 글쓰기가 주는 힘을 떠올립니다. 학우들과 함께, 또는 혼자 글을 쓰며 이겨냈던 시간과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담은 다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익숙했던 공간과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을 느낄 때마다 글쓰기의 힘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위축되어 느끼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은 언제나 나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했던 일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음을 알아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는 가끔 처음을 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날에 적응하려 신경 썼던 일들을요. 적응하지 못해도, 일상에 균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요. 그러니 불안함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문예창작학과 졸업생
유지원

학과장
인사말

매년 졸업작품집 발간을 앞에 두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한 해가 잘 지나갔구나, 하는 안도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대한 아쉬움 같은 심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겪게 될 세상이 내릴 거절 때문이랄까요. 뭐든지 겪은 후엔 경험도 쌓이고 맺집도 생길 테니 먼 후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당장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이 커지곤 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과 거절을 배우며 지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문학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지요. 그 앞에 서면 항상 두려움이 몰려왔고 어찌어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여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거절을 딛고 계속하여 써왔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문학에 대한 그 순정한 마음이 사회생활의 시작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문학을 무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달랐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천대받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문학을 견디어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 문학에 대한 순정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모은 졸업작품집을 발간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축하와 위로를.

고맙습니다.

문예창작학과 학과장
백가흠

차례

시

김지민 - 사루비아 꽃은 바다에서 피는 거야 외 2편	10
김진서 - 전염 외 2편	16
남연지 - 명 외 2편	24
박소정 - 내 발자국이 지워지기 전에 따라 걸어봐 어서, 외 2편	30
박지오 - 냄새 외 2편	38
윤선아 - re- 외 2편	44
이인서 - 주인 외 2편	50
장은지 - 불 구르기 외 2편	56
하서희 - 무연고 외 2편	64

소설

권주은 - 고사리는 고사하고	74
김룡희 - 관심의 농도	88
김혜인 - 빨간 벽돌 빌라	102
김희은 - 우리의 집	118
서인희 - 타들어 가다	134
장재혁 - 비를 긋는 사진사	148
황혜림 - 마른 나무 아래 편	168

희곡

손서영 - 피노키오 룸메이트	186
유하정 - 파라다이스 편의점	204
진유리 - 백오십 원의 행복	228

타입캡슐	252
------	-----

퍼내는 글

이인서	258
-----	-----

시

김지민
김진서
남연지
박소정
박지오
윤선아
이인서
장은지
하서희

김지민

사루비아 꽃은 바다에서 피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네에

이상한 꿈인데 자꾸 생각나
내 기억에는 없지만 언제 그 차 뒷자리에 올랐던 것 같고
뭔지 알지
근데 나 진짜 그런 적 없거든

아저씨는 사루비아 꽃이 자꾸 바다에서 핀대
옆에 앉은 내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나는 눈 뜨자마자 사루비아를 검색하고

우리말로 개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셀비어는 봄 파종 일년
초로 취급되고 있다. 고온과 과습에 강하여 여름 화단에 유리하
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여 키우기가 쉽고 여름부터 가을까
지 꽃이 피며 요즘은 극왜성종이 개발되어 화단에 많이 이용된
다.

이미지 준비 중

이미지 준비 중

이미지 준비 중

과명: 꿀풀과

번식: 종자

생활형: 한해살이

이런 거나 알게 되고

아저씨 사루비아 흙에서 자라는 꽃이라잖아요

미역도 아니고 뭘 바다야

다음에 보면 꼭 한 마디 해야지 생각하면서

사루비아

사루비아

눈꺼풀 내리기

소모(품)

배 따뜻하게 하는 거 잊지 마
내가 준 약 아직 있지

햇팩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지나면 딱딱해지니까 잘해

잘해야 하는 일은 햇팩 빨리 쓰기 따위가 아닌데
딱딱해지기 전에 쓰지도
굳기 전에 잘하지도 못했더랬다

네 유년 시절 장래희망은 성우
어쩌면 그걸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혼자 하고
내가 악어 대신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던 밤에 말이
다

화장솜은 젖을 운명을 타고 났지만
목화일 때 알았을 리 없지

클렌징 워터가 햇팩을 녹일 수 있을까?

암향

매실이 익으면 열어도 된다며
튼어진 종이의 살을 쓰다듬었다
내가 사랑한 너의
ㅁ이 ㅅ을 닮아
사과는 죽음을 옮기는 말이 되고
아닌 줄을 알면서 나는
골똥해지는 것이다
햇볕에 비추면
도톰히 빛나는 흑연의 뒷모습

있잖아,
나는 이제 헛갈릴 수 없어
문제가 있어야 오답을 써내지 않겠니

봉투의 풀칠은 노란 매실로
둥글 둥글 둥글
뚱글 뚱글 뚱글
오래 기다린 냄새다
이 위로 숨을 묻을 너
그 둥근 코끝의 온도를 가늠하며
엄지와 검지를 비벼
숨털을 떨치는 새벽

| commentary |

36.5°C의 녹는점을 가지고 있어요.

김진서

전염

모든 아버지가 요들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사실 아버지들만의 비밀

도로 위에서 아코디언을 올리면
요를레이히
누군가 요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롤렉스 아버지는 카시오 아버지에게
하니오 레이오 하니오레 유후
매일같이 요들 독창 강의를 하지만
그게 요들인 줄은 아버지들만 안다

앞 동 누구 아버지는 이따금
발코니에서 큰 소리로 요들을 불렀다
그는 타고난 요들러지만
그 사실을 아는 건 아버지들뿐이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재채기에서는 알프스 냄새가 났다
그러다 문득 깨달는다
나는 목동이고
풍뎉는 맛있고
스위스는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스위스고
요들을 부르면 알프스다
아버지는 귀가 멀어도 요들만은 알아듣는다
네 말은 안 들려도 메아리가 들린다고
늙은 소를 닮은 아버지가 요들을 불렀다

나는 레이리요
너는 릿디리리
미안해는 없고
즐거워도 없지만
사랑해는

아빠 미안.
나는 방금 누설자가 되어 버렸어

담보물

물을 마시다가도 혀를 씹었다
평생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게는 대신 꿈을 꾸어 주는 사람이 있고
덕분에 나는 종일 뜯눈으로 산다

그런
사람은 많은데
사람밖에 없어서
값을 빛은 줄지 않고

그러다가 당신이 깨어나면
나는 꿈값으로 찢어 둔
마늘 한 바구니와
금고에서 찾은
배 한 쪽을
당신에게

용서 없는 화해는 해 보았는데
여 형,
여 형,

그중에서 담보는 뭐가 좋을까
오늘치 빚을 갚고
명석에 말린 나를
알아볼 리는 없지만

어제 꿈엔 도둑이 들었는데
아마 너였던 것 같아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끊긴 혀가 아직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해 보세요

우선 침을 뺏어 보세요
 본인의 위치와
 가야 할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물속이라면
 죽은 척이 효과적입니다
 혹은 모두 마셔 버리세요

되었다면
 신발을 벗고
 네 발로 걸어 보시고
 뛰어도 보세요
 원치 않는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사막에 있다면
 오아시스를 마셔선 안 됩니다
 갈증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전봇대를 끌어안고 숫자를 세십시오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commentary |

이제 걷는 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해 보려 합니다.

운전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법 잘했습니다.

무엇에도 재능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재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실패해 볼 수 있거든요.

대학 4년,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갑니다. 아직 좀 더 넘어지겠지만, 잘 걸어보겠습니다. 넘어져 봤자 무릎밖에 안 깨던데요 뭐.

남
연
지

명

죽어서 남자는 가슴을 남기고 여자는 엉덩이를 남기게 된
다고 한다 그곳의 뼈가 강하기 때문에

천국의 남쪽에서 날아다닐 가슴을 생각하면서
그런 풍경은 보고 싶지 않아 언니 절대로 죽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좋았다

나머지는 모두 갠지스강으로 간대
손가락은 내가 건질게 상류에서 기다려
구석에 놓인 뜰채를 휘두르면서

사랑과 먼지를 들썩 일으키는 바람 소리
천국 문이 잠깐 열렸다 닫히면 아마 이런 소리 날걸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고

계절이 바뀌는 밤마다 모여서 만두나 전, 가리비 같은 것을
몇 판씩 굽거나 찌 먹고는 하면서
생일 선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시를 받고
싶어
빌었던 밤 네 어깨 위로 천사들의 얼굴이 소복이 쌓인다

테이프

한 해의 반은 잘 모르겠는 날들 남은 반은 어찌다 알아버린
하루로 이루어져 있고

헐겁다와 버겁다 사이 셈이 없는 선을 통과하고 싶을 때는 돌
아오기 어려운 실험을 해

어떤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계까지 당겨 봐도

안다는 얼마나 먼지

가끔은 묶어두고 싶어 가득 물어 자국을 남겨도

늘어난 고무줄은 다시 곱아들 수 없구나 이미 기억 너머로 사
라진 책방한 쪽지 조각들은 그리워해도 소용은 없고

사실 짚어보자면 빵을 줍거나 별무리가 되는 형제를 알아갔
던 나이에

내 앞에 떨어지는 건 동아줄 대신 텃줄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

원자는 죽지 않아 그런 약속을 믿으면서 지나간 인사를 꼭꼭
씹어 저장해 놓는 날에 고장난 카세트는 다시 감아도 틀 수 없
다는 걸 몰랐어

미지

기타를 갖고 싶다고 했지 짐을 지고 싶어서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살을 잘 발라낸 홍시와 어머니가 직접
 만든 간식으로 낳은 동그란 어깨는 그런 걸 견디지 못할 거야

오싹하게 자라고도 라면 물 끓는 냄비에서 아기 새의 지저귐
 을 듣잖아 그런 건 연주가 못 돼 이런 말로 우리는 헤어졌고
 계단에서 우는 소리는 종처럼 잘 울려서 배관을 타고 머리 위
 로 지나간다

떠내려간 안경을 찾으려서 생각했지
 한쪽 눈이 좋은 것보다 양쪽 다 고르게 나쁜 편이 좋겠어
 손에 닿는 걸 모두 코앞에 대고 살펴보면서

유통기한이 지워진 콘돔 박스 본인 외 개봉 금지라고 쓰인 우
 편에 몇 번 입을 맞추는 뻘한 뒤로
 알은 없는 편이 낫겠어
 어떤 건 흐려질 때 위로가 돼 어물어물 보이는 방은 멀어지고
 그래도 진심만큼 아득한 건 없구나 나는 빈약하고 당신을 좋
 아해요 먼 곳에서 속살거리는 새소리는 껌껌해

아이와 애의 차이도 모르면서 언제든 속박되고 싶어서 이력

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말에는 추가 없지

어떤 삶은 믿을 수 없게 무르다는 걸 한 스푼 떠 먹은 너는 섬
뜩하게 달아서 무서워

아무것도 모르는 너, 사루비아의 달콤함과 떨어진 열과 속 개
미도 모르고

아직도 무너진 이유를 모르지

| commentary |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다

는 말을 믿지 않아 썼습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언니나 동생
이 이 주파수를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몸에서 제일 두꺼운 지방을 찾아 허벅지를 베어 옮겼고

처음 보는 속은 어색했지만, 새로운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은
덕에 더 독특한 내가 될 수 있었던 건 다행일지도 몰라요.

품에 안긴 밤을 찾는 소녀들이 녹지 않길 바랍니다.

박소정

내 발자국이 지워지기 전에 따라 걸어봐 어서,

문학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대체 문학적인 게 뭐야?
 우리는 항상 글을 쓰는 걸 두려워했다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자
 취미였다

고양이가 납작해지고 쥐는 뒷에 꼬리가 잡힌다

골목길을 지나가면 섬찝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보면 안 될 일에 이제는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
 송장이 된 내가 나무에 매달려
 그것을 바라보는 너와 엄마가 있기도 했다
 이런 현상들을 뉴스에 제보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일기장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파도에 활자를 흘려보내는 건 너와 나의 비밀 편지
 물고기의 위장을 갈라 소화되지도 않은 먹이를 꺼내는 건 실
 례다
 비슷하게 생긴 존재에게 가지는 욕심은 부끄러운 일이다
 도대체 입술끼리 부딪혀보자고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
 까

나는 너를 따르기로 했다
앞서가는 너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걸음걸이가 비슷해진다
발 크기 때문에 경중경중 걸어야겠지만 신발은 필요하지 않다
마음으로부터 과하게 흥분하는 순간 네가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괜히 신나하지 말고, 괜히 들뜨지도 말고
그림자 밟는 것에 주의하면서
이를 짹 깨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못 본 채하며

머리가 작을수록 겁이 많다

할머니는 이제 전화 거는 방법을 배웠다
바쁜 와중에도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걸어 온다

나중에 걸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사랑했던 집이 있었다
지금은 상자 더미로 가득한

나는 이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머나먼 곳으로 떠난 것도 아니다
단지 대범하게 걸어가는 비둘기를 마주쳤을 뿐이다

할머니와 통화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뉘앙스가 없었다

나는 환자용 보행기를 들고 전망대에 올라갔다
한 칸씩 밟아 오를 때마다 바퀴가 걸렸다
텅, 텅 소리가 울린다

전망대까지 올라왔을 때 두 바퀴는 떨어지고 없었다
오사무가 가는 길을 뒤따르는 여인들같이

죽는 거, 관두면 안 되겠어
네, 그러죠. 저 혼자서 죽을 생각이니까요*

먼지가 한군데로 모여 털 뭉치가 된다
그 토끼는 뛰쳐나와 내 손가락을 깨문다
살을 찢으려 박히는 앞니가
빨간 눈의 토끼다
내 앞에 달이 너무 잘 보이는 산과 지계를 가져다 둔다

‘엘리베이터 수리가 끝났으니 이용객들은 질서 있게 탑승해주
시길 바랍니다.’

비둘기는 전망대에 높이 솟아 있는 유리를 딛고 올라왔다
하지만 머리가 작은 비둘기는 음식을 탐내지도 않았고
높은 곳을 갈망하지 않았다
욕심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 다자이 오사무, 『사랑과 미에 대하여』 中 - 「오바스테」

자가호흡

나는 사랑이 식은 줄 알았어
 뭐?
 우리는 과일 푸딩을 퍼먹고 있었다
 너는 무슨 맛일까
 너를 사랑하는 순간, 너를 미워하는 순간, 시를 쓰는 순간에
 무슨 색으로 변할까
 그럼 우리는 머릿속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확신도

남자는 너무 의지가 약한 생물인 것 같아요
 연애 유튜브의 어느 댓글이었다
 10월 25일 그때부터 당신이 쉬는 숨보다 내 호흡의 날들이 더
 길어지고 있었다.

당신의 머릿속은 반이 비었다
 가슴팍은 평소 호흡하던 것보다 더욱 크게 요동친다
 호스의 조이개를 조금만 만져도 너는 죽어 있는 사람 같다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를 뭐라 하지
 비닐장갑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갈비뼈가 끊임없이 부풀어간다

자동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는 자동문이 혼자서 열릴 때가 있다
당신은 저 멀리 갔다가 이제야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내가 편안해졌을 때 또다시 손을 놓는 순간이 많았다

| commentary |

시를 쓸 때 보여 주려는 마음을 덜고 담백하게 쓰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솔직할 수 있었고 덜 꾸며내는 방법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병원 냄새 나는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감각들이 살아 있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뒤 돌아볼 일 없게 사람을 대한다는 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박지오

냄새

의자에서 하는 생각은 자주 사라진다 어제는 오랫동안 향초를 켜두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냄새가 배어들었으면 했는데 방 안에선 처음 맡아 보는 냄새가 났다 좋은 문장에 밑줄을 그을 땐 만년필 대신 연필을 사용하고 집 앞 카페에 갈 땐 원고지를 둥그렇게 구겨서 가져간다 이것 좀 버려주세요, 항상 종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런데 작가신가요, 하는 대답에 굳이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

오늘의 첫 문장은 '북극곰을 키워야지'이다 그러다 무언가 거슬리기 시작하면 쿠션을 책상과 가슴 사이에 끼고 몸을 앞으로 숙인다 그럼 니트에 밴 향초의 잔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핏줄

그녀는 고등어였다
가판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고등어

그녀는 밤엔 옆집 아줌마에게
새벽엔 빗쟁이들에게 하염없이 쫓겼고
그 시절의 난 알팍한 인간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머칠 전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았어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기에 괜찮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기름기를 잃어갔다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조용해졌고
아주 빠르게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숨을 가득 몰아넣고 내쉬자
그녀의 모든 체취와 눅눅한 베개 냄새가 섞여 코끝에서 맴돌
았다

매일같이 흘러던 침 때문인지 얼마 전에 빨았던 베개가 벌써
누렇게 바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해가 뜨면 베개 시트부터 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세리와 나

화장실과 문 앞 사이 벽과 책상 사이 혹은 더욱 비좁은 침대
사이에서

고양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 따위 없는 세상에서 품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따끔씩 눈을 깜박이고 창밖은 온통 어둠이고

클럽 갈래? 친구의 말에 별떡 몸을 일으키면

고양이 한 마리가 짹짹 튀어 오릅니다

응 뭐가 됐든 이거보단 낫겠지 그럼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엉덩이를 허우적대고

친구와 남자의 엉덩이는 꼬리를 앞뒤로 살랑이는 고양이처럼
적절하게 흔들립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나는 입술을 손으로 문대고 묻어난 립스틱
은 거울에 비비고

모자부터 팬티까지 모든 허물을 벗고선 비좁은 이불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럼 조용히 다가와 발목을 싸고도는 세리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양이 두 마리와
 베개를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 commentary |

처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때엔, 그것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들이 한데 모여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글을 놓지 못하고 있는 데엔, 저도 모르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초고와 퇴고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윤
선
아

re-

하루는 황무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녹아내리는 냉장고

체감,
별
나는 따뜻함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무슨 말을 꺼내야 좋을까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옛날이야기를 하자
미래가 오지 않는다면

이곳은 오래전에 숲이었다
자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발자국이 남는
너는 그 사실을 믿니?

몇 해 전만 해도 말이야 녹아 버린 것들은 전부 냉장고에 넣
곤 했어 더 이상 녹지 않도록 단단해지도록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때 내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엔 반찬이었다
그 다음엔 달력을 넣었다
그래도 괜찮은 걸 보고
키우던 개를 넣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끔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걸 열어 보지는 않았다

어느 날엔 녹아 버린 엄마를 냉장고에 넣어 두고 잊었다 재생
엔 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맛있는 점심을 먹고, 야윈 식물
에 물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걸었더니 드물게 엄마가
없어졌다는 전화가 왔다 아빠 나 지금 밖이야, 엄마는 냉장고에
있고…… 응. 엄마 없다고 굶지 말고 알았지

어두운 집. 아빠는 소파에 모로 누워 자고 있었다 부엌에서 빛
줄기 하나가 힘겹게 거실로 기어오고 있길래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갔더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활짝

가상 가능한 영원

매일 아침 유서를 쓰는 사람에겐 저녁이 없다
아침과 다시 아침

그 사이에는 쓰다 만 편지가 있고
구겨진 신발이 있고
조금의 실패와 물 먹은 씨앗 그리고
레몬색 셔츠가 있다

레몬과 시간
오래 놔두면 저녁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미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묘지공원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태어나 보니 그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부터 곡소리를 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주저앉기로 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때

등이 굽은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상상과는 다르군……

안개 같은 것이 없어서?

아니, 날씨가 좋아서

이곳은 꼭 고향 같아 그러면서

집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억이 아니고

풍경이다

그림으로밖에

상상되지

않는

집. 너는 대부분 그 집의 현관에 서 있는데 열쇠가 없다. 무언
갈 잊어버린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자 담벼락 너머에선
오래된 사람들이 투명한 얼굴로 인사하고, 그 사람들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아서 너는 간신히 팔만 남은 의자처럼 선 채 손가락
을 꿈틀거릴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검은 종이에 검은 펜

으로 이야기를 적으면 그것은 없던 일이 되나? 영리한데 고독을 좋아하는 짐승에 대해 생각한다. 웃을 수 있는 실패담에 대해, 그러니까 해피엔딩에 대해. 잉크 묻은 손을 꿈틀거리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농담 같은 꿈
깼 수가 없다

그는 거기까지 쓰고 펜을 놓는다

| commentary |

할 말 없음

이
인
서

주인

집에는 파도가 없다 집거북이는 밀려난 적 없다

검지와 중지와 약지를 나란히 놓고 손톱을 본다 값아먹은 탓
에 손끝이 희미하다 나는 이 굴곡을 좋아한다

집거북이는 손톱이 길다 주기적으로 잘라 주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대신 껍질을 부려 점안액을 처방받는다

건져 올린다 방울이 눈가에 닿을 때마다 집거북이는 눈을 감
았다 뜬다

빛을 쬐어준다 집거북이는 계절을 가진 적 없다 나는 가끔 빛
을 끄는 것을 까먹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

여름이 다 지나고 나면 잼을 끓인다 설탕 가득 넣고 녹진하게
끓이던 포도 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른 포도 잼을 부풀어 오르
던 포도 잼을 몸에 진달래를 피운 잼을 잔향이 오래도록 남는
잼을

결국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나는

사람 처리

할아버지 시를 쓰고 지운다 여자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쓰고 싶지 않다

어림짐작하는 단어는 술하게 쓰고 지웠다 여자에게는 그게 남는 거였다

남자와 아이를 캡슐 안에 가두고 그들을 지켜본다 여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본다 여자의 경험은 여기서 시작된다

여자는 많은 이들을 캡슐에 넣었지만 정작 들어가지는 못한다 마주하는 건 두려운 일이다 그래도 해야 할 일

등 떠밀려 들어가지 않은 척한다 모두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한다 그녀는 척하는 그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지만 그 또한 모르는 척한다 캡슐에 들어가는 척만 할 수 없었기에

용기를 낸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여자는 캡슐 속에서 잔디밭을 본다

풀을
규칙 없이 마구 자란

열에 아홉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예요 여자 대신 들어온 캡
슐 담당자가 말한다 여자는 매일 본인이 했던 말을 똑같이 듣는
다 이제는 여자가 믿는 쪽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똑같이 힘겹게
살아 있다

우울 농장

여든을 넘긴 날에는 새알을 먹어야 한다 나는 자전거를 몰아
동굴로 들어갔다 데이지 꽃이 한가득 굴러들어 오고 소리 없이
구름이 끼고 말도 안 돼 기어코 나왔던 물줄기는 작은 틈으로
비어져나가고 나는 거기에 바퀴를 돌 수가 없었다 회환을 만들
수도 없고 꽃 더미를 쥐어 줄 사람도 없어서 애써 소매를 걷어
올리는 법밖에 없었다 말도 안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쥐를 길러야 한다 절대로 갈아버려서도 안 되고 쓰다듬어서
도 안 되고 단 한 가지 쥐의 생애를 지켜보아야 한다 시선이 쥐
를 기른다 쥐는 나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가고 엄마가 너무 보
고 싶다고 짹 짹 울어대는데 절대로 쥐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사랑 뜻을 잃어버리도록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

여든을 잊은 날에는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로워서 엄마도 잊
고 나도 잊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보고 싶었다

| commentary |

결국에 나는 문학을 사랑하고 있겠지.

장은지

불 구르기

불, 갈고리 걸렸습니다
 불, 원형 구멍 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불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지만
 입을 가리진 않습니다
 입, 바람을 집어넣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새어나갑니다
 진실이 새어나갑니다
 남은 건 불과 불입니다
 아버지 불이 여자의 불과 맞닿아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불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엄마를 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난폭하게 굴고 있어요
 평소에도 폭력적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유독 심한 거 같네요
 바람 가르는 소리, 그리고 전화기 날아갑니다
 제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방금 전화는 딸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어머니
 네, 와주세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거짓들이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남은 소량의 진실을 주먹에 움켜쥐었습니다
바람에 칼이라도 달렸는지 손등을 뻗니다
불, 참습니다
커져라 커져요 커지기
입안 평수가 넓어지니 어금니, 송곳니, 앞니, 덧니
더는 싸우지 않습니다
푸오-이제 불은 자유입니다

3차 세계대전

식당에 들어가니 개완*을 내왔다. 속엔 홍차 잎이 있었다. “이모, 메뉴판 좀 주세요.” “여기에 너의 이모는 없어.” 그러니까 메뉴판이 없다는 거지? 진짜 무슨 소리야. “차가운 너희에게 줄 메뉴판도, 이모도 없어요.” 의자를 던졌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봤다. 아, 죄송합니다. 의자를 집어 오기 위해 출구까지 걸어갔다.

개완은 생각하는 의자 같은 거야. 잎이 우려지는 동안 안의 세계가 어떤지 알 수 없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고, 상상의 주전자다. 개완의 뚜껑을 열었다. 찻잎은 양탄자를 탔다. 중국에서 시작해 영국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지. 미국은 거치지 않았어. 그래, 홍차 잎은 고향이 그리웠거든. 더위로 죽는 사람이 있는 건 이제 흔한 일이었다. 동방명주 꼭대기에 시체들이 즐비했고 총을 든 사내가 와이탄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홍차 잎의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싸웠다. 세계에서 가장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라서, 홍차 잎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우린 대화를 시작했다. 고기가 그려진 사진의 음식 이름은 ‘할아버지의 똥구멍’이었다. 이제 보니 가게 이름이 엄마 레스토랑이었다. 엄마의, 할아버지의 똥구멍이라고 나온 음식은 동파육

과 비슷하다. 고기가 질겨 잘리지 않았다. 사실 칼등으로 자르고 있었을지도, 명상만 하니까 결말이 이렇지. 식사를 끝낸 후에 차를 마시는 행위는 입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하다. 다만, 나는 모든 걸 잊지 않기 위해 마셨다.

*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뚜껑 있는 찻잔. 소량의 찻잎을 찻잔에 직접 넣고 열탕을 붓고 찻잎이 가라앉는 것을 기다려서 뚜껑을 조금 연 틈 사이로 마신다.

일상, 행복

내가 만난 모든 이가
 가벼운 입을 지닌 건에 대해
 머리에 입이 달린 건데
 입이 머리에 달린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무엇이라 정의할지
 그걸 떠나 양쪽의 무게를 견디는 일
 가볍다고 드는 행위는 틀렸다
 다른 게 아니라
 신기한 일만 많아지지
 우발적인 말엔
 돌발적으로 답하고
 폭발한 상황은
 가시돌기
 뽑기 기계에 오만 원을 부어 버린 뒤
 첫 인형을 안았을 때
 두 팔은 쓸쓸했다
 외로움을 안을 차례가 되어
 길바닥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다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은행 냄새
 사랑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증거

우리가 헤어지는 게 필연은 아니겠지
사랑해 (날 잡아줘)
붙잡기 (놓고 싶지 않아)
놓기 (그래도 사랑일까?)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의 소원은 조금 더 이어서게 해주세요
사랑해 (응답 없음)
응답
그리고
쓰디쓴 웃음 아래
나는 말했다
맞지, 만남, 마침표

| commentary |

아빠가 고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고모가 없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파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한테 다시 물어보기엔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

아빠가 죽은 고모를 기억하고

제가 죽은 그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언어는 남습니다.

그게 사랑일 것이고

말이 가진 힘일 테니

자주, 더, 많이 말할 겁니다.

삶은 표현할 기회의 연속이기에

하
서
회

무연고

인생에서 물풍선이 터지는 이벤트를 많이 안 겪어 봤다
 여전히 사랑을 모르는데
 아이스크림을 혀로 굴리지 말고 깨물어 달랬다

침 침
 내 거
 그러면 세상이 부러지는
 어린 것들이 순간 튀어나오고 나는 이가 아려서 단맛마저 느
 끼지 못한다

핏기가 가시고
 바닥은 적셔지고
 손등으로 입술을 닦는데
 자꾸만 그의 얼굴을 힐끔거린다

마침내 걸핌기를 배웠다

칫 칫
 그가 담배를 피우다 짓밟은 콩초는
 아이스크림 꼬다리
 말 꼬투리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를 이해하기엔 불충분

그래서

남구 주민인 김선우 씨를 찾습니다

1백 75센티미터, 검은 머리, 붉은색 혼합된 검은 긴팔

어떤 해석에는 사랑이 개입된다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고

밤마다 중얼거린다

내일이 오지 않아도 나를 찾을까

내일이 오지 않아도 나를 찾을까

한동안 비가 내려서

밧줄을 들고 걸어갔다

흔적

그때 창밖의 경적 소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들리고

칼로 도미의 뼈만 바른다

등뼈가 펄떡이도록 움켜쥐는데 사방으로 휘두르는 기분이고

이 정도는

약과

아니라

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잔뼈 정도는 턱이 굽어지도록 질경대는 것이다

방바닥으로 자꾸만 흘리고 흘러가고

점심은 식사인가 시간인가 둘 중에서 고민하다가

옆구리 금이 간 냉장고와

털썩

마주 앉아 본다

눈부신 햇살에

칼빵

도넛 하나 구울 수 있는 양!

근데 도넛이 던킨 도넛, 그 던킨 도넛이 방식 크기만 하다면
우리 페르시아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페르시아와 던킨
페르시아산 도넛
(이 단어에 한 번 꽂히면 그날 하루 온 세상의 도넛을 찾아본다)

결국, 털이랑 같이 먹는 것

어떤 기억들은 불쑥 태어난다
뱃속에서 입 밖으로
입밖에서 세상의 배꼽으로
부르르르르
밤새 웃음을 터트린다

여태 주워 먹었던 고양이의 무언가들에게
주섬주섬 츄르를 꺼내다가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조아리듯이
먹이는데
내 엄지도 같이 활아지는 순간
주먹으로 얻어맞는 기분이다

부르르르르

그때 창밖의 경적 소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들리고
양양
보리야, 보리야
앙앙
이제 그만 활아
영영
그러면 나 역시 자국이 벗겨지도록 닦는다

적당히 참을 것

집이 어두워 귀뚜라미를 풀었다
 팻보다 평
 소리로 만져지는 기분을 아세요?

그런데 간지러운 건 명치고
 속은 똑같은 속인데, 속으로 생각하라는 말

오늘 난리가 났다
 사장 커피에 누가 침을 뱉었다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닐 겁니다
 자꾸만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는 말만 말만

사장이 펼쩍 뛰고 직원이 펼쩍 뛰고 한숨이 펼쩍 뛰고 가게가
 펼쩍 뛰고 세상이 펼쩍 뚱다

그런데 정시 퇴근은 멀고도 먼 거리고

사실 내게도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다
 선물 받은 그것은
 일부러 떼지 않은 셔츠의 태그 같고

요즘은 귀뚜라미도 일부러 키워요?

그건 가게가 더럽다는 신호

내 속은 87퍼센트 정도 찻다

차고 차이고 차고 차이다가

치고 치이고 치고 치이다가

평 아니고 팻

마침내 초침이 아홉 시 정각을 가리키고

창밖에선 새 한 마리가 날았다

걸어가는 길에 + 우다다다 + 발에 달라붙는

귀뚜 그리고 라미

나는 햄버거를 주문하고

직원을 보며 저 사람은 침샘이 고장 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
다

감자튀김 하나 씹는데

기름이 짙

감자의 영혼도 같이 튀쳐나온 셈

기름 없는 감자튀김, 기름 없는 햄버거, 그리고 콜라

‘기름하다’라는 말은 하루가 길다는 말

그렇게 벌레처럼 돌아다니다

어느새 집이다

| commentary |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도 말하지 못 하는 내밀한 속엿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들이 쌓이고 싸여서 답답해서 아무에게나 다 말해 버리고 싶을 때 저는 메모장에 글을 적습니다. 그 메모를 모으고 모아 이번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시로 조립했습니다.

소설

권주은
김룡희
김혜인
김희은
서인희
장재혁
황혜림

권주은

고사리는 고사하고

샤워가 필요하다는 직원의 말에 숙희와 나는 동시에 손을 들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더 아플 거라는 말에 겁을 좀 먹긴 했지만, 냉이 많이 나오는 체질인 우리에게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미현은 직원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네요, 우리 딸은 어째 겁을 하나도 안 먹어요, 이런 곳은 월세가 얼마 하나요……. 직원은 눈을 반쯤 감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웃음만 지었지만 상관할 미현이 아니었다. 미현이 직원의 시집 얘기를 꺼내기 직전 숙희가 샤워를 끝냈고, 우리는 4인실 방으로 들어갔다.

브라질리언 욕실을 받기로 한 건 순전히 여름 때문이었다. 땀방울이 등판을 적시고 가랑이까지 축축해져 어기적대며 걷는 일은 조금 창피해도 그러려니 했지만, 습진이 이 계절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욕실에 관한 온갖 영상들을 다 찾아봤다. 털이 뽑히는 순간 괴성을 지르거나 허리가 활처럼 휘는 영상을. 유튜브 계정을 공유하는 숙희와 미현도 그 영상을 봤다. 저 짓을 할 생각을 하다니 너도 참 독하다, 그렇게 말하던 미현도 숙희가 먼

저 관심을 보이자 입을 꼭 다물었다. 완경이 압박한 숙희는 부쩍 여성 건강에 신경 쓰고 있었고, 미현은 숙희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 따라 하길 좋아했다.

매끈한 질감의 베드에 누우니 해체당하기 직전의 냉동 참치가 된 것 같았다.

“속옷 벗어주세요.”

베드와 베드 사이를 가르는 간이 커튼 너머로 직원의 기계적인 말이 들려왔다. 숙희는 깔깔대며 웃었다.

“현이 너는 팬티 위로 털이 나냐?”

커튼 안으로 숙희가 손을 축 내밀었다.

“나랑 손잡자.”

팔을 뻗었다. 침대 사이 거리가 은근히 멀어서 손이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엄마 거기 인형 있잖아. 그거 안고 있어.”

“손 잡아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됐어, 언니. 나랑 손잡아.”

미현은 숙희의 손을 덥석 잡아 주었다. 그리고도 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걸 하면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너는 걱정도 태산이다. 누구 보여 주려고 그 걱정을 해?”

“누구든 보여 줄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그래, 너는 아직 젊으니까.”

“언니, 언니도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길 뭐가 늦지 않아. 다 늦었어. 저거 낳고 다 늦었다고!”

그러더니 저들끼리 또 깔깔 웃는다. 대화에 공백 없이 와다다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 아, 둘 다 좀 창피한가 보다.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했다. 나는 수치를 혼자서 참아 내는 성격이니까.

다리를 흥물스럽게 벌리고 뜨거운 것이 닿길 기다리는 기분이 오묘했다. 직원은 무심한 태도에 비해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있었고, 고통은 강렬했지만 금방 가라앉았다.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신음이 새어나갈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머리가 다 아팠다. 직원은 내 살을 들추면서 생존력이 강한 털이 남아 있나 살살이 살폈고, 발견하면 족집게로

가차 없이 제거했다. 살면서 누구도 내 살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숙희마저도.

간이 커튼이 걸렸다. 우리는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로 전보다 깨끗해진 서로를 마주했다. 손바닥보다도 작지만 개당 이만 원씩이나 하는 스크럽 제품과 보습 제품을 두 개씩 사기로 했다. 숙희와 미현은 라벤더 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나는 솔잎 향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몸에서 달지 않은 풀 향이 난다는 것이 좋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저마다 속옷을 내리고 매끈한 살을 들여다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생닭 같아 징그러웠다. 털을 억지로 잡아 뜯으니 살이 도돌도돌 올라왔다. 오줌이 사방팔방 튕다며 또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다.

“확실히, 깔끔하기는 하다.”

한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사라진 털에 관한 것이었다. 짝수일마다 스크럽을 꼼꼼히 하기로 정했고, 스크럽 여부와 상관없이 샤워할 때마다 보습제를 듬뿍 뿌려 주기로 했다. 보습제가 흡수되기 전까지는 헐벗고 다니는 걸 잠시 허용해 주자고 했다. 어린 살 위로 다시 털이 자라 올 무렵에는 서로의 피부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잘못 자라는 건 없는지 살펴봐 주었다.

“가족 사이에 이렇게 비밀이 없는 집도 드물지.”

아랫도리 사정을 이렇게나 긴밀한 수준으로 공유한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미현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못했다. 나는 숙희나 미현에게 한 번도 그 말을 꺼내 보거나, 그런 상상을 해 본 적도 없다. 아빠가 내게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국어 선생이 되길 바란 숙희와 달리, 내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란 미현과 달리, 아빠는 내가 내가 되길 바랐다. 국어 학원에서 매를 맞고 왔던 날 아빠는 숙희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학원을 그만두게 했다. 심지어 학원 선생을 찾아가 합의금까지 받아 왔고, 아빠는 그걸로 내게 치킨을 사 줬다. 아빠는 내게 오는 매질을 참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점에서 숙희가 어떤 종류의 부당함을 느꼈을지 나는 예상되지 않는다.

한창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 예민하던 열두 살 여름방학 무렵, 숙희와 아빠가 이혼했다. 새살림을 차린 아빠가 이혼을 요구하면서였다. 두 사람은 나의 양육권을 두고 오래 다투었다. 나는 두 사람과 두 사람의 가족에게 시도 때도 없이 끌려다니며 맛이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먹고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지 채근 당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숙희의 손에 맡겨졌다. 숙희가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는 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소송 중 아빠가 죽은 거였다.

그때 미현의 나이는 스물넷이었다. 아빠와 미현은 신혼의 재미를 일 년도 채 보지 못했다. 숙희는 이미 아빠와 이혼했고, 미현은 아빠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나는 딸이기에 장례에서는 큰아버지가 상주를 맡았다. 실질적인 유족의 역할은 숙희와 숙희의 가족들이 했다. 숙희가 육개장을 나르고 있을 때, 미현이 내게 와서 말을 걸었다. 나와 미현은 장례식장의 한쪽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이 사람,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숙희의 가족들은 미현을 두고 다방 여자다, 첩이 뻔뻔하게 장례식장까지 따라왔다 하고 말이 많았다. 미현은 이런 말에게서 나를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례가 끝나고 미현은 나와 숙희의 집을 찾아왔다. 그렇게 우리 셋은 가족이 되었다.

그럼에도 비가 그치지 않는 장마철이 오면 나는 아빠의 떠내려간 무덤을 생각한다. 비어 있는 유골함을 생각한다.

“언니, 나 얼마 전에 어머니 봤다?”

“별써 여름이 다 갔나 보다.”

미현이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내 할머니다. 아빠의 가족 중에 미현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숙희도 이혼 후에는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그나마 아빠의 무덤이 이 집 근처에 있어, 이 시기 즈음이 되면 버스 터미널에서 친가 식구들을 마주칠 때가 있다.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까지는 할머니와 연락했었다.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합가를 요구하는 무례하고 무식한 조부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성장기인 내가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있

는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짝꿍이었던 수민이와는 잘 지내는지 차근차근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전화의 마지막은 늘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 언제든지 할머니 집으로 오라는 말이었다.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네 같게요, 했었다. 아니면 싫어요, 했었다.

예고도 없이 학교에 찾아온 할머니가 아버지 보러 가자, 할머니랑 가 살자, 하고 내 손목을 잡아끌었던 날 이후로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숙희는 내 휴대 전화에서 할머니를 포함한 아빠의 모든 가족에 대한 연락처를 찾아 차단했고, 급하게 전학 수속을 밟았으며, 미현은 아침마다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다. 두 여자의 통제 속에서 나는 완전히 안전했고, 완전히 고립되었다.

집안 어느 달력에도 표시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빠의 기일을 알고 있다. 언젠가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오히려 기억을 강하게 붙잡았다. 아빠가 죽고 십이 년, 한때 아빠의 가족이었던 세 모녀는 서로의 털이 뽑힌 자리를 살핀다. 아빠는 이런 풍경을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아빠가 우리 집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털에 덮여 보이지 않았던 숙희의 꽃 모양 점도, 미현의 숨넘어가는 웃음도 아빠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집 안에 기분 좋은 풀 향이 가득 맴뒀다. 스크럽과 보습제의 그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서 우리는 모두 좋아했다. 향을 더 많이 맡고 싶어서 창을 활짝 열었지만 자동차 경적이 크게 들릴 뿐이었다.

“고사리네.”

내 털을 빗고 살피보던 숙희와 미현이 동시에 말했다. 털이 돌아야 할 자리에 두터운 풀이 솟았다. 내 몸에서 고사리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식물을 좋아했다는 게 생각났다. 숙희는 아빠와 지내던 시절에 화분을 하나하나 사 모으더니 결국 집 안을 식물원으로 만들어 아빠와 싸웠고, 미현은 다방에서 키우다 죽어가 는 식물을 하나하나 모으다 아빠와 결혼하려던 무렵에는 방법이 없어 모조리 내다 버렸다고 했다. 식물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했다. 처음 만난 숙희와 미현의 쉽지 않았을 대화에는 분명 식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아빠가 없

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식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했을 것이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런 질문을 한 건 꿈에서였다. 앞뒤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꿈에서도 황당한 질문이라는 듯이 숙희와 미현은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아무래도 기억나질 않는다. 그 꿈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억만이 남았다.

“그거 키우게?”

스크립을 멈추고 보습제 대신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기 시작한 내게 미현이 물었다. 고사리 심지가 굵고 파릇파릇해서 자랄 때 살이 좀 따가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내 손으로 뽑을 수는 없었다. 겨우 이 정도 크기에 집을 가득 채우는 향기를 내뿜는, 숨을 쉬는 생명이 내 몸에서 자라고 있었다.

결혼 전, 아빠는 꽤 건실한 사람이었다. 중앙교회 장로님의 아들로 계절마다 봉사를 나갔고, 동물도 몇 마리 키웠다고 했다. 아빠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변하게 된 건지는 모른다. 애초에 그런 건 숙희와 미현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빠는 애처가는 아니었지만 의처증은 있었다. 아빠의 집착어린 모습이 어린 내 눈에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어린 내게 치부를 감추려 철저히 노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어야 알았다. 어쩌면 아빠는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험하고 더러운 면을 병적으로 숨겼을 것이다. 죄악감에 뒤덮인 채 사랑을 속삭이면서.

이혼을 준비하며 숙희는 왼쪽 허벅지에 깊이 든 피멍 사진을 찍었다. 이미 열어져 자국만 남은 어깨와 새끼손가락의 베인 상처도 찍었다. 내게는 두부를 자르다가 생겼다고 둘러댄 상처였다. 아빠는 살면서 딱 한 번 폭력을 휘둘렀다고 숙희는 말했다. 그러나 미현 역시 얼굴에 성경책이 날아와 생긴 상처가 있다. 학교에서 친구가 던진 실내화 가방에 맞

고 돌아온 내게, 물건을 던지는 건 아주 나쁜 일이라고 미현이 말한 적 있다. 그건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에도 아주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얼굴에 난 상처는 금방 가라앉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낫지 않는 거라고. 미현이 들어온 집에서는 휴대 전화를 소파에 던지거나 빨랫감을 던져서 주고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미현에게 왜 아빠와 결혼했냐고 묻지 않았다. 미현이 삶에서 두 번째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빠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기에 때문이다. 미현은 내 아빠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그저 어찌다 보니 고작 일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같이 산 동거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곤 했다. 그때마다 숙희는 얼씨구 좋겠다, 하며 옆에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라고 하는 결과물을.

숙희는 미현과 가정을 합치고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칫하면 새엄마가 될 뻔했던 여자와 공동육아를 한다니, 어린 내게 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이니 친구니 하다못해 옆집 방앗간 할머니도 숙희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했다. 그 여자가 애를 데려가려고 쇼하는 거야, 애가 다방 여자를 보고 뭐를 배우겠어. 그런 말은 숙희의 마음에 남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종일 맴돌았다.

미현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미현은 내 아빠와 숙희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나, 이 애 엄마 안 할게요. 그냥 언니 동생 시켜 줘요. 네?”

미현은 숙희에게 정말 좋은 동생이 되었다. 왜, 입양할 아이를 처음 만난 부모는 종종 아이에게 첫눈에 반한다고 하지 않나. 미현은 내가 아니라 숙희에게 첫눈에 반했음이 틀림없다. 미현은 아빠가 죽기 전부터 숙희를 훑쳐보았을 것이다. 저 여자는 어떻게 얻어맞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을 쪼다니며 동네 흥을 다 잡아 잡숫네, 어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을까, 어쩔 하나도.

사랑은 원래 그런 경탄에서 시작된다. 호기심에, 신기함에.

“원래 털 쥐어뜯고 나면 털 대신에 풀이 나기도 해.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정말? 현이 너도 고사리가 났었어?”

“고사리는 아니고, 이름 모를 잡초 같은 게 났었지. 사람 몸이 흙이랑 다를 게 없어. 다 양분이 있으니까. 가만두면 잘 자라.”

미현은 막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에 털이 너무 싫어서 나는 족족 족집게로 뽑아냈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프기도 엄청 아팠지만, 이유 모를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다. 썩은 흙에서 쿼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나처럼 풀이 돋은 것이다. 볼쾌한 공간에 파릇한 생명이. 그 이후로도 몇 번인가 풀이 자랐지만 우리 집에 온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미현은 내게서 자란 고사리가 썩 기분 좋은 모양이었다.

“나는 젊어서 왜 털도 한 번 안 뜯어봤을까?”

“언니 아직 젊어. 털 다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뜯어봤으니 됐지.”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애를 낳아서 그래. 애가 애를 낳았지.”

애가 애를 낳았지. 숙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딸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키운 엄마는 이제 막 손이 넘었다. 어딜 가나 젊은 엄마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가장 나이 드신 몸이다. 시도때도 없이 몸이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더니, 한 손에 다 쥐 수 없었던 머리카락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숙희는 자주 우울해했다. 시절이 지날수록 아이를 낳지 않은 미현의 몸과 삶이 픽 부러웠을 것이다.

왜, 나를 낳지 말 걸 그랬어?

그런 물음은 하지 않았다. 숙희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빠였다면 숙희더러 이런 말을 하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애 듣는다, 애도 다 안다. 두꺼운 손으로 내 작은 귀를 막으면서,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숙희는 젊은 몸을 지키고, 아빠는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품어볼 수 있었을 텐데.

아빠의 몸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도무지 모르겠다.

지난밤 꿈을 꾸었다. 고사리가 발꿈치까지 자라는 꿈을. 다 자란 고사리는 양 줄기를 흔들거렸다. 내게 인사를 건내는 듯했다.

“털이 인사라니, 웃기기도 해라.”

잠든 내가 피식 웃었다.

“너 내가 너무 커서 싫지?”

그랬더니 정말로 고사리가 말을 걸어왔다.

“너무 크긴 하다. 이래서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잖아.”

원피스 단 아래로 고사리를 주렁주렁 달고 걷는 나를 상상했더니 또 웃음이 났다. 고사리는 내 웃음에 화난 것처럼 보였다.

“네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잖아! 네 땅이 얼마나 습한지 알고나 있어?”

그리고 보니 습진 때문에 약싱을 한 거였지. 고사리가 잘 자라려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나 비대하게 자랐다니, 조금 미안해졌다.

“미안, 고사리는 물을 많이 먹는다고래.”

“맞아. 고사리는 물을 한 대야로 먹지. 그렇지만 나는 털이잖아.”

그렇구나, 고사리도 털이구나. 너무 향기로워서 풀인 줄만 알았는데, 고사리가 털일 수도 있는 거구나.

고사리와 얘기를 좀 더 나누다 알람이 울려 잠이 깼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질 않았다. 아마 그저 물을 조금만 달라고 꿈에 나온 거겠지. 내 몸은 이미 충분히 습하니까.

고사리가 많이 자랐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러 가기로 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처음 셋이 가는 나들이다. 숙희와 미현은 틈만 나면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카페든지 공기가 좋다는 산이든지 손잡고 떠나고는 했다. 두 엄마는 부쩍 바빠진 딸 얘기를 하며 바빴을 것이다. 사춘기가 늦게 와서 이제 놀아주지도 않네, 혼자 두면 쫓아올 줄 알았더니, 하면서. 사 년 동안 바쁘게 쪼다닌 숙희와 미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법한 공간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기가 막히게 좋아할 만한 푸른 공간이었다.

들뢰루는 뒷산 중턱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다. 그 흔한 운동기구 하나 없이 정자 하나만 멀뚱히 서 있는데, 앉아 있노라면 산들바람이 불고 온 동네가 흰히 보인다. 우리는 낡은 은박 돛자리 하나랑 양념치킨을 준비했다. 등산객 몇 팀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긴 했지만, 그럭저럭 운치 있는 나들이였다.

“저기 아빠 무덤 보인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숙희와 미현은 짐짓 놀란 눈치였다. 순간 치킨 무 씹는 아삭아삭 소리가 멈추고 숙희는 바닥을, 미현은 천장을 쳐다봤다.

삼 년 전 폭우가 내렸을 때 동네는 난리가 났었다. 반지하 집만 물에 잠기는 게 아니었다. 납골당에도 비가 새서 한동안 방송사 취재진들이 들락거렸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이야기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난무했고, 시청 앞에는 유족들이 띠를 두르고 소리질렀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소리는 악에 받힌 소리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가족은 그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빠의 유골을 잃은 숙희는 오히려 후련해 보였다. 산사태로 산소가 떠내려갔다는 연락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저기 없으려나?”

미현이 숙희 눈치를 슬 보며 먼저 입을 열었다.

“없기는 왜. 제 가족들이 다 수습했겠지.”

“저기, 나무에서 세 번째가 우리 아빠 산소인가? 나 기억이 안 나.”

손가락을 들어 저 너머를 가리켰다. 숙희와 미현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보일 손가락이었다. 숙희는 내 손가락을 약간 왼쪽으로 옮겼다. 내 눈에는 산이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었다.

“두 번째지. 왜, 가고 싶냐?”

“가서 뭘 해. 아빠는 내 얼굴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못 알아보긴 왜 못 알아봐, 너 애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미현이 기겁을 하며 말했다. 내가 아빠 애길 하는 건 처음 들어봤을 미현이니까.

“12년이나 지났잖아. 엄마, 나 그때랑 많이 달라졌지?”

“달라지긴. 너 다 큰 거 같지? 너 아직도 애야. 열두 살배기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숙희가 치킨 날개를 먹으며 내 앞머리를 넘겼다. 이마에 양념이 조금 묻은 것 같았다.

“아빠가 나 알아볼까?”

“제 딸 못 알아보는 애비도 있을까 봐? 별걱정을 다 한다.”

바람이 불었다. 치킨 뼈를 올려둔 휴지가 날아갔다. 산 동물이 작은 뼈를 삼켰다가 다 칠지도 모르니 잘 주워 담아 버려야지. 빈 치킨 무 통을 그릇 삼아 들고 정자 밑으로 내려 갔다. 숙희와 미현이 서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둘 이서 나한테 얘길 한 건지, 내 얘기를 한 건지. 궁금하지만 물어보지는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숙희가 먼저 말했다.

“네 아버지 보고 와. 우리한테 남이지만 너한테 아빠니까.”

미현이 그 다음으로 말했다.

“그게 도리인가보다.”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남자 친구랑 1박 2일로 바다 보고 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리 가기가 힘들었을까. 어쩌면 두 엄마도 알 거다. 허락은 필요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사리는 미현이 직접 뽑아주었다. 무지 아프겠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쓱 뽑혔다. 고사리는 다 자라면 독이 올라와서 먹을 수 없다고 숙희가 말했다. 제법 튼튼하게 자란 어린 고사리를 삶아 무침을 하기로 했다.

“나 어렸을 때 고사리무침 되게 좋아했는데.”

고사리 삶을 물을 받던 미현이 문득 말했다.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올라온 고사리무침이 그렇게 맛이 있었다고.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나서는 시장 고사리에서 그 맛이 안 나니까 먹질 않게 되었다고. 그러나 숙희도 뭐가 생각났는지 빙긋 웃음을 지었다.

“나는 밭에 가 맨날 고사리 따다가 밭 주인한테 혼나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썩을 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녁 밥상에 꼭 고사리가 올라왔어. 그래서 다음

변에 또 고사리 따고 그랬지.”

“도둑년이네. 몇 살 때였어?”

“중학교 올라가기 전이니까, 열둘이나 열셋쯤 안 됐을까.”

“다 커서 왜 그랬대?”

“고사리가 그렇게 좋았나 보지.”

숙희와 미현이 서로 보며 깔깔 웃는다. 고사리는 두 엄마의 어린 시절이었구나. 어린 고사리가 어린 두 여자를 먹였구나. 나도 옆에 끼 하하, 하고 조금 웃어봤다. 좋은 기분이었다.

고사리가 양이 적어 숙희랑 미현에게 주지는 못하고, 나만 한 입 맛 봤다. 죽은 것이 낼 수 있는 가장 생명력 넘치는 맛이였다.

숙희의 말대로 아빠의 무덤은 멀쩡했다. 원래부터 멀쩡했는지 멀쩡해 보이게 복구한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풀도 단정하게 깎여있었다. 얼마 전 할머니네가 다녀갔음이 분명했다. 아빠가 그저 외롭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사 지내는 방법은 영 몰랐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소주는 한 병 샀는데 소주잔 챙겨오는 걸 까먹었다. 아무래도 강소주를 무덤에 붓기에는 마음이 좋지 않아서, 왼 손바닥에 조금 받아 툄툄 털어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손이라도 잘 씻고 오는 건데. 좀 짹짹한 맛이 날 것 같았다. 소주 한 병을 비우는 데에 한참이 걸렸다.

“아빠, 나 기억해? 아빠 딸 채원이야.”

허공에 대고 말을 하려니 쑥스러웠다. 그래도 입 밖으로 해야지 아빠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숙희도 미현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니까.

“너무 오래 못 와서 미안해. 내가 이제야 아빠를 용서했나 봐.”

반찬통에 싸온 고사리무침을 바닥에 두고 한참 쳐다봤다. 아빠는 먹는 속도가 빨랐으니까 이 정도만 기다리면 되나? 고인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가?

챙겨온 젓가락을 꺼내 고사리무침을 먹어봤다. 온기가 사라져 첫입보다는 아쉬웠지만 펍 먹어줄 만했다. 젓가락에 새겨진 꽃무늬가 저무는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렸다. 젓가락

은 참 오래간다. 잃어버리지만 앓으면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버리는 일이 없다. 나는 어릴 때 흰쌀밥을 좋아했으니까, 아빠가 이 젓가락으로 김을 싸서 입에 넣어줬을 것이다. 그럼 나는 오물오물 잘도 받아먹고, 아빠는 그런 내 모습을 참 좋아했겠지.

“엄마 용서를 바라지는 마. 아빠는 엄마들을 때렸잖아.”

왜 때렸어? 그런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십이 년 동안 아빠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아빠는 어찌면 나라도 때렸겠지. 숙회를 많이 닦은 나까지 때렸겠지. 하지만 나는 아빠에게 맞은 적이 없다. 그러한 경험의 부재가 앞으로도 나를 많이 괴롭힐 것이다.

“양심이 있으면 나랑 엄마들이랑 평생 잘살게 지켜줘.”

고사리가 아직 살아서 우걱우걱 씹혀 들어갔다. 들기름이랑 참깨가 입술에 붙었다 떨어졌다. 목구멍에 기름칠이 되는 듯해서 잘 넘어갔다. 아빠도 맛있게 먹었을까.

“다음에 또 올게요. 잘 자.”

해가 다 저물고서야 산에서 내려왔다. 돌아오는 버스가 크게 덜컹거렸다.

아빠에게 좋은 밤이었기를. 숙회와 미현도 좋은 밤을 이룰 수 있기를. 어린 고사리도 좋은 삶을 살았기를. 내 첫 고사에 좋은 응답이 오기를. 싱그러운 소망을 품는 사이 마침내 하루가 지났다.

commentary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털을 길러 내는 일뿐이다. 그래서 털 이야기를 썼다. 성장을 마친 몸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자란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아닐까.

내 몸에서 무언가 자라야만 한다면, 그건 맑고 투명한 초록이었으면.

김용희

관심의 농도

꿈을 꿔다. 꿈속의 나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한적한 도로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내 모습이 보였다. 본 적 없는 건물들이 보이고 도시의 소음이 들렸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고양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다. 뒤에는 소녀가 함께 타 있었다. 모르는 얼굴, 모르는 목소리를 가진 소녀. 흐릿한 형상을 한 소녀가 함께 있었다. 둘은 즐겁게 웃으며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엔 바다 위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기분 좋게 튀겼다. 또 장면이 바뀌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걷고 있었다. 매우 천천히 걸었다.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위에서 그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가며 걸었다. 그러다 지쳐서 자동차 위에 올라타 누웠다. 나는 본 적 없었던 나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잠에서 깬다.

꿈속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있었던 일을 공책에 썼다. 내가 본 것들을 빠짐없이 썼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언제나 공책의 반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꿈속의 기억은 금방 날아가고

말았다. 그동안 꿈꿀 때마다 기록을 남겼다. 기억이 생생하게 남지 않는 꿈은 한 줄로도 정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꿈은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데에 도움을 줬다.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만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경우는 잘 없었다. 체질이 그랬다. 의사는 실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니 잠에서 깬 뒤엔 심호흡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았다.

잠이 들기 위해선 수면제의 도움이 필요했다. 적당한 시간에 잠들기 위해선 수면제가 있어야 했다.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니 이제는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된 것만 같았다. 수면제를 약한 걸로 바꿔달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행을 계획한 건 꽤 오래된 일이었다. 항상 올해는 가야지, 이번엔 가야지, 생각만 했을 뿐 쉽게 진행하지 못했다. 바쁘게 지나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갔다. 사회의 치열함을 온몸으로 받아 내고 나면 금세 피곤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렇게 한 번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한 일이 이번 여행이었고 이번에도 외면하지 않도록 비싼 숙소까지 예약해 버렸다. 성인이 되고 나서 몇 년 만에 계획한 여행이었기에 모아둔 돈을 잔뜩 투자할 생각에서였다.

짐이 가득 든 캐리어가 터질 것 같았다.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옷을 몇 벌 넣으니 금방 캐리어가 가득 차버렸다. 무거운 캐리어를 방구석에 대충 둔 뒤 침대에 누웠다. 엄마가 봤다면 출발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짐을 싸놓냐고 한마디 했을 것이다. 캐리어엔 집에 있는 생필품을 거의 다 담아두었기에 짐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 당장 필요한 것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캐리어에 담았다. 며칠 전 동창 모임을 하자는 연락을 받은 기억이 났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었다. 당장 지난주 일도 가물가물한데 초등학교의 기억이 있을 리 만무했다.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를 녀석에게 문자가 왔다.

‘청만 초등학교 2010년 졸업생들 동창 모임을 진행합니다. 장소는 중앙동 정호네 치킨집이며 일시는 1월 4일 18시입니다. 참가 희망자들은 답장해 주세요.’

답장을 남겨야 할까 생각했지만, 보내지 않았다. 답장하지 않으면 문자가 가지 않았겠

거니 생각할 터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십오 년 가까이 지났으니 내 기억 속의 동창들 모습은 너무도 흐릿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목소리는 어땠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심지어 졸업생 모임이니 다른 반이었던 아이들도 올 것이었다.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 뻔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1반에만 배정되었다. 다른 녀석들은 다른 반을 돌아다니곤 했는데 나는 육 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를 1반의 개로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구석에 둔 캐리어를 다시 가져왔다. 모임 날짜는 어느새 일주일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내가 계획한 여행 일정은 모임의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교묘하게 어긋난 날짜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정호네 치킨집이 어디냐며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와 잠에서 깼다. 요란스러운 벨 소리는 잠에서 쉽게 깨지 않는 탓에 설정해 둔 것이었다. 가끔 너무 깊게 잘 때면 이 시끄러운 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전화의 주인은 동생이었다. 나도 동생도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 내 잠긴 목소리에 동생은 자고 있었냐고 물었다.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오후 한 시를 지나고 있었다. 작게 한숨을 내뿜더니 엄마가 연락 좀 하래, 라고 동생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 전화를 침대 옆에 대충 던져둔 뒤에 마른세수를 했다. 찬 공기가 이불 안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기억을 되새길 겸 모임 시간 전에 학교 앞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엄마에게 연락하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았다.

엄마와 아빠는 따로 떨어져 살았다. 정확히 하자면 이혼했다.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것은 아니었다. 이혼을 한 뒤에도 우리와는 각자 만났다. 나와 동생이 다 컸고 더 이상 뒷바라지가 필요 없으니 따로 살자는 이유였다. 그저 그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 부모님은 이혼을 택했다. 따로 살게 되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었다. 각자의 자유를 찾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무엇보다 아빠가 가장 좋

아하는 것 같았다. 어딜 그리도 돌아다니는지 연락도 잘 안됐다. 가끔 돌아올 때면 먼저 연락이 와 이상한 언어로 된 선물을 주곤 했다. 나는 그 이상한 선물들을 상자 하나에 모아 두었다. 엄마는 내 집에 올 때마다 그걸 보곤 쓰레기들을 왜 모아 두냐고 말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생겼잖아, 라고 대답하고 웃었다. 그러면 엄마는 고개를 저을 뿐 버리진 않았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 엄마 집에 찾아갈 때면 불평을 쏟아 내곤 했다. 엄마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혼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결국 선택은 둘 다 같은 곳을 향했지만, 슬퍼 보이는 건은 여전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해 시선을 회피했다. 나는 도망치듯 엄마의 집에서 먼 곳으로, 쉽게 찾아가기 힘든 곳으로 떠나왔다.

집을 나서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금씩 내리는 것이지만 눈을 맞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우산을 챙겨 나섰다. 비와 달리 우산을 조금씩 건드리는 소리가 나쁘지 않게 들려왔다.

학교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학교는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계단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그 오르막길에는 계단을 짓고 도로와는 펜스로 구분지어 두었다. 원래는 없던 체육관을 새로 짓고 본관은 깔끔하게 보수한 듯했다. 이전보다 시원해진 모습이 눈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방학 기간인데도 누군가 학교에 와 있는지 불이 켜져 있었다. 낮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너무도 잘 보였다. 어찌면 전날에 불을 끄지 않고 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학교 앞엔 어디나 그렇듯 작은 문구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치에 대형 문구사가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큰 곳이 통행도 불편한 위치에 어찌서 들어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 층 높이의 건물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문구점의 주인아저씨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운동장 한구석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다. 모래밭이던 그곳은 고무 바닥으로 덮여 있었다. 기구들도 낡아서 칠이 벗겨진 걸 싹 갈아 치운 모양이었다. 쉬는 날이면 항상 사람이 붐비던 놀이터임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체육 시간

에 자유 시간을 받으면 항상 놀이터 옆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뛰어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구경하거나 놀이터에서 떠드는 것을 구경하곤 했다. 그 모습이 잔잔해서 나른한 햇빛에 잠이 오기도 했던 기억이 났다.

학교 근처에 있던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 잘되지 않는 장사를 접고 다른 곳에 문을 여는 경우는 자주 보았던 일이었다. 학교에서 내려와 길을 건너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주 가던 놀이터와 피시방이 있었다. 이제는 놀이터가 있던 장소엔 새로운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었고 피시방이 있던 자리는 간판만 남은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돌러본 학교 주변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학교의 위치와 주변 상가 건물만 남아 있을 뿐 당시의 것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남은 것도 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다.

눈이 어느새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눈이 많이 온 것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았다.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더니 시간은 이미 약속 시간을 훌쩍 지나 있었다. 위치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택시를 잡았다.

남은 건물들 사이에서 정호네 치킨집으로 불리는 건물은 혼자 반짝이는 느낌이었다.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모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옛날에나 듣던 현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 알바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다.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는 말에 아뇨, 동창회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답했다. 알바생은 아,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며 안내해 주었다.

건물 내부는 그리 넓지 않았다. 옛날 분위기를 내려 했는지 가벽을 잔뜩 세워놔서 이동이 불편했다. 가벽을 이리저리 피하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금세 다시 떠들썩한 분위기가 돌아왔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순간의 어색한 분위기였다. 나에게 몇 명은 인사를 건넸다. 그러더니 조금씩 움직여 빈자리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빨쭙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방금 도착한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

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초등학교 때이니 성인이 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충 기억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름도 나에게 말해주었지만, 기억나는 이름은 없었다. 그들도 나에게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내 자기들끼리 대화하기 시작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자니 한 남자가 자신이 정우라고 밝히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 이름이었다. 현재는 오늘 못 온대, 야간 근무라던데? 라며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넌 얼굴이 그대로다, 라며 덧붙였다.

현재는 누구였지. 정우라는 이름을 기억해낸 것도 기적이었다. 그와 나는 초등학교 때 교류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딱 한 번 그가 화장실을 가지 않고 있다가 교실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는 것만 기억났다. 지금 와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요즘 뭐하냐고 묻는 말에 글 쓰고 있어, 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우는 글? 시나리오 뭐 그런 건가, 라며 물었다. 시나리오를 써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거라고 답했다. 소설이나 뭐 그런 걸 쓴다고 말했다. 글을 쓴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시나리오를 쓰는 거냐고 이야기했다. 책은 안 읽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모양이었다. 역시 요즘 유행한다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꺼냈다. 여주인공이 어쩌니 상황이 어쩌니 말을 꺼냈지만, 나는 보지 않은 드라마였기에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없었다. 넌 여전히 말이 많네, 정우야, 라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말에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정우는 활짝 웃으며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다. 그곳엔 어딘가 익숙한 여자가 있었다. 희태, 너도 오랜만이네? 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내 이름을 기억할 정도면 친분이 꽤 있던 사람인 모양이었다. 게다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한동안 누군지 떠올리려고 하였지만, 기억나는 부분이 없었다. 화장까지 하니 어릴 때의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아 더 알기 힘들었다. 여자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눈썹을 찌푸렸다. 여자는 유정현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이름을 듣자 기억나는 것 같았다. 유정현과 쌍둥이인 자매가 삼 년 정도 같은 반에 있었다. 여자는 지현이라고 했다.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도 똑같아서 자주 헷갈렸던 기억이 났다. 내가 머쓱하게 인사하자 지현은 뒤통수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지현을 봤을 때 익숙한 느낌이 든 이유가 문득 생각났다. 지현의 모습은 꿈속의 여자와 닮아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성

장하면 딱 저 모습일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지현은 혼자 왔는지 정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우에게 정현이 왔는지 문자 떨어뜨린 반응이 돌아왔다. 그리곤 정우는 너 소식 못 들었어? 정현이 사고당했어.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 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연락을 이어간 적이 없었기에 소식을 알 턱이 없었다. 근데 정현은 왜 내 꿈에 나오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와의 기억도 흐릿했다. 내가 음료수만 홀짝이자 너야 항상 남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 애들이 너 되게 무서워했다? 하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아채기 힘든 말이었다. 오히려 비난에 가까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쏟아지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니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서른 명은 넘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모임을 계획한 사람이 정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정우에게 내 연락처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다. 정우는 어머니께 물어보니 바로 알려주었다고 했다. 우리 엄마? 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우가 엄마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굳이 묻진 않았다. 정우 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친했던가? 생각했다. 엄마는 자주 학부모 모임에 나갔다. 정우도 초등학교 땐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었으니 알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우의 어머니도 학부모 모임에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었다.

엄마는 나의 학창 시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물었고 나는 거기에 별일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나의 학교생활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기에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재밌게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도 가끔 들었지만, 과거를 돌이킬 순 없는 법이었다. 어딘가 재밌었던 부분은 학교 밖에서 있었다. 집과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나는 편안함을 찾았고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이 나자 살짝 웃음이 터졌다. 혼자 웃는 것이 이상했는지 나를 돌아보는 사람도 몇 있었지만, 이내 다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바빴다.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오자 이미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중에는 지현도 있었다. 지현은 나를 알아보고는 다가왔다. 정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라 살짝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다. 정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 지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현이도 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너희 되게 친했잖아, 라고 말하는 지현에게 그랬지, 라며 약간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지갑을 꺼낼 때 그 위에 올려둔 모양이었다. 빈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자 지현이 라이터를 들이댔다. 그리곤 갖다 대라는 듯이 눈썹을 까딱거렸다. 근데 이런 곳은 너 안 올 줄 알았는데, 하고 지현이 말했다. 왜? 라고 되묻자 그걸 몰라서 묻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지현에게 들은 초등학교 시절의 나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서 뭘 하든 혼자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본 나의 모습이었다. 정현과 지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같은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선생님들이 둘이 함께 있으면 헛갈려서인지 일부러 반을 나눠 둔 것 같이라며 웃었다.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정현이 내 옆자리였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옆자리는 자주 바꿨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정현은 집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현과 내가 항상 같은 반이었던 건 아니었다. 이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고 다음으로 마지막 학년인 육학년 때였다. 그 사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당시의 나는 시간이 빨리 흘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다. 그때의 난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지현이 말해주는 정현의 과거를 듣고 있자니 그때의 모습이 기억나는 것 같았다. 어딘가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모습이 나와 잘 맞았는지 정현과 자주 놀았다. 놀았다고 하기엔 일방적인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 조용한 성격과 정현의 이끄는 성격은 잘 어울렸다. 내 꿈에 정현이 가끔 나와, 내가 말하자 지현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곤 그때가 나도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꼭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인연을 이어가고자 했다. 당시의 나는 휴대 전화가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잊는

것보다 내가 잇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지현은 이기적이네, 라며 웃었다. 나는 출다, 들어가자, 라고 했다. 눈이 그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눈이 오는 것도 오랜만이다. 애들도 오랜만에 봐서 즐거운데, 안 그래? 라고 지현이 물었다. 나는 글썄, 라고 대답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지현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정현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정현은 집과 학교만 돌아다니던 나를 끌고 자유로운 것을 알려 주었다.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때였던 것 같다. 일상이 바빠지니 과거의 기억은 잇은 채로 살아가게 됐다. 우리는 다른 반이 되고 나서도 종종 같이 놀았다. 고학년이 되면서 나는 피시방을 자주 가게 되며 만날 일이 적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주 만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아니, 만난 적이 없었다.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 학교 간의 거리가 멀었기에 이사해야 했다. 사는 동네가 달라지니 쉽게 만날 수 없었다. 교류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내 기억에서 그때는 서서히 지워져 갔다.

여행 간다며, 어디로 가려고? 가게로 들어오자 정우가 물었다. 응, 부산에 가볼까 해서, 라고 하자 부산 좋지, 라면서 부산에 가면 꼭 가야 할 곳이라면서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내 일정을 물으며 부산 말고도 꼭 가봐야 할 지역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근데 왜 꼭 국내야? 라고 묻자 일단 국내를 다 돌아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해외로 나가는 거야, 라고 정우가 말했다. 옆에서 지현은 그게 뭐야, 난 해외부터 갈래, 건강할 때 돌아다녀야지, 라고 말했다. 나는 살면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가까운 곳부터 먼저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했다.

시간이 많이 흐르자 공간이 취한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자기가 친했던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기도 했고 내일이면 여행을 가기로 계획 중이니 술을 마셨다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다. 그런 나를 보며 정우는 섭섭하다며 어깨동무를 하였다. 정우의 얼굴을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무리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었으니 외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주변을 둘러보자 지현이 있었다. 지현은 나에게 번호를 주며 연락 좀 하며 살자

고 했다. 나는 그 말에 확실하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가게를 나왔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엄마는 자고 있겠지, 내일 출발하기 전에 연락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땀다.

옷에 살짝 묻은 눈을 털어냈다. 차가운 감촉이 손을 타고 흘러들었다. 오늘따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평소와 달리 일상과 벗어난 첫날이 되니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수면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정현과의 일들을 떠올려 보려다가 금세 잠이 들었다.

풍경이 바뀐다. 꿈속의 나는 항상 자유로워 보인다. 아파트의 옥상에서 하늘과 가까이 있었다. 꿈속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곳의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갔다. 옆에 있는 정현의 모습은 이제 선명하게 보였다. 얼굴도 목소리도 흐릿했던 소녀는 이제 분명히 정현의 모습으로 보였다. 꿈은 잠에서 깨기 직전에 꾸는 거라던데, 라고 정현이 말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이상한 책 읽었지. 응. 그렇다기엔 너무 오래 꿈꾸는 거 아니야? 하고 내가 말한다. 그건 나도 모르지, 어쩌면 잠을 너무 폭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정현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꿈속에서의 대화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옛날에 나눴던 대화 같기도 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았다. 내가 꿈꾸고 있으면 자주 잠꼬대를 했다고 한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선생님이 깨워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했다. 꿈에서 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니. 다시 생각하면 이상한 것 같았지만 재밌는 대화였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나는 그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공책에 옮겨 적었다. 중간에 대화가 비는 부분은 내가 상상해 써 내려갔다. 그리곤 옆에 작은따옴표를 붙여 ‘나의 상상’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정현과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기억이라는 건 참으로 간사했기에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흐려져만 갔다. 꿈을 더듬으며 내용을 기억해 내듯이 이전의 기억도 떠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졸업 앨범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바람에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엄마 집에 놔두고 온 것

이 틀림없었다. 어제 지현과 나는 대화가 생각이 났다. 그녀는 기억은 자유로운 법이야. 절대 잊지 않을 것만 같은 일도 금세 잊어버리고 갑자기 떠올릴 때도 있으니, 라고 말하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이 내겐 너무도 많았다. 내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신경 쓰기엔 당장이 힘든걸, 나는 그렇게 말했다. 지현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내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꿈에서 깨고 난 뒤엔 잠에서 깬다. 그러면 잠간은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잠을 깊이 자는 편이었다. 잠을 자는 동안엔 잘 깨지 않았고 엄마는 누가 데려가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제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걸 인지하게 되면 항상 꿈에서 깨어났다. 루시드 드림은 헛소리임이 분명했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정현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에는 가장 그리웠던 순간과 가장 원하는 순간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그저 내 뇌를 통해 상상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그리움을 잊고 살았던 모양이야,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전날에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온 탓인지 살짝 늦잠을 자고 말았다. 어차피 혼자 하는 여행이었기에 출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기차 시간이 아슬아슬해 보였다. 화장실에서 대충 세수를 한 뒤 캐리어를 챙겨 집 밖으로 나섰다. 항상 밖에 나설 땐 집에 뭔가를 두고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따로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신호음이 가나 싶더니 이내 전화가 끊어졌다. 부재중이 찍혔을 테니 언젠가 따로 전화를 걸겠지 싶었다. 대신 나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엄마, 나 여행가. 한 한 달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야. 그냥 연락 안 되더라도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줘. 조금 숨이 막혀서 숨 좀 돌리고 오려고. 까지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전송을 눌렀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하네, 라고 답장이 왔다. 전날 내린 눈이 녹아 신발 바닥이 질척거렸다.

commentary

학생이던 나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건 즐거웠으니 그랬던 거 아닐까요? 20년이라는 제 인생의 전부와 같은 시간을 학생으로 살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하기에 한동안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이후의 저에게 응원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김혜인

빨간 벽돌 빌라

저녁 아홉 시쯤이었다. 근처 마트에서 산 원 플러스 원 두루마리 휴지를 양손에 들고 잠시 기다리니 현관문이 열렸다. 전에 보았을 때보다 살집이 조금 더 오른 듯한 제부가 휴지를 건네받으며 뭘 이런 걸 다 사 왔냐고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갑자기 가벼워진 두 손을 쥐었다 폼다 하며 제부를 따라 집으로 들어섰다.

“집사람이 자고 있어서요. 깨울게요, 잠시만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늦게 왔는데요, 뭘.”

제부는 베란다에 휴지를 쌓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이제 막 일곱 살이 된 미진의 딸 연우가 소파에 누어져 태블릿으로 아동용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영상에선 동글동글한 곰 캐릭터가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히 섞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연우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영상을 바라봤다. ‘아빠 곰 Brave! Brave! 엄마 곰 Tender! Tender!’ 입꼬리를 한계까지 끌어올린 작은 곰이 어깨를 으쓱거릴 때마다 연우의 발가락도 리듬을 타듯 움직였다. 나는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가방에서

휴지와 함께 샀던 뽀로로 색칠공부 놀이책을 꺼냈다.

“요즘 애들은 캐치티니핑 좋아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미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언제 간다고?”

“내일 점심쯤.”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우에게 손을 뻗었다. 연우는 아쉬운 듯 태블릿 전원을 끄곤 미진에게 건넸다.

“그거 내 거예요?”

연우는 미진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한참 바라보다 포기했는지 뽀로로 색칠공부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대답 대신 연우에게 책을 들이밀었다. 연우는 낚아채듯 책을 받아들곤 안방 맞은편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에 온갖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다.

“재가 이걸 한 번 봤다 하면 통 놓지를 않아서…….”

미진은 소파 옆 서랍에 태블릿을 넣으며 하루 태블릿 사용 시간을 정해 두고 있다고 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설정한 시간 이후엔 태블릿 화면 자체가 잠기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고 제부가 덧붙여 말했다. 연우는 주말에 두 시간씩만 태블릿을 쓸 수 있었다.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에게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뭐라 선불리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대화를 나누기에 미진과 내가 가깝지 않았다. 미진의 결혼 이후 먼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되었다. 그건 미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다. 왜 멀어졌는지, 어떻게 멀어진 건지 뭐 하나 명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서로 잘못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짚이는 게 무수히 많으면서도 동시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도 선불리 짐작하기 힘들었다.

나는 종종 내가 소설을 쓰지 않았더라면, 으로 시작하는 상상을 한다. 직장을 구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갔더라면. 인생을 커다란 행운도 없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과 하락도 없는 완만한 굴곡으로 그릴 수 있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둔 시기였다. 미진은 고등학교 졸업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열한 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미진을 기어이 거실 식탁에 앉혔다. 우리 셋은 거실 불만 하나 켜 채로 스미는 어둠에 닿을세라 식탁에 몸을 끌어 붙여 앉았다. 보통 이렇게 저녁까지 미진을 기다려 다 함께 식탁에 앉는 경우는 중요한 가족 공지를 내리기 위함이었다. 이제까지 딱 두 번 모였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바람난 사실을 알릴 때였고 또 한 번이 이 날이었다.

“집을 내놔다.”

엄마는 무기력하고 건조했다. 그제야 며칠 전 엄마가 내게 정말로 글 써야겠니,라고 물어온 게 생각보다 진지한 이야기였음을 깨달았다. 미진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다가 그렇구나, 우리 결국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일어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엄마는 미진이 들어간 뒤로도 꽤 오래 앉아 있었다.

“난 너무 지쳤고 더는 빛을 지고 싶지 않아. 버틸 수도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내가 일어날 때까지도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엄마를 바라봤다. 선연히 빛나는 전등 아래, 엄마의 굽은 허리와 말린 어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진은 대학 원서를 어디에도 넣지 않았다. 내가 그럴 형편이 어딴어, 라며 도서관에 틀어박혔다. 하루를 온전히 도서관 아래서 보냈다. 도서관 문을 여는 아침 아홉시부터 문을 닫는 저녁 열 시까지 온종일 그곳에 있었다. 남들처럼 열두 시에 점심을 먹지 않고 네 시쯤에야 도서관 맞은편 편의점에 갔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엔 영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자꾸만 결심했던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대꾸하면서도 미진이 살아갈 수 있었을 또 다른 삶을 떠올렸다.

가끔 미진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나는 소설을 읽고 미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내가 800번대 문학 코너에서 책을 몇 권 뽑아 들고 오면 미진은 도대체 그런 책들이 인생

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식으로 물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그건 마치 ‘사랑에 대해 정의하시오.’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 분명 사랑이란 감정이 있다는 건 확실하나, 어떤 설명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결코 가 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미진은 늘 물었다. 그거 다 무슨 소용인데? 뭘 할 수 있는데? 뭐가 바뀌는데? 나는 한 번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그날 읽은 책에 대해 말해주곤 했다. 개화전선을 따라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나 가슴에 금실 자수를 낙인처럼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을 얘기했다. 저자와 작품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날 나는 한 소녀의 실수가 평생의 속죄로 이어지는 소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미진은 찬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필러이는 목도리를 목에 붙들어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추위에 발갠 미진의 두 뺨 위로 미세한 핏줄이 돌아 있었다. 나는 점차 터질 듯 붉어지는 미진의 뺨을 보며 언젠가 읽었던 소설의 한 대목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미진이 꼭 아주 먼 소설 속 인물처럼 느껴졌다. 미진은 목도리를 두르고, 풀어지면 다시 두르길 반복하다 어느 순간 완전히 풀어버렸다.

“너 되게 소설 주인공 같아.”

미진은 아무 말 없이 목도리를 감아 가방 안에 넣었다. 나는 미진의 가방 속으로 푹푹 눌러 담기는 목도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차가운 거리를 적막하게 걸었다. 저 멀리 길의 끝에 집이 보일 때쯤, 미진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배가 불렀네, 언니는. 뜯구름 잡을 시간도 있고.”

미진은 아주 예민하고 서글픈 표정을 하고 멈춰 서 있었다. 이번엔 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을 판 뒤, 대출을 갚고 여기저기 빌렸던 돈을 떼꾸니 엄마의 통장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이 남았다. 우리 셋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미진은 도서관에 갔고 나와 엄마는 부동산에 갔다. 여자는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와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빠르게 넘겼다. 집의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 돈으로는 근방에서 집 구하기 힘들어요, 어머니. 이걸 어머니도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방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집값이 어머니가 생각하시던 때랑 또 달라졌어요. 먼 곳이 영 싫으시면 요 근방 월세로 보시는 방법은 있어요. 사실 대출 안 끼고 집 구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요, 어머니.”

여자는 과일을 우리 쪽으로 보이게끔 펼치더니 볼펜으로 보증금과 평수, 월세금에 동그라미를 쳤다. 워낙 그려댄 탓인지 과일 종이엔 동그란 모양이 자욱이 눌러 있었다. 엄마는 끊임없이 돈을 갚기 위해 일하는 건 질색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출은 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밑 빠진 독은 지긋지긋해.”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꾸벅 인사를 하고 부동산을 나왔다. 골목을 따라 많게는 세 개의 부동산이 등성 등성 자리하고 있었다. 촘촘히 솟아오른 건물과 우리 앞을 달리는 자동차들. 같은 건물에 간판만 새로 달고 가게를 개업하거나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이토록 부동산이 많고 건물이 넘쳐나는데 어째서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지. 우리는 이 집 저 집을 들쭉시다 진전 없이 다음날을 맞이했다. 발 디딜 틈이 좁아졌다. 완전히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갈수록 그랬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갔다. 건물이 갈수록 낮아지고 뻣뻣해졌다. 우리는 원래 살고자 생각했던 위치에서 차로 삼십 분이나 떨어진 집으로 이사했다. 월세였다. 아파트에서 빨간 벽돌 빌라로 갔다. 엘리베이터 없는 사 층이었다. 녹슨 손잡이를 잡고 사 층까지 힘겹게 오르면 몸에 달짝 붙는 여름의 열기가 느껴졌다. 습하고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빌라에서는 쿼퀴한 냄새가 났다. 비가 오면 금방이라도 건물 외벽과 내벽 할 것 없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오를 것만 같았다. 그 무렵의 나는 막을 수 없는 곰팡이들이 스멀스멀 계단을 타고 올라와 우리의 집을 뒤덮는 악몽을 간간히 꾸곤 했다.

이사 당일, 작은 용달차가 왔다. 전날 마트에서 가져온形形色색의 과일 상자가 차례로 트럭에 쌓였다. 짐이 별로 많지 않아 금방 실었다. 우리는 용달차 앞에 탔다. 원래는 두 명까지만 탈 수 있다는 것을 엄마가 한 명만 걸어가라 할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려 겨우 셋이 탈 수 있었다. 엄마는 미진을 내 무릎 위에 앉히라 했다. 물론 미진은 내 동생이고, 가

꿈 하나의 이불을 공유한 채로 살을 맞대고 자거나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 큰 미진을 무릎에 앉히기엔 여러모로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엄마가 먼저 차에 탔고 나는 주춤다 다음으로 탔다. 얼굴이 조금 빨갛게 달아오른 미진이 내 위로 올라탔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물살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작은 배 같았다. 내 쪽으로 차가 기울 때마다 엄마가 내 몸을 짓눌렀다. 몸의 절반이 커다란 추에 깔린 것 같았다. 차가 엄마 쪽으로 기울면 나는 미진을 움켜잡고 몸에 잔뜩 힘을 줬다. 배달통 속 내용물이 뒤섞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배달원 같았다. 삼십 분을 짓눌리고 쫓린 끝에 차창 너머로 빨간 벽돌 빌라가 보였다.

“사모님, 이거는 추가금이 나오겠는데요.”

용달 기사는 차에서 내려 빌라를 아래위로 훑었다. 엄마는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추가금이요?”

“사 층이라 하셨죠?”

“예.”

“여기 엘리베이터 없네요. 이러면 제가 손수 하나하나 들고 올라가야 하니까, 추가금이 붙습니다. 바가지 이런 거 아니고요…”

기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용달 업체 사이트를 켜 하단의 작고 빨간 글씨를 확대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 투명하게 적어두고 하거든요.”

엄마는 기사의 핸드폰을 가져가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엄마 곁에 서서 함께 화면을 보던 기사는 트럭 뒤로 가 트렁크 걸쇠를 풀었다.

“사모님, 그래서 하셔요, 마셔요? 일단 짐 내릴까요?”

“일단 내려주세요.”

기사는 손에 닿는 짐부터 바닥으로 내려놓기 시작했다. 단순히 트렁크에 있는 짐을 내리는 일인데도 용달 일을 오래 한 티가 났다. 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건을 씬 없이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착실하게 물건을 내렸다. 엄마는 죄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기사 옆으로 가 물었다.

“아저씨, 이거 들고 올라가는 게 추가금이 있는 거죠?”

기사는 점심시간이 되어 가동을 잠시 멈춘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서히 짐 내리기를 멈추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엄마를 쳐다봤다.

“이거……. 우리가 들고 올라가면 될 거 같아서요.”

나와 미진이 엄마를 바라봤다. 세 사람의 짐 치고 많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저 상자들 사이엔 분명 제법 무거운 식기류나 책들, 두꺼운 겨울옷 같은 것들이 있었다. 기사는 실소를 터트리더니 기지개를 폈다. 그의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다.

“아니, 사모님. 이거를 여자 셋이 어떻게 들고 올라가요. 그러다 허리 나갑니다. 삼만 원에 맞춰 해 드릴게요. 이거 직접 하려면 종일 하셔야 해요.”

엄마는 쌓인 상자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괜찮아요.”라고 했다. 기사는 “이거 참, 영할 짓이 못될 텐데.”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짐을 내리고 주저 없이 떠났다. 줄지에 우리는 길바닥에 이삿짐을 쌓아둔 사람들이 됐다. 행색이 꼭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상자와 우리를 쳐다봤다. 미진과 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발 밑에서 가장 가까운 상자부터 들었다.

쉽 없이 계단을 올랐다. 빌라 계단이 가파른 것은 아니었지만 상자를 들고 사 층까지 오르내리길 여러 번 하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삼 층에서 사 층을 올라가는 구간이 고비였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상자가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다. 자칫하면 모든 것을 놓쳐버릴 것만 같았다. 여름의 더위는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온몸이 끈적하게 녹아내렸다.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사과 상자를 어깨에 걸쳐 댔다. 무게가 상당하지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책인 것 같았다. 이미 여러 번 짐을 옮긴 탓에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주저앉고 싶었다. 나는 이 층 계단참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빌라 전체에 진동했다. 그때 바로 위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였다. 고개를 들어 한 층 위를 바라봤다. 미진이 들고 있던 상자 아래가 완전히 무너져있었다. 허물어진 상자 아래로 온갖 가재도구가 튀어나왔다. 미진은 상자를 뒤집어 다시 조립하곤 여기저기 흩뿌려진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를 줍기 시작했다. 나도 계단에 굴러떨어진 스테인리스 그릇, 숟가락, 튀김용 젓가락

을 하나하나 주우며 미진에게 다가갔다.

“어디 안 다쳤어? 칼 같은 건 없었지?”

미진은 아무 말 않고 손가락을 주워 상자에 도로 담았다. 나는 미진의 옆에서 함께 젓가락 한 쌍을 주우며 미진을 올려다봤다.

“괜찮지?”

괜찮냐는 나의 물음엔 얼른 미진이 괜찮다, 고 답해주기를 바라는 압박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미진을 위한다기보다는 미진이 괜찮음을 확인받고 싶은 감정이 가까웠다. 미진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눈가가 잔뜩 붉어진 채 묵묵히 자신이 놓친 것을 주워 담았다.

“삼만 원…….”

미진은 녹녹히 젖은 팔로 눈가를 문질렀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미진아.”

미진은 대꾸하지 않고 내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 한 쌍을 가져갔다. 뒤늦게 계단을 내려온 엄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진은 상자 윗면을 조립해 잠그고는 엄마를 스쳐 지나 계단을 올랐다. 나는 얼떨떨하게 미진이 올라간 계단을 쳐다봤다. 엄마는 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듯했지만 나도 말없이 계단참에 뒹던 사과 상자를 짊어지고 계단을 올랐다.

미진이 제부와 결혼 하겠다고 밝힌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빨간 벽돌 빌라에 살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려면 미진은 두 번의 실패 끝에 행정 8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지 어느덧 삼 년 차였고 나는 신문사에 투고한 소설로 등단한 뒤 조그만 웹진에 짙막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묶어낸 소설집도 없었고 간간이 오는 청탁마저도 어느 순간 뜸해졌다. 한동안 새로 등단한 작가들의 글을 읽는 게 두려웠다. 나는 등단이 인생을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했다. 일요일 저녁, 미진은 제부를 빨간 벽돌 빌라에 데려왔다. 엄마는 미진이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사실에 토요일부터 밤잠을 설치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쓸고 닦았다. 몇 개 없는 가구도 다 들어내 먼지 하나 없도록 치웠다. 깔끔하게 치운다고 해봤자 군데군데 얼룩진 아이보리 벽지와 일어난 장판이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인상을 줬다. 나는 청소를 도왔다. 지워질 리 없는 얼룩을 닦고 또 닦았다. 한 시간을 넘게 청소만 하던 엄마는 시장에 가 돼지 등뼈를 한 멍치 사 왔다. 지금부터 핏물을 빼야 저녁쯤에 등뼈 감자탕을 먹을 수 있다며 커다란 양동이에 찬물을 받고 돼지 등뼈를 푹 담갔다. 등뼈 감자탕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가장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음식이었다. 미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다. 엄마는 다시 쉴 틈 없이 바닥을 닦고 먼지를 쓸고 가구를 옮겼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양 굴었다. 미진이 제부의 손을 잡고 온 것은 엄마가 드디어 좀 쉬려나 싶을 때였다.

미진은 사과, 배, 포도가 예쁘게 쌓여 있는 과일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미진 뒤로는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오른 남자가 현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그게 빛바랜 벽지와 영 어울리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빌라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는지 신발을 벗느라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도 벽찬 듯 숨을 내쉬었다.

“이거, 요 앞에서 사왔어. 엄마 먹으래.”

미진은 과일 바구니를 떠밀 듯 내밀었다. 엄마는 건네받은 바구니를 얼떨떨한 표정으로 꼭 안았다. 남자는 셔츠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셋이 살기엔 오순도순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얼굴엔 어떠한 악의도 없어 보였다. 나는 엄마와 미진을 번갈아 쳐다봤다. 엄마는 과일 바구니를 부엌 선반에 올려두고 있었고 미진은 구두 뒤로 손가락을 넣어 신을 벗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순간에 그들이 멈칫하는 걸 봤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우리의 세계가 예민하게 멈췄다 다시 작동했다.

엄마는 분주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찬 그릇을 날랐다. 엄마가 토요일 내도록 만든 것이었다. 깻잎 볶음, 무생채, 콩나물무침, 고추장 불고기가 식탁에 그득히 자리 잡았다. 정작 가장 신경 써서 만들었던 등뼈 감자탕은 상에 올리지도 못했다. 네 명이 동그란 식탁에 다닥다닥 붙었다. 서로의 무릎이 아슬아슬하게 닿았다 떨어졌다. 남자가 수저를 들

었다. 나는 미진이 데려온 남자를 관찰하느라 밥을 먹는 건 뒷전이었다. 엄마는 미진과 남자가 어디서 만났는지, 왜 좋은지, 결혼은 언제쯤 할 예정인지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지켜봤다. 미진의 물잔이 비었을 때 얼마나 일찍 알아차리는지, 허리를 얼마나 바짝 세우고 앉아있는지,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말보다 더 확실할 때가 있었다. 엄마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남자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도록 다분히 노력했다. 남자가 잘 먹는 반찬을 확인한 뒤 반찬이 비기도 전에 일어나 접시에 한가득 담아 오길 반복했다. 엄마는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무릎을 꺾꺾 누르며 일어섰다. 늙어서 관절에 무리가 와, 엄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엄마는 집을 나서는 남자의 손에 등뼈 감자탕을 들려 보냈다. 그는 살짝 팔을 흔들기만 해도 거세게 출렁이는 락앤락 통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현관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을 즈음, 엄마가 미진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지금도 제부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제부는 해사하고 무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래서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 하필 제부인가? 나는 그와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겨울의 악독함이나 여름의 집요함, 보일러와 에어컨 앞에서 온종일 고민하는 상황이나 계산할 때마다 잔액 부족이 뜰까 봐 불안함을 안고 사는 일에 대해서, 제부는 모른다. 다르기에 영영 이해할 수 없다. 결혼은 급류처럼 휘몰아치듯 진행됐다. 미진은 꼭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같았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열 시쯤 됐을 무렵 연우가 뽀로로 색칠공부 책을 들고 와선 자랑스레 펼쳐 보였다. 책 표지에 있는 컬러 그림과 거의 흡사하도록 색칠을 해왔다. 테두리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색칠한 것이 제법 그럴싸했다. 연우는 몇 번이나 표지와 색칠 페이지를 번갈아 봤다고 했다.

“원하는 색으로 칠하지 그랬어.”

“그건 뽀로로가 아네요.”

“그런 게 어딴어, 원하는 대로 칠하면 되는 거지.”

미진이 연우가 들고 있던 책을 받아 들었다.

“잘했네. 연우 이제 뭐 해야 하지?”

연우는 작은 토끼처럼 방으로 들어갔다.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책상에 앉은 연우가 보였다.

“제가 뭘 더 할 게 남았어?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뭘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학원 숙제.”

“일곱 살이 학원도 다녀?”

“다녀야지. 이 근방 애들 다 다녀.”

“그거 하나 보고 여기로 이사 오자고 했어요, 이 사람.”

대화를 듣던 제부가 넋지시 끼어들었다. 그들은 연우가 생기자마자 살던 집을 팔고 학구열이 치열한 동네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확실히 집을 둘러싼 대부분의 건물이 학원이었음을 깨달았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대로 자는 건 아깝지 않냐고 제부가 말했고 우린 간소하게 맥주나 마시기로 했다. 미진이 냉장고에서 캔맥주 세 개를 꺼내 왔다. 마른안주와 함께였다. 맥주 캔 세 개가 각각 자리 앞에 올랐다. 제부는 연우를 재우러 갔다. 미진과 단둘이 거실에 남아있으니 제부와 단둘이 있을 때 보다 어색했다. 미진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연우의 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맥주를 쥐고 있었다.

“우리 먼저 딸까?”

“아니, 곧 오는데.”

“그건 그렇네.”

나는 맥없이 맥주를 내려놓았다. 말하지 않으니 온 신경이 연우의 방으로 쏠리는 것 같았다. 연우가 침대에 올라가 사박거리는 이불을 덮는 모습이 떠올랐다. 혹여 자다가 발이라도 빠져나올세라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는 제부의 모습, 젖은 채로 이마에 바짝 붙어 있는 앞머리를 살짝 옆으로 넘겨주며 잘 자라고 속삭이는 제부의 모습도 함께 생각했다.

제부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않자 미진이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다. 나는 식탁에 홀로 남아 주위를 둘러봤다. 거실 벽에 붙은 세계지도와 영어 단어 브로마이드가 새삼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진이 벌써 결혼 초년기를 지났다는 사실과 연우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연우가 미진의 딸이라는 사실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도무지 살갓으로 느껴지진 않는 것들이었다.

제부가 연우를 재우고 오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뭐 때문에 온다고 했었죠? 뭐더라, 책 사인회?”

“그냥 작은 행사 같은 거예요.”

제부는 과장되게 감탄하며 맥주 캔을 들이밀었다. 우리는 건배했다.

“저 그거 봤어요. 맨 처음에 소설 쓰신 거.”

미진의 표정이 티 나게 구겨진 것은 그때였다. 제부는 미진의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단칸방에서 모녀가 사는 내용이었죠, 아마?”

“여보.”

미진은 제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제부는 미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제부는 식탁에 바짝 붙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진짜, 쓸데 없이 예민하고 그런 거요. 불쌍하고.”

“여보.”

“제가 그런 이야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니예요.”

“역시 글 쓰는 사람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시각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 쓴 거라 기억도 잘 안 나요.”

“특히 마지막 결말이 진짜……”

미진이 맥주 캔을 식탁에 내리쳤다. 캉 하는 소리와 함께 캔이 찌그러졌다. 사방으로 맥주가 튀었다. 제부는 하던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미진을 바라봤다.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또 달랐을까. 그게 문제였다. 나는 미진과 견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있었다. 서로가 여실히 느꼈다. 그러나 실 새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끝끝내 끌어안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

빨간 벽돌 빌라에서의 첫날밤이었다. 나와 미진, 엄마. 세 명이 다닥다닥 붙어 누우니 좁은 거실이 꽉 찼다. 옆에서 엄마의 지독한 파마 냄새가 풍겨왔다. 벽면으로는 아직 채 정리하지 못한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끈적하게 땀으로 젖은 엄마와 맞물리거나 높이 쌓인 상자가 흔들렸다. 얼른 잠이라도 자야 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점점 눈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내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려 누운 엄마가 보였다. 베개에 눌러 반쯤 찌그러진 엄마의 얼굴을 한참 봤다. 발밑에 둔 연노란색 선풍기가 회전하며 고개를 끝까지 돌릴 때마다 툭툭거리는 소리를 냈다. 온몸이 뜨거웠는데 발만 시렸다. 미진의 열은 숨소리와 엄마의 코골이, 선풍기의 미묘한 기계음이 한데 뭉그러져 여름을 실감하게 했다. 나는 캄캄한 천장에 불규칙하게 붙어 있는 야광 별 스티커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난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름은 그런 걸 떠올리기 충분한 계절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나의 소설은 여기서 시작했다.

소설은 가족과 함께 자랐다. 빨간 벽돌 빌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로 등단했고 이후로도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잡지사에 실었다. 미진은 등단작인 「벽돌」을 읽고 다시는 내 소설을 읽거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젠 영영 벗어날 수가 없잖아, 우리. 미진은 「벽돌」을 읽고 딱 한 번 무기력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나는 끝없이 가족에 대해 써냈다. 소설 속 우리의 가난을 소명하고 싶었다. 집요하고 치밀하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적어도 소설 속에서, 얼마든지 관찮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다 엉망이야. 전부…….”

옷에 누런 맥주가 한 줄로 튀어 미진은 몸통이 칼에 완전히 베인 사람 같았다. 미진은 찌그러진 캔에서 손을 떼지도 않고 서서히 일어섰다. 제부와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미

진을 바라봤다. 이번엔 제부가 “어보.” 하고 불렀지만 미진은 마치 어디에도 연결될 수 없는 고장 난 블루투스 기기처럼 홀로 고립된 것 같았다. 나는 미진의 손에서 맥주 캔을 빼앗았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언니. 내가 진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거, 그거 당연한 거니까. 나도 알겠는데.”

미진은 입술을 달짝거리다가 끝내 눈물을 터트렸다. 온몸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눈만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히 그랬다.

“사람이 어쩔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야?”

제부는 지금만큼은 완전한 타인이라는 듯이 어정쩡하게 서 있다 미진의 울음에 놀라 우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미진과 제부가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친 물소리가 들려왔다. 안방 화장실에서 미진의 손을 씻기는 것 같았다. 제부와 미진이 다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사방에서 맥주 냄새가 올라왔다. 또다시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선 기분이었다. 그 가난이 나의 탓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벌럭 열고 미진의 어깨를 잡은 채로 소리치고 싶었다. 그게 내 탓은 아니야. 나라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 게 아니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오랫동안 안방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 너머의 미진을 볼 자신이 없었다. 평생 소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이 깊숙한 고랑으로 파여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오늘 밤이 지나면 손님 방에서 눈을 뜬 내가 미진과 웃으며 작별할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깊고 고요한 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commentary

어젠 동생 방에 있던 책장을 들어내고 페인트칠을 다시 했습니다. 곧 이사할 집에 월
 넷씩 책장을 넣고 싶어서요. 장난치다 발등을 두 번 찍을 뻔한 것 빼고는 순조로웠습니
 다. 우리는 딱 책장만큼 넓어진 방을 바라보며 동시에 허전하다고 말했고, 약간 울적해
 졌으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녁엔 가족이 둘러앉아 동생이 만든 잔치국수를 먹었어
 요.

저는 그 순간이 미진과 그의 언니가 지나온 먼 옛날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들에게도
 ‘그걸로 끝’이란 말로 매듭지을 수 있는 간단하고 단단한 삶이 존재했다고요. 그들은 언
 젠가 다시 그 순간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각자의 우묵한 상처를 딛고 지나
 갈 바라면서, 작가의 말은 이걸로 끝!

김희은

우리의 집

그 당시 나는 지어진 지 이십 년이 넘는 아파트에서 아빠와 엄마, 동물 몇 마리와 함께 살았다. 동물은 물고기일 때도 있었고 햄스터일 때도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밖에 나가 일을 했고 동물도 저 나름대로 밥을 챙겨 먹고 잘 곳을 만드느라 바빴는데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안방 침대에 누워 하늘거리는 커튼 너머의 햇살을 보는 일뿐이었다.

나는 오른쪽 눈만 계속 감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마다 오른쪽 눈을 뜨는 동시에 왼쪽 눈을 감았다. 그러면 내가 살던 세상보다 한층 더 밝은 세상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는 동안 오른쪽 눈 시력이 점차 떨어져 나중에는 엄청난 짝눈이 되리라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햇볕에 몸이 따끈해질 때까지 눈을 감았다 떴다. 눈이 빛에 익숙해지지 않아 반짝이는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집에 있는 시간이 밖에 있는 시간보다 길어서였다.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나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 아예 다니지 않았다고보다는, 피아노 학원이건 수학 학원이건 영어 학원이건 죄다 몇 달 못 버티고 관뒀다.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금전

적 어려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그냥 학원 체계와 맞지 않았다. 원체 고집이 심해서 하기 싫은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했다. 엄마는 걱정했고 아빠는 무관심했다. 나는 그 속에서도 잘만 자랐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은 저마다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나만 학교에 남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장에서 흙을 파며 놀았다. 부모는 내가 너무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만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외워다가 부모 앞에서 큰소리로 읊은 이후부터 그랬다. 잘 들고 다니지도 않던 애니콜 휴대 전화는 늘 잠잠했다.

외식하러 가자, 고 아빠가 말했다. 나는 방학을 맞아 오래간만에 본가로 내려와 있었다.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던 여름날이었다. 부모와 나는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 방문이며 베란다 문이며 문이란 문은 죄다 닫고 셋이 앉아 있으려니 기분이 이상했다. 거실에 일도 없이 다 모인 게 얼마 만인지 까마득했다. 부모는 나만큼 낯설지 않은 듯 보였다. 엄마는 커다란 수박 한 통을 수박보다 커다란 쟁반 위에 올려 둔 채 자르고 있었다. 수박을 잡은 왼손에 힘이 부족한지 수박이 흔들리는 게 영 불안해 보였다. 부엌이 아니라 굳이 거실에서 수박을 자르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물어볼 정도로 궁금하지는 않아서 잠자코 있었다. 아빠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서는 가끔 세상에 대한 불만과 혐오를 쏟아 내다가 더운데 진 빼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몇 분째 말이 없었다. 간혹 무어라 말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옹기 입을 닫고 있었다. 옆에서 또 수박이 흔들거렸다. 나는 말없이 수박을 잡았다. 그제야 엄마가 수월하게 수박을 자르기 시작했다. 곧이어 짹, 소리를 내며 수박이 갈라지고 씨 하나 없는 붉은 속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빠가 외식하러 가자고 말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내가 물었다. 아빠의 생각은 때로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나 원인을 도통 말해주지 않을뿐더러 생각하는 체계부터가 나와 다르다고 종종 느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아빠는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외식을 꼭 해야겠다고 우겼다. 기록적인 폭염은 고려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까?”

엄마가 반갑다는 듯 말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엄마가 이 날씨에 찬성부터 하고 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최근에 엄마가 너무 집에만 있었나, 하고 추측할 뿐이었다.

“지금 나가면 딱 점심시간 직전이겠네. 날도 더운데 가까운 데서 먹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서둘렀다. 몇 달 못 봤다고 새삼스러워진 건지, 그사이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바뀐 건지 알 수 없었다. 엄마가 몸을 일으켰다. 이제 와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더위라는 명분은 엄마가 다 차단해 버려서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나도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십 분 뒤에 출발할게.”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아빠는 늘 이런 식이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저녁에도, 퇴근한 아빠는 대뜸 물었다.

“햄스터 키울래?”

물고기밖에 키워본 경험이 없었던 나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작은 어항 속을 헤엄치는 일이 다였던 물고기들은 도통 호감이 가지 않았다.

“갑자기 웬 햄스터?”

일단 대답부터 하고 궁금해져서 물었다. 알고 보니 아빠 친구 중 햄스터가 새끼를 너무 많이 쳐서 곤란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방에 있던 엄마에게 달려갔다. 얼굴도 모르는 어른의 곤란함을 호소하며 나는 햄스터를 키워야만 하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내 말을 차분히 들었다. 나는 점점 안달이 났다. 엄마의 속은 뭐라고 거절해야 하지, 같은 고민으로 복잡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밥도 네가 줘야 하고 청소도 네가 해야 해, 보민아.”

어떻게 떼를 써야 좋을지 머릿속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던 참이었는데 의외로 엄마는 간단히 허락했다. 동물은 싫다며 일단 반대하고 보던 엄마였는데 의아한 일이었다. 괜히 물었다가는 이런저런 사족이 붙다가 안 된다고 할까 봐 나는 얼른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된다고 할 때까지 내가 고집 피울 걸 예상한 데다 햄스터 정도는 작고 케이지 안에서만 지내서 괜찮겠거니 하고 수락했던 듯싶었다. 어쩌면 내가 마음을 붙이고 사랑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나는 미리 사둔 케이지에다 햄스터 암수 한 마리씩을, 톱밥이 집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키우게 되었다.

아빠는 언제나 단호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으며, 나는 저항 없이 따라야만 했다. 그런 아빠 앞에서 멋대로 할 수 있는 엄마가 좀 대단해 보일 지경이었지만 사실 아빠는 나보다 엄마에게 유했다.

외식 준비를 하며 더욱 신난 엄마는 옷을 고르는 데만 십 분이 걸렸다. 그렇지만 아빠는 별말 없이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과 겹치면 밖에서 한참 기다리거나 다른 식당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나뿐인 듯했다. 안방에서 엄마의 콧노래가 들려왔다. 외식 제안을 먼저 하기라도 한 것처럼 신나 보였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갑갑해서 더워 보이는 옷이었는데 엄마는 한사코 그 옷을 입고 갈 모양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옷을 정하고 갈아입을 시간이 없기도 했다. 아빠가 정한 시간에서 이십 분이나 지나 있었다. 엄마가 말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집 근처에 있어 확실히 가깝긴 했지만 지금 가면 딱 점심시간일 터였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더운 기운이 끼쳤다. 예상은 했지만 후회가 올라왔다. 말렸어야 했다. 나는 부모의 얼굴을 슬쩍 보았다. 아빠는 평소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엄마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괜찮아졌다. 그렇지만 벌써 이래서야 나중에는 어떨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휴대 전화를 꺼내 날씨를 확인했다. 36°C였다. 거절하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말이라도 꺼내 봐야 했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쳐 지나갔으나 어떻게든 되리라는 마음으로 아빠를 따랐다. 엄마가 다정하게 팔짱을 껴다. 더워서 팔을 빼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괜히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건 없니?”

“없어.”

“돈은 안 부족해?”

“넘치진 않지.”

“용돈 좀 줘?”

“됐어.”

엄마가 팔짱을 풀었다. 서운해서라기보다는 날이 너무 더워서인 듯싶었다. 나무가 많지 않은 길이라 햇빛을 피하기 어려웠다. 온몸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고, 습도가 높아 몸이 끈적거렸다.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걸어가는 십 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선크림을 여러 겹 바르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옷을 입을 걸 그랬나? 색이 어두워서 빛을 다 흡수하나 봐.

엄마가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색도 색이고 아빠의 옷처럼 기능성 옷이거나 내 옷처럼 팔다리가 흰히 드러나는 옷도 아니어서 더울 만했다.

식당까지 금방이야. 돌아갔다 오면 더 오래 걸려.

앞에서 걷던 아빠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돌아갔다 올 생각은 없었어.

쏘아붙이듯 대꾸한 엄마는 입을 닫고 걸었다. 앞서가는 엄마의 목덜미로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나는 시선을 옮겨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종종 아빠가 책임감만으로 나를 키웠다고 생각했다. 하루 세 번 햄스터에게 잊지 않고 먹이를 주거나 케이지의 톱밥을 새것으로 갈고 햄스터가 죽으면 검은 비닐봉지에 사체를 넣고 질끈 묶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던, 바로 그 책임감으로 말이다. 엄마는 단지 동물을 싫어하고 자신은 꽤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빠는 그런 일들을 혼자 십 년 가까이 했다. 어린 나는 햄스터들을 구경만 했고, 내킬 때 먹이를 간식처럼 조금 집어 주는 게 다였다. 아빠는 몇 세대에 걸쳐 햄스터가 불어나도 그 모든 햄스터와 나를 키웠다.

그러니 동물을 키운 사람은 사실 내가 아니라 아빠였다. 나의 동물들이라기보다는 아

빠의 동물들이었고 나는 단지 동물들과 함께 살았을 뿐이었다. 아빠는 자신보다 출근 시간은 빠르고 퇴근 시간은 느린 엄마를 대신해 우리를 길렀다. 아침에 나를 깨우는 사람도 아빠였다. 아빠는 나를 세수시키고, 옷을 입히고, 엄마가 만들어 놓고 간 밥을 먹인 뒤 머리카락을 한 갈래로 묶어 줬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그 이후가 문제였다. 나는 항상 학교에 가기 싫어했다. 내게 맞지 않는 건 학원 체계만이 아니었다. 아빠는 다리에 매달린 나를 억지로 떼어낸 뒤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다. 때론 나를 집 앞에 있는 학교까지 끌고 가서 담임 선생에게 내 팔을 건네주곤 했다. 담임은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울며 매달리는 내게 아빠는 다그치듯 말했다.

“수업을 듣지 않겠다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

아빠는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거나 호적에서 파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면밀히 말하자면 보내‘버리겠다’거나 파‘버리겠다’고 했다. 그때는 이미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시점이었지만, 어린 내가 그런 행정법을 알 리 만무했다. 알았다 하더라도 별수 없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 중 그 어느 쪽도 닮지 않아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것 아니냐는 돌의 농담을 들으며 자랐다.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해 내지 못하던 때부터.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시절 내게 아빠는 모르는 일도, 못 하는 일도 없는 존재였으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의 일 층은 매우 어두웠다. 밖이 너무 환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몰랐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컸다. 이 건물의 일 층은 언제나 어두웠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조차 흐릿했다. 이 건물의 하나뿐인 엘리베이터는 도통 일 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십일 층 짜리 건물을 층마다 다 서고 있었다.

“안 되겠다. 계단으로 가자.”

아빠가 엘리베이터 옆의 비상문을 열었다.

“더운데.”

엄마가 투덜거리듯 말했지만 아빠는 문을 잡고 엄마와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결국 엄마가 먼저 계단을 올랐고, 뒤이어 내가 들어섰다. 뒤로 철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

다. 비상계단은 일 층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반 층 위의 비상구 유도등만이 초록빛을 밝게 내뿜고 있을 뿐, 켜진 조명이라고는 없었다. 나와 부모는 유도등 불빛에 의지해 이 층에 도착했다. 엄마가 먼저 문을 열고 서둘러 나갔다. 단힐 뻔한 문을 잡고 나와 아빠도 문을 통과했다. 비상문 앞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인데도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 보였다. 부모와 나는 숨을 몰아쉬며 음식점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의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땀이 식으며 추위가 느껴질 정도였다.

“안쪽에 앉자.”

엄마가 말했다. 통창인 안쪽이 밝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좋아 보이긴 했다. 내 옆자리에 엄마가 앉고, 엄마의 맞은편에 아빠가 앉았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직원이 메뉴판과 함께 접시와 컵을 가져다줬다. 아빠야 뭐든 잘 먹는 편이라 엄마와 내가 고민 끝에 베스트 표시가 붙은 스테이크와 파스타, 리소토를 하나씩 시켰다. 직원이 주문을 받아 부엌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아빠가 벌떡 일어나 엄마를 향해 물었다.

“뭐 마시고 싶은 건?”

입구의 음료 디스펜서에 갈 모양이었다.

“뭐 있나 내가 가서 볼게요.”

엄마가 대답하며 일어나자 아빠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콜라.”

“나는 보고 결정할래.”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사실 처음부터 사이다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빠와 단둘이 있기 어색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엄마를 쫓아갔다. 엄마가 음료 디스펜서로 걸어가며 말했다.

“입구 쪽이 더 시원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입구 근처에 앉았나?”

정말 그랬다. 입구 쪽으로 갈수록 시원해졌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시원해지겠지.”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담은 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자리로 돌아가며 엄마가 말했다. 엄마와 내가 음료를 가져오자 더는 할 일도, 할 말도 없었다. 왜 아빠는 갑작스레 외식을

하자고 했을까. 최근 몇 년간 가족끼리 외식한 기억이 없었다. 아빠가 이제 와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을 사람도 아니라서 더 이상했다. 내가 아는 아빠는 대화로 뭘 해결해보려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학교도, 학원도 가기 싫다며 자주 울곤 했던 초등학생 시절이었다. 나는 거의 집에만 있었고, 대체로 베란다에만 있었다. 그즈음 햄스터 구경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엄마가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보민아, 고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한 번 꾸준히 다녀보자는 이야기였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교우 관계나 집에만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컸을 터였다. 나는 햄스터 케이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암수 햄스터 두 마리가 들어있는 케이지였다. 수컷 햄스터는 새 톱밥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암컷 햄스터는 쳇바퀴를 굴리고 있었다.

“학원 한 군데만이라도 다녀보재도. 싫으면 그만 다니면 되잖아.”

엄마가 설득해 왔지만 나는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학원을 한 번 다니기 시작하면 웬만큼 때를 쓰지 않고서야 엄마가 그만두게 해줄 리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단호히 거절하자 엄마가 짜증을 냈다.

“네가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면 끊어주면 되잖아.”

“안 믿어.”

“우리는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넌 열심히 안 해.”

나는 기어이 엄마의 화를 돋우고 말았다. 엄마가 소리를 질러댔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집이 좋았다. 부모의 아래서 영영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빠가 성큼성큼 베란다로 걸어왔다. 아빠는 엄마와 나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엄마도 나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가, 하는 사이였다.

철장으로 된 햄스터 케이지가 뒤집어졌다. 아빠가 햄스터 케이지를 발로 걷어찬 것이었다. 톱밥이 베란다에 쏟아졌다. 엄마가 황망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얼굴도 비슷한 상태일 터였다.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케이지 안에 들어있던 햄스터

들을 살필 틈도 없이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말 들어라.

나는 아빠 말을 들었다. 비록 몇 개월이나 엄마를 졸라 그만두긴 했지만 일 년 가까이 영어 학원에 다녔다. 성적도 조금이나마 올랐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다. 학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가끔 놀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아빠는 나를 영어 학원에 보낸 뒤 찌그러진 햄스터 케이지를 힘으로 당겨서 찼다. 철장을 당겨서 펴는 손으로,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나도 끌고 나갔다. 햄스터들은 온 세상이 뒤집히는 일을 겪고도 멀쩡해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빠의 단순하고도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아빠에게는 엄마만 중요해 보였다. 엄마가 동물을 싫어해서 동물을 다 돌봤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를 학원에 보냈다. 아빠는 내 성적이 아무 관심이 없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 때문에 아빠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터였다.

이상하리만치 답다는 생각이 든 건, 음식을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이었다.

“에어컨이 이상한데.”

엄마가 말했다.

“전원이 꺼져 있네.”

아빠가 말하며 직원을 불렀다. 직원이 죄송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쪽 에어컨이 고장 나서요.”

고개를 돌려 보니 입구 쪽 에어컨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왜 창가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에는 그 근처에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창가에 앉은 사람은 나와 부모, 셋뿐이었다.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말했다. 주문을 한 마당에 식당을 옮길 수도 없는 마당이니, 입구의 에어컨이 레스토랑 내부 온도를 낮춰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통창으로 환히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가능할지는 의문이었다. 직원이 입구와 창가의 중앙쯤에 선풍기 하나를 놓아줬다. 아빠는 냅킨을 더 가져다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다. 잠시 뒤에 직원이 냅킨과 함께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줬다. 아빠가 스테이크를 다 썰더니, 냅킨으로 땀을 닦기 시작했다. 나도 이마에서 땀이 흘렀지만 냅킨으로 닦아가며 음식을 먹기에는 우스워 보일 것 같아 참고 식사를 시작했다. 스테이크며 파스타며 리소토며 맛은 있었지만 너무 뜨거웠다. 안 그래도 더운 와중에 뜨거운 음식을 식혀 먹고 있자니 슬슬 짜증이 올라왔다. 이 무더운 날에 대체 왜 이려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외식은 왜 하자고 했던 거야?”

애써 짜증을 감추며 아빠에게 물었는데, 엄마 쪽에서 답이 흘러나왔다.

“그냥 가족끼리 같이 시간 보내는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무언가 알 것만 같았다.

“그래서 말인데 보민아, 집에 자주 와. 방학이 두 달이나 되면서 어쩔 일주일도 집에 안 붙어 있으려 해.”

엄마가 접시에 토마토 파스타를 덜어 옮겼다. 붉은 파스타에서 가늘고 긴 연기가 올라왔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며 어찌 된 일인지 생각했다. 내가 없는 사이 엄마가 외식 이야기를 꺼내 보라고 아빠에게 말한 게 틀림없었다.

“둘만 있으니 심심해? 동물이라도 기르지 그래.”

엄마가 원하는 대답을 할 생각이 없었다. 역시나 그런 게 아니라며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옛날에는 애착이 심해서 문제더니, 이제는 왜 학비도 용돈도 자꾸 거절하려고 하니.”

정말 왜인지 몰라서 그러느냐고 묻고 싶었다. 나는 아빠를 흘깃 확인했다. 아빠는 스테이크를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항상 그래왔듯 이런 문제에 쪽 빠져있었다. 그럼 그렇지, 아빠가 먼저 외식을 생각해 낼 리 없었다. 엄마와 크게 싸우지 않는 이상에야 아빠가 참견해 올 리 없을 터였다.

“집에 좀 자주 오라는 뜻이야, 보민아.”

엄마가 또 한 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곳은 엄마와 아빠의 집이라고, 내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내 옆모습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너는 꼭 우리랑 연이라도 끊고 싶은 것처럼 구네.”

“무슨 소리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어쩐지 엄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연을 끊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끔 부모의 집에 놀러 오는 정도의 거리감이 좋다고 느꼈다. 부모에게 언제까지고 불안정하게 기댈 수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그게 연을 끊으려는 모습처럼 보였다면 할 말이 없었다.

“보민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땀을 뻘뻘 흘리던 엄마가 이제는 울기 시작했다. 갱년기 이후로 눈물이 유독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니 사실인 모양이었다. 아빠가 냅킨을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다.

“왜. 돈 걱정 안 하고 좋지.”

그랬다. 아빠는 늘 이런 식이었다. 나는 이제 아빠가 못 하는 일이 뭔지 잘 알았다. 엄마에게 잘 대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 문을 잡아줘야 한다는 책임감, 가장의 책임감은 있었지만 평생 힘과 권력으로 누굴 찍어 누르기만 했으니 엄마가 왜 우는지 알 리가 없었다. 예전에는 아빠가 엄마를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빠는 공감 가지 않는 감정을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엄마가 울어도 아빠에게 해결해야 하는 쪽은 엄마를 울게 만든 나였다.

“넌 오래간만에 같이 외식하는 날까지 이러냐. 좀 좋게 좋게 넘어가면 어디 덧나?”

아빠가 한마디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심하다는 듯 나를 내려다보는 아빠의 태도에 신물이 났다. 이쪽을 흘깃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만 울어, 엄마.”

나는 엄마를 말려 보려다 실패하고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는 척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무슨 말을 한들 엄마도, 아빠도 이해시킬 수 없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꼭 그래 왔고 부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사

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음식들을 씹어 삼켰다.

햄스터는 몇 년에 걸쳐 계속 붙어났으나 어느 순간부터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중학생이었던 즈음에는 한 마리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 햄스터는 사 년을 살고 죽었다. 학교에 다녀온 나는 햄스터가 밥그릇에 코를 파묻고 있는 모습을 봤다. 밥을 먹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이 숨을 쉬느라 오르내리지도, 수영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먼저 햄스터의 죽음을 목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부모가 퇴근해 집에 오려면 아직 삼십 분가량이 남아있었다. 만지기가 두려워 케이지를 살짝 흔들어 보았다. 딱딱하게 굳은 몸이 뒤집어져 밥그릇에서 굴러떨어졌다. 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아빠가 올 때까지 케이지 앞에 앉아만 있었다.

아빠는 한 시간쯤 후에 퇴근했다. 나는 곧장 아빠에게 마지막 햄스터가 죽었노라고 말했다. 밥을 먹다 죽은 걸까. 어디가 아팠던 걸까. 나는 내가 본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다.

“안 그래도 케이지 남으면 친구 준다고 했는데.”

아빠는 중얼거리며 케이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죽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아빠가 집게손가락으로 햄스터를 집어 드는 걸 떨어져서 지켜봤다. 정말이지 이상한 기분이었다. 동물들이 전부 나를 떠났다. 아니, 아빠를 떠났다. 그런데 아빠는 단 한 번도 안타깝다거나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담담히 모든 사체를 다 치워 냈다. 이제 집에 남은 동물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아빠가 묵묵하게 하는 일들을 가만 지켜보았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에어컨부터 켜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빠는 그동안 샤워를 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니 더위를 버티는 게 나은 선택 같았다. 저녁이 되니 햇빛도 사라지고 기온도 조금 내려가 버틸 만했다. 아빠 다음으로 찢고 나온 엄마가 거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는 너무 이상해, 하고 엄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빠는 가만 듣고만 있는 듯했다.

“우리 때만큼 가난하게 자라지도, 자라면서 큰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자기 혼자 힘들다는 듯이 구는지 모르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짐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웅얼대는 소리도 듣기 싫어 노래를 틀었다. 엄마의 말소리가 나 들으라는 듯 점차 커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럴 때마다 음량을 키웠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조차 헛갈렸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엄마 말대로 내가 유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인정할 법한 사고나 사건이 있어야만 힘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이어폰을 빼 보니 더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노래를 끄며 확인해 보니 어느덧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거실은 캄캄하고 조용했다. 밖에서 미적지근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에어컨 바람이 다 빠져나간 집 안은 더웠다. 자연스레 발걸음이 활짝 열린 베란다로 향했다. 땀이 마르며 몸이 빠르게 식었다. 간만에 이 집에 있으니 첻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햄스터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죽고 나 혼자 여기서 길러진 지 몇 년이 나 되었는데도 그랬다. 햄스터들이 나만 두고 떠난 것 같았다. 햄스터 케이지가 있었던 자리는 불어난 살림 차지가 되었다. 햄스터를 기르던 때보다 베란다가 더 복잡했다.

또 한 번 밤바람이 불었는데 그 많은 물건 중 무엇 하나 흔들리며 소리 나는 물건이 없었다. 소음의 발생지는 엄마가, 어찌면 아빠가 다 치워 버린 모양이었다. 언젠가 하루 대부분을 이 집에서 보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선 한참이나 사라져 버린, 그리고 사라져 버릴 소음들에 대해 생각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니 정오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어제 늦게 잠드는 바람에 늦게 일어난 모양이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밖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 놓고 내 방문도 열어 둔 모양이었

다. 거실로 나가 보니 엄마와 아빠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어느새 먹기 좋게 잘라 둔 수박을 하나씩 쥐고 있었다.

“먹을래?”

언제 울고 다녔냐는 듯 엄마가 수박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수박을 건네받았다. 일어나자마자 뭘 먹고 싶지도 않았고 어제 먹은 음식이 다 없힌 느낌이었지만 엄마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싶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

“나 오늘 증으로 돌아갈까 봐.”

엄마가 멈칫했다. 엄마의 손을 타고 수박물이 흘렀다. 엄마는 침착하게 반대쪽 손으로 물을 닦아 내며 말했다.

“돌아가기는. 잠깐 갔다 또 오는 거지, 뭐.”

아빠가 엄마와 나를 번갈아 흘깃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무튼.”

“언제 갈 건데?”

“대신 저녁에 갈게.”

내 대답 이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는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엄마가 내게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래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우리의 타협점인 듯싶었다. 나는 입을 닫는 대신, 부모는 나를 보내 주어야 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수박을 한 번 더 베어 먹으며 텔레비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도 텔레비전만 잠자코 바라보았다. 마치 이 집의 소음을 다 가져간 듯, 텔레비전이 시끄럽게 말소리와 음악과 웃음을 뱉어내고 있었다.

commentary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픈 사람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이 문장을 생각하고 말하고 씁니다.

앞으로는 더 멀리 가 보고 싶어요.

서인회

타들어 가다

지독하게도 더운 여름날이었다. 남승훈은 썩한 표정으로 마우스 휠을 돌렸다. 드르륵, 드르륵. 멈추지 않았다. 매미가 귀 아플 정도로 크게 울었다. 창문을 열어 놔도 시원해지질 않았지만, 닫는 건 더 최악이었다. 최악보다는 차악을 고르는 게 더 나았다. 육 평 북향 원룸에서 쾌적한 삶을 바라는 건 너무나 큰 사치였다. 그나마 햇빛이 들지 않는 게 불행 중 다행일까. 그런다고 집이 시원해지진 않았다. 전기세가 아까워 선풍기도 틀어 놓지 않아 등줄기로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았기에, 옷통만 벗고 있었다. 잠이라도 실컷 자면 좋으련만, 통풍이 전혀 되질 않았기에 금세 방의 온도가 올라 땀에 절어서 일어나야 했다.

아침도 거르고 그저 멍한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하염없이 노려보았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 수지맞는 기업 공고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일과였다. 자연스럽게 책상 위의 담뱃갑에 손이 갔다. 이토록 더운 방에서도 담배는 멈출 수가 없었다. 타닥거리며 담배가 타들어 갔다. 군대에서 배운

나쁜 버릇이었다. 담뱃갑 안에는 이제 담배 한 개비만이 남아 있었다. 뚫대였다. 다시 편의점까지 가서 담배를 사야만 했다. 며칠째 감지도 않은 머리를 긁으며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한 모금을 쭉 빨고 연기를 뿜었다. 이때만큼은 머리가 새하얗게 물들어 근심 걱정이 놓였다.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착각이려나, 딱히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담배를 절반 정도 태웠을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의자에서 일어나 좁디좁은 원룸을 바라봤다.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까먹었다. 이런 우중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담배가 조금씩 타들어 가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 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는, 만삭의 임신부가 서 있었다.

승훈은 으레 그렇듯 집안에서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실제로 그는 매우 총명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본 첫 시험에선 만점을 받았고, 초등학교 내내 그 점수를 유지했다. 공부가 재미있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가리지 않고 전부 습득하려 했다. 단 순히 똑똑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또래보다 어른스럽고 눈치를 보며 잘 처세했다. 모든 어른이 승훈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리 유복하지 않던 집안과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된 친가에서도 그는 유명 인사였다. 남 씨 집안에서 흔치 않게 뚝뚝하다며.

“승훈아, 넌 뭘 하고 싶어? 아빠랑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외국계면 더 좋고요. 일단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부모가 좋아하리란 것을 알고 한 말이었다. 무엇이든 좋았다. 대기업이든 창업이든 돈이 벌린다면 부모는 좋아하리라. 그 대답에 승훈의 아빠는 좋아라 술을 마셨고 엄마는 싱긋 웃기까지 했다. 자식의 꿈이 칙칙하더라도 인생은 밝을 것이라 믿는 순진한 부모였다.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상류 계층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중학교에 들어간 승훈은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미 중등 교육의 대부분을 선행 학습한 아이들에게 밀린 것이었다. 승훈이 한 것은 예습에 불과했다. 알고 있는 것과 통달한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승훈은 변화가의 비싼 학원을 원했다. 자신을 이긴 아이들이 그곳에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는 흔쾌히 승낙했다. 비싸긴 해도 무제한 간식과 주말 점심과 저녁, 시험 기간에는 야식도 제공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마라톤 공부도 진행되었다. 승훈은 다소 힘들어

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징그러운 정도로 성숙했기에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이해했다. 언제나 돈, 돈, 거리며 올상인 아빠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엄마까지. 이 비싼 학원에서 뒤떨어질 수 없었다. 학원 모의고사에서 일 등을 탈환하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았다. 그즈음부터 승훈의 별명은 무지개였다. 일곱 빛깔처럼 다양한 재능을 가졌다는 의미였다. 친구에서도 외가에서도 승훈을 그렇게 불렀다. 심지어는 학원에서조차 무지개라고 불리었다. 낮간지럽기도 했지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더 박차를 가했다. 일 학년, 이 학년 동안 전교권에서 벗어나질 않았으며 대부분 일 등에서 이 등이었다. 이 등조차도 딱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쟁자는 알아주는 천재로 유명했다. 자신이 그런 천재와 경쟁권에 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주변에서도 앞치락뒤치락하는 둘을 선의의 경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삼 학년이 되었을 때 승훈은 명실상부한 일 등이 되었다.

“A는 다른 중학교로 전학 갔다. 다들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해!”

“뭐야? 왜 없어진 건데? 뭔 일 있었어?”

“개네 아빠가 미친놈이었잖아. 조금이라도 성적 안 좋으면 개 패듯이 뺏다나 뭐라나.”

승훈과 함께하던 경쟁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A의 부친은 상당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으로 성적이 일정하지 못한 자식을 오랫동안 폭행해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중 승훈은 가끔 마주치던 아저씨가 떠올랐다. 핏발이 선 눈으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소름 끼치는 아저씨. 최근에 없어졌기에 나름 기분이 좋았는데. 설마?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문제집에 집중했다. 승훈은 이제 중학교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 목표로 하는 곳은 특목고, 아니면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였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승훈은 비싼 문제집을 풀고, 비싼 인터넷 강의를 듣고, 비싼 학원을 계속해서 다녔다. 부모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승훈을 뒷바라지했다. 아버지의 몸무게가 십 킬로그램이 감소했고, 어머니가 점차 아위어 간다는 걸 그때 승훈은 알지 못했다. 고등학교조차 일차 관문에 불과했다. 이곳으로 가면 더 많은 괴물을 상대해야 했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됐다. 중학교를 뛰어넘고 고등학교 이 학년까지의 과정을 이미 통달한 그였다. 그렇게 겨울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자신감이 있었다. 자소서, 면접, 성적,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지 않은 게 없었다. 그리고 그는 원하던 고등학교 입시에 처참히 실패하게 되었다. 추가 합격조차 바랄 수 없는 철저한 불합격 통보였다.

“승훈아, 아빠는 괜찮다. 여기도 좋지만, 주변 인문계도 나쁘지 않아.”

“아빠.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저보고 지금 동네 고등학교나 다니라는 거예요?”

“어쩌겠니? 하향 지원한 고등학교도 전부 떨어졌는데. 방법 없어.”

불합격 고지서를 들고 있는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노력을 알면서도, 고작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라는 소리를 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몇 차례 고성이가 오갔다. 그리고 그날 승훈은 아빠에게 처음 뺨을 맞았다. 머리가 핑 돌았다. 억울한 마음에 아빠를 노려보았다. 다물어지지 않은 입술 사이로 누런 이가 번들거렸다. 아빠 또한 참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책상에 자신이 풀던 문제집이 보였다. 구독형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 차등 제도가 있는 제품이었다. 승훈이 고른 건 당연히 최상위 상품으로 달에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것은 과목당으로 책정된 금액이었다. 승훈은 이 회사에서 총 세 가지 과목의 문제집을 받아 풀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맞은 뺨을 부여잡고 다시금 고개를 돌렸다. 책상 조명이 그의 얼굴을 더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아빠는 더 이상 그 온화하던 아빠가 아니었다.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순식간에 터질 시한폭탄과 같았다.

“우리 무지개. 가서도 포기하지 말려무나. 아빠랑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알지?”

“네, 아빠. 진짜 잘할게요. 진짜로, 틀림없어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를 부여잡고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가 방을 나서고 이번에는 엄마였다. 침대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문제 풀어. 학원 가기 전에 다 풀고 채점해야 하니까. 틀리지 마라.”

그렇게 아빠와 엄마의 통제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학원과 자식에게 돌렸다. 그리하여 직접 가르치기로 했지만, 교육의 질은 형편없었기에, 금방 문제가 드러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승훈의 성적은 나날이 떨어졌다. 컨디션 관리가 엉망이었다. 엉터리 교육 방침이 문제였다. 그러나 승훈의 부모는 그리 믿지 않았다. 아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그것이 코끼리인줄 모르듯이. 아둔하기 짝이 없었다.

단순히 자식이 명칭할 뿐이라고 믿었다. 중상위권에서조차 허덕이는 승훈은 더 이상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급 문제집과 인터넷 강의는 끊기고 학원도 더 멀고 더 짠 곳으로 강제로 이동 당했다. 명절이나 제사에도 그는 참석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쉴 수도 없었다. 감시 카메라로 언제든지 확인하고 명령할 수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손이 느려지면 경고가 들려왔다. 비 오는 날 기압처럼 한없이 낮고 기분 나쁜 음성으로 울조렸다. 빨리 풀어. 승훈은 그렇게 깎여 나갔다. 거대하던 암석이 바람과 파도에 불똥없고 작달막한 돌멩이가 되듯.

“수시는 보지 마라. 그렇게 노력했는데. 무조건 정시로 가야지. 안 그러니?”

“수시 성적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니 또 뺨을 맞았다. 이번에는 양쪽으로 두 대씩이었다. 말대답했다는 이유와 헛소리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로지 정시로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체면을 차리지 않겠냐며 으박질렀다.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 좀 해라. 고작 동네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가면 어찌자고! 적어도 정시로 서울대는 뚫어야 체면을 차리지! 어!”

아빠는 더욱 미쳐갔다. 아니면 가족 전체가. 갑자기 A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공부하면 서도 훌쩍이기만 하던 그 아이. 이제 남 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승훈은 정시를 준비했고 철저히 수능에 맞춘 생활을 지속했다. 시험까지 육백 일이 남은 시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머리를 깨우는 영어 라디오를 들으며 두뇌 활성화 좋다는 차를 마셨다. 학교에서 수업은 듣지 않고 수능 공부만 했다. 선생들조차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승훈의 부모가 함께 와서 교무실과 교장실에서 한바탕 난리 친 것은 유명한 일화였다. 승훈은 있는 듯 없는 듯,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도 승훈을 좋아하지 않았다. 혼자 유별나기도 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승훈에게 사회성은 남아 있지 않았다. 할 말, 못할 말을 구별하지 못했고 언제나 가시 돋친 언행과 무시하는 발언으로 아이들과 척을 졌다.

“야 무지개. 오늘도 공부하냐?”

“가라. 재미없다.”

“네가 재미있는 게 있냐? 무지 개같은 새끼야?”

그의 별명조차도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친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였다. 승훈은 더욱 독해져야 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할 일을 했다. 일 년은 삼백육십오 일이라고 했는데, 어찌 이리도 느리게 흐를까. 잠을 자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일까. 하루가 이십사 시간이 아닌 것 같았다. 아무리 졸려도 눈이 감기다 말았다. 카페인과 타우린이 듬뿍 들어간 특제 음료를 매일 마셔야 했다. 수면 시간은 짧고 먹는 음식은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평균을 넘지 못하는 키에 고열량 간식으로 인해 체중은 눈에 띄게 불었다. 더욱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었기에 승훈의 정신은 말이 아니었다. 자신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 국어인지 수학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 졸업하면 끝날 것이었다. 딱 오 년만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다.

“역대 최악의 물수능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원에서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승훈은 흐느꼈다. 아니 웃고 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던 대학에 미끄러져 버렸다. 그리하여 재수 학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지방의 한국립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벌었다. 갑자기 나온 영장에 최전방 부대로 입영했다. 그때 담배를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태우고 있었다. 전역을 하고 나왔어도 승훈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빠와 엄마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애인도 친구도 없었다. 학기 내내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다. 어영부영 사 점대 이상의 학점을 받았으나 그가 보낸 사 년의 대학 생활은 피우다 버린 담배꽂초와 다르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대로 지나갈 뿐인 시간이었다. 승훈은 이후에도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방에 남아 더욱 짝 원룸을 구해 취직 활동을 이어갔다. 이미 대학에 들어가기로 했을 때부터 부모와는 연이 끊겼다. 일방적인 결별이었다. 그러기를 칠 년, 그의 나이 이십칠 세였다. 그리고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담배를 피우고, 원서를 쓰고, 멍하니, 하루를 보냈다.

승훈이 고개를 숙였다. 남자치고는 작은 키였는데, 앞의 임신부는 그보다 키가 작았다. 승훈이 내려다볼 정도였다. 만삭인 배에 푸석한 피부. 승훈은 그런 임신부를 보면서 담배

를 끄지 않았다. 그래야 한다는 이유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승훈이 물었다.

“왜요.”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요. 조금 꺼주실 수 없나 하고.”

“이제 한 개비 남았어요. 오늘은 안 피울게요. 수고하세요.”

“저, 저기요.”

무언가 말을 하려던 듯 승훈을 불러 세웠지만, 임산부는 계속 기침했다. 쿨룩, 쿨룩, 쿨룩.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듯 벽에 손을 짚었다. 승훈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에 환멸이 났다. 매번 담배를 물면 이 여자가 찾아왔다. 지금보다 배가 덜 나왔을 때부터. 그냥 참고 지내면 될 것을 귀찮은 것도 모르고 계속 찾아와서 닦달이었다. 이렇게 기침이나 할 거면 입원해서 몸이나 요양할 것이지 계속 찾아와 신경을 긁었다. 승훈은 담배를 주욱 빨며 연기를 모았다.

“후.”

“이게 무슨, 쿨룩”

“히히히.”

그러고는 임산부의 얼굴에다 그대로 연기를 뿜었다. 아니 뱉었다. 침과 욕설을 뱉듯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한 행동이었다. 갑자기 별명이 떠올랐다. 무지개. 무지 개같은 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승훈은 여전히 억울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같은 급인 줄 알던 놈들에게 한소리 좀 했다고 그런 별명이 붙었다. 승훈은 엘리트였고 다른 이들은 깔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차피 수시 성적은 의미가 없었지만, 수능 성적도 자신에게 덤빌 수준도 아니었으리라. 그렇게 믿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담배를 그렇게 피웠는데도 니코틴이 들어오면 머리가 어지럽고 몽롱했다.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닌가? 승훈은 그렇게 생각했다.

“담배 연기 구수하죠? 왜요. 싫어요?”

“아니, 저 임신했다니까요.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임신한 게 무슨 대수야? 누가 그 나이에 임신하라고 했어? 왜 나보고 난리야?”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고졸이잖아. 열 달 전에 사고 쳐서 만들어 놓고는. 뭐 어찌라고! 내 잘못이야?!”

임산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에도 상관없었다. 승훈은 알 바 아니었다.

“인생 그렇게 살아서 어찌자고. 전망이 없잖아, 전망이. 그냥 되는대로 살아가는 게 사는 거야?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냥 꾸역꾸역 시간 보내는 게, 그게 사는 거야?”

말은 가시 돋친 것이어서 그것을 뱉어 내는 승훈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성대에서 올라와 목 전체를 굽어 대는 날카롭고 뽀족한 말에는 독까지 발려 있었다. 목이 따끔거렸다. 칼갈한 느낌에 시원한 냉수가 떠올랐다. 얼음을 등등 띄워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다 후련 하련만. 지금 여기서 임산부랑 무슨 이상한 말싸움 중인지. 다 이 여자 때문이었다. 그는 바쁜 사람이었다. 지금도 원서를 넣고 공무원 문제집을 풀어야 했다. 승훈은 모든 걸 뺏기고 있었다. 그리 믿었다.

“담배는 일 층 골목에서 피워 주세요. 주인아주머니도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이 방 월세 내가 냈는데? 내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워?”

“어떻게 월세살이가 당신 집이에요. 빌려 쓰는 거지. 서로 배려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찌라는 거냐고. 그냥 당신 말 무시하고 피우고 싶을 때 피우면 되는 건데.”

“만삭인데도 제가 입덧이 좀 있어요. 배려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그놈의 배려! 담배 연기가 뭐 어쨌다고 자꾸 배려를 바라는지. 승훈은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다 타 버린 담배꽂초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 불뚱이 임산부에게 튀었는지 다리를 비볐다.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저 지금 당장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더욱 열이 올라왔다. 담배 연기가 어찌고 배려가 어찌고. 전부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승훈이 임산부의 어깨를 팍 밀치며 소리질렀다.

“왜 너는 나 배려 안 하는데! 내가 피우고 싶다는데 네가 뭐데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아니. 그게, 담배는 건강에도 안 좋고.”

“무슨 상관이나고! 당신이나 나나 밑바닥 시궁창 인생인데. 네 자식새끼가 태어나면 너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 같아? 아니지. 욕만 하겠지. 왜 낳았냐고. 그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폐암으로 일찍 똬지면 안 좋냐? 욕도 안 먹고? 어!”

“그만 하세요……!”

“아비란 작자는 임신 사실 알자마자 도망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혼자 살라고 여기에 던져두고 갔다며? 그냥 버림받은 거잖아. 왜 현실을 못 봐? 그 애가 태어나면 뭐 좋은 취급 받을까? 사랑이고 뭐고 당신에게 줄 것 같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퍽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아니 전부 모르겠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날씨 때문이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머리카락이 젖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언제 이발을 했더라?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외출한 적은? 누구를 만난 적은? 담배가 뭐라고 자꾸만 올라오는 이 여자를 제외하고는 일 년 사이에 누굴 만났더라? 승훈은 알 수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본인이 뭐 하는 인간인지. 문 앞에서 왜 실랑이를 벌였고, 왜 임산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지. 그리고 왜 울고 있는지. 아파서, 슬퍼서, 우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승훈은 아는 게 없었다. 전부 모르는 일이었다.

“왜 훌쩍거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승훈은 거칠게 문을 닫았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만졌다. 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다. 듣기 싫었다.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크게 틀었다. 심신 안정에 좋다는 클래식이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었다.

‘환의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음악에는 아무런 조에도 없었지만, 그는 평생 들으면 편안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남들도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줄 알고 들었다. 위약 효과라고 했던가. 그가 듣기로 문제가 없었으니 되었다. 웅장하고 거대한 천재가 발상해 낸 음악을 들으면, 자신도 천재가 되는 것만 같았다. 승훈은 그렇게 문제집을 풀었다. 느껴지던 더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땀이 흘러 지독한 냄새가 나면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여름이라 보일러 걱정은 없었다. 여름이라 따뜻미지근한 물이었지만, 승훈의 몸보다는 차가웠으니 됐다. 아침 각성을 위해 몇 년을 아침 냉수로 샤워했던지. 이미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상관없는 신세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계속해서 문제집을 풀었다. 올해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더라. 이런 걱정은 사치였다.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문제를 풀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

부는 멈추지 않았다. 심야에다 노인이 많은 동네였다. 편의점은 비싸다면서 자주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사러 몇 올 뿐이었다. 그마저도 할머니들의 등쌀에 주말뿐이었다. 평일에는 거의 오지 않았으니.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들은 승훈을 챙겨 주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청년이라고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승훈은 이런 호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차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반찬을 가져오는 할머니들에게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그들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은 받아들였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제나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훌쩍. 그러나 담배를 바라보기만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소리에 그럴 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었다.

승훈이 집을 내려놓았다. 이삿집은 이제 마지막이었다. 청약을 넣었다가 운 좋게 당첨되어 지방의 신도시에 아파트를 샀다. 지금까지 살던 원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고급스러웠다. 타일도, 조명도, 벽지도, 가구들도. 전부 유명한 상표로 사들였다. 시공사도 며칠을 수소문한 곳이었다. 청약이긴 했어도 승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아파트였다. 멀리서 누가 외쳤다.

“여보! 여기 찬장이 너무 높아. 이거 좀 넣어 줘.”

“알았어. 금방 갈게.”

승훈은 그해 공무원 시험에 곧바로 합격했고, 꾸준히 연차를 쌓았다. 그러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속도위반으로 결혼했다. 안정적으로 돈이 모였고 그의 마음에 쌓였던 병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다. 서른이 되던 해에 승훈은 부모에게 연락했다. 울면서 사과하는 아빠와 엄마에게 괜찮다고, 자신은 잘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얼굴 보기는 무서우니, 언제 명절에 찾아뵙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래도 좋다며 우는 모습이 승훈에게겐 색다른 느낌이었다. 승훈의 아내는 남편보다 여섯 살이 어렸다. 우연히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다 덜컥 생겨 버린 아이 때문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의 나의 삼십이 세였다.

“여기 너무 좋다. 나 서른 되면 서울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돈 없어 주셨으니까. 빚 다 갚고. 여기 팔고 서울에 더 비싼 집에서 살자. 우리 튼튼이, 잘 커야 해요.”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이었다.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처

음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만큼 놀란 적이 없었다. 거의 얻어맞아 가며 결혼 허락을 받았고 지금 신혼집을 마련했다. 결혼식은 못 했다. 물론 신혼여행도. 임신 사실에 경황이 없었다. 그렇게 경황 없던 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추워지면 따뜻한 나라로 가기로 했다. 바쁜 상반기였다.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고 어느 날, 아내가 승혼을 불렀다.

“여보, 아랫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가서 말 좀 해줘.”

“알겠어. 아랫집에 누가 살더라?”

“여자 혼자였는데. 담배를 하루 종일 피우나 봐.”

아내는 거의 만삭이었음에도 입덧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초기에는 하루 종일 열음과 새콤한 사탕을 물고 살았다. 장류 음식은 쳐다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치즈도 못 먹는 모습이 아주 처량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생하며 버텼는데 담배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의욕이 타올랐다. 당장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길게 늘어진 전자음이 들렸다. 일 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다. 매캐한 담배 냄새가 화장실에서 났는데, 없는 척을 하는 것인가 싶었다.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안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윗집에서 왔습니다!”

터벅터벅 소리가 들렸다. 철컹하며 두꺼운 철문이 열렸다. 그 시간이 이토록 느릴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겠지. 갑자기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지금은 가을인데. 일교차가 심해지는 나날이었다. 산등성이에 홍조가 드리우고, 하늘은 구름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드높게 치솟았다. 드디어 이번 추석에 부모를 만날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 누구세요.”

한 여자가 나왔다. 입에는 여전히 담배를 물고 있었다. 빨갭게 타오르는 담배를 보니, 또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땀이 흘렀다. 정신이 몽롱했다.

“그, 윗집, 인데. 아내가 임신해서. 담배 좀.”

“저기 혹시.”

온몸이 땀으로 젖어갔다. 호흡이 가빠졌고, 세상이 아득했다.

“202호?”

“무슨 소리인지, 잘.”

“맞네. 202호. 아, 그런데 담배요?”

“아니, 그게.”

계속츠레한 눈으로 웃는 여자가 맞았다. 배는 이미 폭 꺼졌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티브이 소리도, 아이의 소리도. 그저 진득하게 깔린 담배 연기만이 정적을 지키고 있었다. 여자가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고개를 치켜들고 초점 없는 눈으로 승훈을 노려보면서. 담배가 타들어 가고 있었다. 승훈 역시 그랬다.

commentary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소설은 여름이지만요.

자가당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양이지요.

인과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문학에 담기에는 고루하고 지루한 이야기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풀어 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피로를 풀어주는 잠깐의 휴식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 겁니다.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언제나 돌려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재혁

비를 긋는 사진사

해가 짧아지고, 찬바람이 날카롭던 때였다. 나는 작업을 끝내고 내 동창인 하 대표의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식당 근처의 골목을 지나치는 순간이었다. 검은색에 가까운 파란색의 연기가 내가 지나치려는 골목과 이어져 있는 작은 골목의 입구를 가리고 있었다. 머리만 골목 쪽으로 내밀어 보니, 키가 크고, 피부가 창백하고 잡티가 없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회색 두루마기나 원피스 같은 것을 두른 여자가 웬지 모를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 앞에는 환갑은 확실히 넘어 보이는 남녀가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몇 마디 대화를 이어 가다 여자가 갑자기 팔을 뻗었다. 노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떠오르다 표정을 일그러트리며, 고통스럽게 사지를 비틀었다. 여자는 노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 노인들을 붙잡아 내리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좋게 좋게 가자. 느그 사장 지금 어디 있어?”

노인들이 대답을 거부하자 여자는 다시 노인들을 공중에 띄웠다. 곧 비명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그곳에 뛰어들어 무슨 짓이냐고 외치려 했지만, 신발 밑창이 땅바닥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게 진짜라면 저 여자는 초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 혼자서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 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나는 당황해서 벽에 완전히 몸을 숨겼다. 부끄럽지만, 결국 난 그대로 하 대표의 식당으로 도망쳤다. 급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하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너 뭘 일 있냐?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본 다음 목소리를 낮췄다.

“사장님 계시지?”

“어.”

난 더 묻지 않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은 문을 밀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로 내려가니, 사장이 평소처럼 생사부(生死簿)를 옆에 둔 채 붉은색 도포를 입고, 옷철한 제기에 차려진 수육과 부침개, 과일을 먹고 있었다.

“남군 아니냐? 일찍 왔네.”

나는 머리를 꾸벅 숙인 다음에 외투 안주머니 속의 사진들을 꺼냈다. 사장은 귀신이 봉인된 사진들을 보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이야 이번에도 많네. 그래 고생했다. 앞으로도 꼭 이렇게만 해 줘.”

사장은 웃으면서 사진들을 붉은색 줄로 묶은 다음 허리춤의 주머니에 넣었다. 평소라면 나도 화기에애하게 술 한잔 얻어 마셨겠지만, 이상한 여자가 내 부모뻘인 사람들을 고문하는 모습을 봐서인지 그럴 기분까지는 아니었다. 사장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안동소주를 잔에 채우며 물어봤다.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무슨 일 있냐?”

“별일 아닙니다. 그냥 여기 오는 길에 웬 여자가 어르신들 괴롭히는 걸 봐서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나?”

사장은 그렇게 받으면서 술잔을 비우다가 멈췄다.

“그 여자가 노인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그 여자가 팔을 뻗으니까, 노인들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잠깐 내려준 다음에 그 여자가 ‘좋게 좋게 가자. 느그 사장 어딴어?’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다시 공중에 띄웠고요.”

사장이 다른 술잔을 꺼내 내게 술을 따라 주며 물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지?”

나는 술잔을 받으면서 말했다.

“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회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치마가 길어서 발은 안 보였고요.”

사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여자를 말리거나 보고 있는 것을 들키지는 않았지?”

나는 술잔을 다 비운 다음에 말했다.

“네. 말리지는 않았고요.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려서 일단 숨고, 여기로 오긴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장은 다시 소주를 따라 마시며 말했다.

“잘했다. 아무래도 자네가 본 그 여자가 저승에서 보낸 감찰관인 것 같네.”

“저승에서 여기로 감찰관을 보냅니까?”

사장은 수육을 한 점 집어 든 다음에 말했다.

“아무래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 가서 하 대표도 데리고 오게. 다른 직원들한테도 오라고 하고, 아, 그리고 만약 자네가 말한 그 여자를 볼 수 있다는 걸 들리지 말라고도 하고.”

나는 하 대표를 데리고 오면서, 직원 단체 독방에 사장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하대표와 다른 직원들이 모이자, 사장은 술잔에 소주를 따르면서 말했다.

“모두 모였구나. 내가 자네들을 여기로 부른 것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이야.”

직원들 모두가 침묵을 유지했다.

“다들 남군한테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키 크고 창백한 여자를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거다. 아무래도 저승에서 그 여자를 감찰관으로 보낸 것 같구나.”

하 대표와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적이 잠깐 흐르다가 하 대표가 입을 열었다.

“감찰관이러니요?”

사장은 부침개 한 조각을 집어 들면서 말했다.

“내가 자네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 기억하지?”

우리가 하 대표의 소개로 사장과 처음 만났을 때 사장이 이렇게 말하긴 했다.

“사실 저승사자가 이승의 인간들을 고용하는 건 저승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네. 우리가 인간들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저승과 연줄이 생겨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지장을 줄까 봐 그런 것이네. 그러니까 이 일이 들키지 않게 조심하게.”

내 옆에 있던 김 씨가 반문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이 이승에 있는 인간을 고용해서 귀신들을 체포하는 건 암암리에 흔하게 있는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암암리에 하겠나. 불법이니까 대놓고는 못하는 거지.”

김 씨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내가 질문할 차례인 것 같아서 입을 열었다.

“사장님. 그럼, 왜 감찰관이 여기에 오지 않고, 그 노인들을 잡고 있던 걸까요?”

사장은 술을 죽 들이켜고 나서 말했다.

“글쎄다.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아마 그 노인들이 감찰관한테 뭔가 꼬리를 잡힌 모양인 것 같다. 사실 그 감찰관이 지난주에 우리 저승사자들을 붙잡고 조사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영안(靈眼)이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쭉셔 보다 얻어결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사장은 술잔을 식탁에 내려놓은 다음에 말을 마저 이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심상찮으니까, 당분간은 일들 쉬게. 나도 주변에 다른 저승사자들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 테고, 상황이 진정되면 하 대표를 통해서 연

락하지.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하지 않겠냐.”

직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사장은 상 위에 놓인 마지막 과일을 먹은 뒤 도포 안쪽에 손을 넣었다가 노란색 종이 뭉치들을 꺼냈다.

“일단 이걸로 버티게.”

두껍게 접힌 종이 뭉치를 펼쳐보니 신사임당 초상화였다. 지폐 뭉치를 받은 직원들은 한결 풀린 표정으로 사장에게 인사했고, 식사를 다 끝낸 사장은 소주를 길게 한 모금 마신 뒤에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혹시나 모르니까 다들 하던 대로 한 번씩 경비 서주세요.”

하대표는 그렇게 말한 뒤, 나한테 제기를 차린 밥상을 같이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감찰이라니.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 다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냐.”

하 대표는 밥상을 옮기면서 투덜거렸다.

“그러게 말이다. 애초에 저승사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돈 쥐 가면서 일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지옥에서 귀신들 관리 못하고 계속 탈출시키니까 저승사자들이 감당이 안 돼서 이러는 거잖아. 귀신들 탈출 안 하게 관리나 잘하지.”

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 대표의 말에 맞장구쳤다. 그렇게 떠들다 보니 개수대 앞에 도착했다.

“나 먼저 간다.”

그렇게 하 대표한테 작별 인사를 건넨 다음 계단으로 올라갔다. 일 층에는 그사이 손님들이 몇 앉아 있었다. 그대로 식당 밖을 나가려는데 김 씨가 식탁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남 형. 벌써 가려고요?”

“네. 뭐 여기 계속 있어 봤자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요. 김 형은 요?”

“오늘 제 차례잖아요. 여기서 저녁 먹고 경비실 가려고요.”

“아 네 그렇네요. 고생하세요.”

“네. 살피 가세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하 대표의 식당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 대표가 우리에게 사장을 소개해 주면서 부탁한 일이었다. 사실 말이 식당이지 일 층의 왼쪽 절반과 이 층, 삼 층은 여관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직원이 남아 있는 게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하 대표는 우리의 월급을 자기네 식당에서 경비 직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것처럼 돈세탁하는 일을 맡았는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실제로 며칠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여관의 카운터에서 일해 달라고 했다. 오늘 김 씨 차례인 것을 보니 모레가 내 차례인 것 같았다. 나는 김 씨와의 대화를 끝내고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져 잠에 들었다.

다음날은 아침 아홉 시가 다 되어서야 눈을 떴다. 휴대 전화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사장님이 알아봤는데 진짜 감찰관 맞다.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라는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유쾌하지 않은 내용의 문자였지만 대충 예상하고 있었던지라 딱히 상실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원래 이 시간에는 구석진 곳에 숨어 있거나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잡으러 다닐 시간인데, 이렇게 집 안에서 명때리고 있으니 어색했다. 허리를 틀어 척추 사이에 쌓인 피로를 터트리다가 출출해져서 냉장고 문을 열어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대충 씻은 다음, 돌아오는 길에 반찬거리도 살 겸 근처 해장국집으로 갔다.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뼈다귀해장국 한 그릇을 주문하고 물을 마시는데, 대각선 위쪽에서 귀신 둘이 눈 밑이 검고, 흘쭉한 사람한테 달라붙는 모습이 보였다. 습관적으로 외투 주머니 안에 있는 봉인용 카메라에 손이 갔지만, 어제 일이 생각나서 멈췄다.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야, 너 우리가 보이지?”

안 들리는 척 무시했다. 고개를 돌리고 티브이를 보는데, 귀신들이 계속 시비를 걸었다.

“에이 이 새끼 우리 보이네, 보여.”

“야 이 새끼야. 우리 보이면서 사람……, 아니 귀신 무시해?”

“너 이 새끼 빙의해서 건물 옥상에서 다이빙시켜 줄까?”

그러다 아예 내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진짜 짜증이 나서 주머니의 카메라를 잡고 고민하던 순간 두 귀신의 표정이 변했다. 귀신들이 보는 방향으로 결눈질하니 내가 어제

본 회색 옷 여자가 서 있었다. 자세히 못 봤지만, 그녀가 팔을 뻗자 귀신들이 소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감찰관이 귀신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멍때리고 보고 있다가 그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황급히 표정을 굳히고, 시선을 티브이로 돌렸다. 감찰관은 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티브이를 보자 내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 조용히 떠났다. 회색의 형상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식은땀이 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를 때 종업원이 해장국 뚝배기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장에 들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 박혀 있었다.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린 다음 휴대 전화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는데, 외투 속의 카메라가 머리에 닿는 게 느껴졌다. 앉아서 수많은 악귀를 삼키고 가두었던 도구를 꺼내 보니 내가 그동안 일했던 기억들이 머리 한편에서 쏟아져 나왔다. 학교에 숨어서 늦게까지 하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체포한 기억, 대학 근처 원룸에 붙어, 갓 자취를 시작한 여대생을 가위눌리게 하고 목을 조르던 지박령을 체포한 기억, 멋모르고 폐가에 들어온 삼십 대 남성한테 달라붙은 귀신을 체포한 기억, 강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들이 자신과 똑같이 시체로 만들겠다고 외치는 물귀신을 체포한 기억 등등……. 우리가 취업한 과정이 합법적이지 못하긴 했지만, 우리는 저승의 높은 신들도 막지 못한, 귀신들이 이승에서 벌이는 패악질을 막았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 나는 이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만약 하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날로 되돌아간다면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다. 설사 내가 오늘 감찰관한테 체포당한다 해도 당당하게 이 말을 할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저승을 탈출하거나 저승사자의 손에서 벗어나 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귀신들을 대신 잡았다. 저승사자들이 우리를 고용한 건 당신들이 지옥의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라.”

그렇게 봉인용 인화지를 만지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휴대 전화 알림이 울렸다. 휴대 전화를 켜보니 하 대표가 ‘너 괜찮냐?’라고 문자를 보냈다. 괜찮다고 답장을 보낸 다음 침대에 누워 복잡해진 머릿속을 진정시켰다. 그렇게 나는 인생 첫 번째 휴가의 첫날을 화려보냈다.

다음 날은 내가 경비를 설 차례라서 정오를 약간 넘겨서 하 대표의 식당으로 갔다.

“일찍 왔네?”

문을 여니 하 대표가 맞아 줬다. 하 대표가 내가 앉은 식탁에 물병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단톡 봤지?”

“어, 그래도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드네.”

전날 여관 카운터를 봤던 오 씨와 이 씨가 별일 없었다고 단체톡방에 올리긴 했지만, 웬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뭐 일이야 나겠어? 뭐 먹을래?”

“나 그냥 소고기뭇국에 고등어구이, 김도 조금만 줘.”

“어, 조금만 기다려.”

하대표가 주방 쪽으로 간 사이에 나는 여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하 대표의 동생한테 말을 걸었다.

“X(그녀의 가명)야, 오랜만이네.”

“어, 오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관에 별일 없었지?”

“실은 오늘 아침에 304호에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등 뒤가 썩하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영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썩하고 소름이 돋는 것은, 악의가 있거나 강력한 힘이 있는 귀신이 근처에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었다. 이 말도 X가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는 소리일 것이었다.

“하대표한테는 말했어?”

X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요. 말하려 했는데 밖에 나갔다가 오빠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돌아왔어요.”

하 대표가 자기 동생한테 여관 일을 맡겨놓고 놀러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 304호에는 들어가지 마. 점심 먹고 나서 박씨도 오면 교대해 줄

계.”

그렇게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종업원 아주머니가 음식을 들고 왔고, 대화가 끝났다. X는 내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박 씨도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카운터를 떠났다. 나는 정수기에서 받은 물로 입을 행군 다음 박 씨한테 말했다.

“박 형. X가 304호에 뭔가 있다니까 그쪽에 한번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그렇게요.”

박 씨의 대답을 듣고 나서 삼 층으로 올라갔다. 304호 방문 앞에 서니 썩한 기운이 등 뒤로 퍼졌다. 카메라를 들고 오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심호흡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여니 침대 위에 내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가 앉아 있었다. 감찰관이 우리의 본거지 삼 층에 딱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감찰관은 웃었다. 나는 애써 감찰관이 보이지 않는 척했지만, 감찰관은 속지 않았다.

“연기 그만 해요. 나 보이는 거 알아요.”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다. 지금 바로 박 씨와 단체 특방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 바로 감찰관이 눈치챌 것이었다. 몇 초 정도 생각한 끝에, 나는 영안이 있으면서도 그녀가 저승의 감찰관인 것을 모를 뿐 아니라 저승사자와도 별 연관이 없는 사람을 연기하기로 했다.

“티 났어요?”

“네.”

“보아하니 잡귀나 악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긴 어떤 일이시죠?”

감찰관은 베개에 등을 대면서 말했다.

“그냥 잠깐 쉬려고 들렀어요. 내가 장사에 방해됐나요?”

“여기 직원 한 명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올라와 달라고 했고요.”

“그건 유감이네요. 저도 그 사람을 겁줄 생각으로 여기 온 건 아니었어요.”

감찰관의 다음 말은 날카롭게 들렸다.

“그런데요, 왜 그 직원은 하필 당신한테 올라와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영

안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어떻게 제 존재를 알아챘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 직원은 제가 영안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안이 없는 사람도 귀신 근처에 있을 때 갑자기 등뒤에 소름이 돋고 서늘한 경우가 있지요.”

그녀는 나를 보며 관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런 그녀와 대화를 오래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만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지, 귀신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여기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나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여기 근처 무당한테 찾아가 보세요. 여기에서 죽치고 있는다 해서 당신의 미련과 원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야 나가야겠죠. 어차피 내가 지박령도 아닌데 여기에 눌러앉을 생각도 없고요.”

감찰관은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들킨 이상 어제 일을 부정해 봤자 의미가 없었다.

“어제 이 근처 해장국집에서였지요.”

그러자 감찰관이 킁킁 웃으면서 말했다.

“네, 거기였죠. 그런데 거기서 날 봤으면 내가 보통 귀신이 아닌 것도 알 것 같은데. 그런 것 치곤 당당하시네요? 꼭 뒤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뒤에 뭐가 있다니요?”

나는 일단 시치미를 뚝지만, 감찰관의 의심은 계속됐다.

“어제 잡귀들이 달라붙을 때, 분명 당신의 모습은 마냥 무시하고 안 보이는 척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표정을 구기면서 손이 외투 안주머니에 가려다 멈췄었죠. 꼭 그 안에 그 잡귀들을 쫓아내거나, 제압할 만한 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긴장됐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봤어요. 저한테 그런 도구가 있었다면 진작에 꺼내서 찔렀

죠. 제 표정은 그냥 잡귀들이 저한테 시비 거는 게 짜증 나서 지은 것이예요”

감찰관은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창문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했다.

“뭘, 일단은 알았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면서 한마디를 더 했다.

“아무래도 그쪽이랑은 나중에 또 볼 것 같네요.”

그리고는 창문에서 훌쩍 뛰어내리고는 사라졌다. 밑을 내려다보았지만, 온몸을 회색 두루마기로 두른 여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창틀을 붙잡고 있다가 휴대 전화를 꺼내 단독방에 접속했다. 문 뒤로 박 씨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경비 직원과 교대하고 여관을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과 손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갔다. 얼굴을 긁고 가는 찬바람은 어묵과 따끈한 국물을 떠올리게 했다. 근처 분식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하 대표는 식당으로 돌아오자마자 304호의 벽과 문에 부적을 붙이고, 바닥에 소금을 뿌리려 했다. 그러나 상대가 저승의 고위 신임을 떠올리고 포기했다. 다른 직원들도 감찰관이 여관까지 들어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박 씨 역시 그 사건에 대해서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삼 층에 올라왔다가 카운터로 돌아간 이후 계속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햇볕을 쬐면서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던 중, 나는 깜짝 놀랐다. 옆에서 두 팔이 비틀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귀신 셋이 갓길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귀신들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곧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대각선 방향에서 찰칵 소리가 나면서, 귀신 중 두 놈이 비명을 지르며 대각선 방향으로 끌려 들어갔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파란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남은 한 놈은 위로 솟구쳐 도망가려 했지만, 그 귀신도 공중에 떠 있던 붉은 도포를 입은 여자한테 붙잡혔다.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예전에 사장과 같이 몇 번 마주쳤던 저승사자였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고, 시선이 마주치자 나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다. 저승사자는 붙잡은 귀신을 오라로 묶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직원은 귀신을 카메라에 봉인시킨 뒤 내게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네. 자네 사장은 잘 있지?”

“네. 잘 계십니다.”

저승사자가 오라에 묶인 귀신을 카메라로 봉인시키는 중년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 군, 인사하게. 여긴 내 직원 위 군. 위 군, 내가 전에 얘기했지. 내 동기 밑에서 일하는 남 군이야.”

통성명하던 중, 머리에 봉대를 감은 귀신이 다리 및 그늘에서 사탕을 빨고 있는 아이를 덮치려는 게 보였다. 곧바로 저승사자가 귀신에게 날아갔다.

옆에 저승사자가 없으니 하고 싶었던 말이 쉽게 나왔다.

“위 형. 실례인 것 같지만, 요새 이 동네에서 저승에서 온 감찰관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잡히면 큰일 나실 텐데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이 동네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감찰관을 마주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자 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장님도 비슷한 얘길 하셨지요.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해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위 씨는 계속 입을 열었다.

“남 형, 저런 귀신들을 보면 제 동생이 생각나서 그래요. 제 동생도 귀신들 때문에 크게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귀신들이 이승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저기 봐 봐요. 아까도 귀신이 어린아이를 노렸잖아요. 사장님이 안 나셨으면 저 애는 죽거나 다른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제가 감찰관이 겁나서 몸을 사리느라 못 잡은 귀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고가 일어났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긴 적막은 저승사자가 오라에 묶인 귀신을 끌고 와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깨졌다.

“아오, 이놈의 잡귀들은 왜 이리 많아! 위 군, 이것 좀 봉인시키게!”

“아, 네.”

위 씨는 다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나는 분식집에 가려던 게 생각나서 슬슬 그들과

헤어지기로 했다.

“어르신,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위 형도 몸조심하세요.”

위 씨도 잘 가라고 인사했고, 저승사자도 가로수 위에 있는 귀신한테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

“어, 그래 가 보게. 자네 사장한테 안부 좀 전해 주게.”

그렇게 이들과 헤어지고 분식집으로 가니 어묵 국물 냄새와 가판대의 철판 위에서 볶아지고 있는 떡볶이 냄새, 갓 튀겨진 새우튀김 냄새, 순대 냄새가 가게 안에서부터 풍겨왔다. 나는 가판대에 돈을 올리고, 떡볶이를 볶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어묵꼬치 한 개와 어묵 국물이 든 종이컵을 받았다. 종이컵을 가득 채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특유의 감칠맛이 혀바닥 전체를 덮었고, 얇게 썬 무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면서 단맛과 감칠맛을 내뿜었다.

그렇게 어묵과 국물로 몸을 녹이며 분식집의 벽 모서리 너머를 바라보니 방금 헤어졌던 저승사자와 위 씨가 귀신들을 체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분들 참 열심히 일하시네.’라고 생각하면서 어묵을 한 입 베어 물고 있을 때, 내 시야에 회색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잡혔다. 흠칫

하면서 다시 보니 분명 감찰관이었다. 감찰관은 저승사자와 위 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위 씨는 카메라로 귀신 한 명을 더 봉인한 뒤 자신의 고용주한테 웃으면서 카메라 안의 사진들을 보여 줬다.

“사장님, 오늘은 귀신들이 많이 잡히네요. 제가 오늘 잡은 것만 해도 벌써 열네 명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어제는 학교부터 근처 터널까지 이 잡듯이 뒤져 봐도 안 보였는데, 오늘은 다르네.”

“제 사촌 형이 자기가 관리하는 빌라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내일 신입이랑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순간, 감찰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다가, 사흘 전 저녁에 봤던 검푸른 연기를 내뿜어 주변을 감쌌다. 저승사자와 위 씨 근처에 사람

들이 몇 명 있었지만, 모두 무언가에 홀린 표정으로 연기의 장막 밖으로 걸어 나갔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오로지 나만 홀리지 않고,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감찰관이 왜 사흘 전 저녁에 골목길에서 연기를 내뿜었는지 깨달았다. 내 몸 대부분을 분식집의 벽에 붙인 채 검푸른 장막 안을 관찰하니 저승사자와 위 씨가 그 연기 속을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연기 속을 뚫고 나가려 하거나 하늘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럴수록 검푸른 장막은 저승사자가 날아오르는 만큼 더 높아졌다. 혹은 팔을 휘젓고, 앞으로 달려가려는 위 씨한테 달라붙어서 그의 어깨와 머리를 눌러 무릎 꿇릴 뿐이었다.

감찰관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 소매 속에서 붉은색 두꺼운 줄을 꺼내 저승사자와 그녀의 직원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은 저승사자가 살아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돕도록 사주할 수 없다는 저승의 법률을 어겼으므로 열라대왕께 재판받을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멀리 있는 나까지 긴장하게 했다. 감찰관한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들켜서 좋을 게 없어서 조용히 떠나려는데, 등 뒤에서 오라에 묶인 저승사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애초에 니들이 지옥 관리 제대로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귀신들은 계속 이승에 쏘아지고, 저승사자 숫자는 한정적인데 우리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인간들을 고용하는 게 싫으면 니들이 지옥에서 귀신들이 탈출 못 하게 제대로 단속하든가 지원을 더 보내 주면 되잖아! 지옥 관리는 개판으로 하면서 저승사자 지원은 개빨도 안 해주니까 생긴 거잖아.”

그러자 감찰관이 잠깐 움직임を 멈췄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열 발자국을 걸어갈 만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허공에 구멍을 만들어 그들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감찰관은 꽤 오랫동안 머리를 손으로 짚은 채 근처 계단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분식집을 빠져나가서 어묵을 뜯어 먹고, 종이컵 안에 든 국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는데, 언덕 너머에서 사장이 귀신들을 쫓는 게 보였다. 제일 가까이 있는 두 놈은 오라로 포박하는 데 성공했지만, 남은 귀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건 막지 못했다. 만약 옆에 박 씨나 김 씨가 옆에 있었다면 저 귀신들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했으리라. 사장이

제일 앞에 있거나 가장 흥흥한 기운을 내뿜는 귀신을 포박하는 사이 그들은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러 인화지로 나머지 귀신들을 봉인했으리라.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바람에 감찰관이 내 근처에 다가온 것을 한 박자 늦게 알아차렸다. 뭐 제때 알아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감찰관은 사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 깜짝 놀랐지만, 나는 그녀를 보지 못한 척 꼬치에 꽂힌 어묵을 마저 먹고, 남은 어묵 국물을 마시면서 태연한 모습을 유지했다. 내가 어묵을 먹는 사이 감찰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놔두고, 나무 꼬챙이와 종이컵을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발 끈이 풀려서 다시 묶으려 허리를 숙였는데, 외투의 불룩해진 주머니가 무릎과 부딪혔다. 신발 끈을 묶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안에 든 걸 꺼내 보니 귀신 포획용 카메라였다. 카메라를 보니 저승사자들을 피해 다니며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잡으러 다니던 때가 떠올랐다. 따지고 보면 휴가를 받고 몸을 사린 지 아직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한 달도 더 지난 느낌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일어서니 백 걸음쯤 밖에서 회색 두루마기로 온몸을 감싼 창백한 얼굴이 근처 건물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나기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갑갑했지만 지금 처마 밑을 나오는 건 위험했다.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카메라를 다시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다시 집으로 걸어가기 전 목을 축이기 위해 식수대로 발을 옮겼는데, 식수대 근처의 동백나무에 방금 전 사장이 놓친 귀신들 중 머리에 식칼을 꽂고 다니는 놈이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 무시하고 목만 축이고 떠나려는데 그 귀신이 동백나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어깨에 달라붙었다. 순간적으로 손이 외투 주머니로 향했지만, 열 발자국 정도 앞에서 감찰관이 서 있는 게 보여서 손을 멈췄다. 감찰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긴장되었다. 내가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는 사이, 행인의 어깨에 달라붙은 귀신은 머리에 꽂힌 식칼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으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번 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직원들끼리 계곡에 놀러 갔는데, 계곡 한가운데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

적대고 있었다. 내가 황급히 물에 들어갔지만, 아이 주변으로 소용돌이가 돌고 있어서 선뜻 아이한테 다가가기 겁났었다. 그렇게 내가 망설이던 상황에서 아이가 움직임을 멈추고 축 늘어졌다. 나는 당황하다가 물귀신이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보고, 급하게 목에 건 카메라로 물귀신을 봉인시켰고, 물귀신이 없어지자마자 아이 주변의 소용돌이도 사라졌다. 나는 아이를 업고 물속에서 빠져나왔다. 아이는 박 씨와 김 씨가 심폐 소생술을 하고 나서야 겨우 깨어났다. 아이가 결국 깨어나기는 했고, 그 아이의 가족들도 내가 물속에서 아이를 꺼내준 것을 고마워했지만, 아이의 발목에 생긴 시퍼런 다섯 개의 멍을 보면서 물귀신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진짜 위험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손이 저절로 외투 주머니로 들어갔다. 감찰관 일은 잊어버리고 카메라를 꺼내서 그 귀신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각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나면서, 귀신은 카메라 안으로 빨려 들어가 카메라 안의 인화지 안에 봉인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던 행인이 뒤를 돌아봤지만, 내가 동백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내 피곤에 찌든 표정으로 다시 걸어갔다. 행인이 사라지고, 그 공간에 나와 감찰관밖에 남지 않아 감찰관이 나한테 다가왔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카메라를 그녀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여기 근처에 이상한 게 있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찰관은 카메라를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위 씨와 그의 고용주를 바라볼 때랑 똑같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여기 동백나무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죠.”

감찰관은 그 말만 남기고 나를 지나쳐서 걸어갔다. 감찰관이 나를 지나쳐서 떠난 지 한참 후에 사장이 날아왔다. 사장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나를 붙잡고 물어봤다.

“자네 괜찮나? 감찰관이 방금 자네한테 무슨 말을 했나?”

“제가 못 참고 행인한테 달라붙은 귀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찰관이 왔고, 저는 카메라 내밀면서 ‘근처에 이상한 게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감찰관이 카메라도 안 보고 ‘여기 동백나무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죠.’라고 말한 다음에 간 것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사장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했다.

“자네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네. 뭘 일 생기면 내가 하 대표 통해서 연락하지.”

그렇게 사장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찰관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한 건지, 혹시 나를 안심시킨 다음에 뭔가 함정을 파 둔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감찰관이 사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있다는 걸 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애초에 현장에 있는 신들이 그걸 몰라서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승에서 지옥 관리 대책을 내놓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자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저승사자들은 언제든 유혹을 느낄 겁니다.”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생사부를 펼쳤다.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귀신들이 이 지역에서 출현했다고 뜨고 있잖아요.”

사장이 펼친 생사부에는 사람들의 수명과 죽을 날짜들이 빼곡히 기록된 글자들 대신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점들이 가득한 우리가 사는 시(市의) 지도가 그려진 판이 나타났다. 나는 지금까지 저게 생사부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피에스 비슷한 거였다. 사장은 계속해서 뽀짝거리는 빨간색 점들을 보면서 ‘여기 빨간색들이 뽀짝이는 거 좀 보세요. 지옥에 도로라도 뚫렸나 보네요’라고 말했고, 감찰관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다.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차 뒤를 조용히 빠져나와 이들을 떠났다.

그런 일이 있고 다음 날 저녁에 하대표가 직원들 단톡방에 ‘사장님께서 감찰관이 저승으로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평소처럼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장과 감찰관의 대화가 뭔가 효과가 있던 것일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소나기가 그치고, 처마에서 나와도 된다는 것에 기뻐하던 중 하 대표가 전화했다.

“나야. 너도 X의 친구가 여기 근처에서 자취하는 거 알지? 그런데 개 자취방에 귀신이 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김 씨랑 같이 가서 처리해 줄 수 있어?”

나는 카메라를 닦으면서 말했다.

“어, 할게. 위치 알려 줘.”

commentary

이 소설은 '만약 사람이 저승사자한테 고용돼서 귀신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저승사자가 이승의 인간을 고용하는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데까지 상상이 이어져 '비를 긋는 사진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읽다 보면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소설을 쓰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고 부족한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
혜
립

마른 나무 아래 핀

마을 중심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것이었다. 그 나무는 천천히 자랐다. 사람들은 몇 해 동안 자라지 않는 나무를 보고, 분명히 뿌리가 썩은 게 틀림없다며 나무를 뽑으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나무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나무의 꼭대기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지만, 사람들은 종종 아파트에 올라 나무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꼭대기를 보지 못한 소수의 마을 사람 중 하나였다. 내가 나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때는 이미 낡은 삼 층 아파트는 철거가 된 후였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나무는 그 아파트보다 훌쩍 컸다. 마을 사람들은 덩그러니 놓인 나무에 관심이 많았다.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자라지 않았을 때도 그랬고, 자라고 난 후에도 그랬다.

나무의 성장은 놀라웠다. 이제는 마을의 누구도 나무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나무는 마을에 벼락이 떨어졌던 날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자랐다. 비

도 내리지 않은 날, 마른 벼락이 친 적이 있었다. 이 성장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가던 나무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누가 뚜렷이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중심의 어떤 의미가 되어 있었다.

나무는 아주 높이 자랐지만, 어린아이가 끌어안아도 자신의 손을 맞잡을 수 있을 만큼 상상했다. 땅과 수직으로만 자란 나무는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자라다가 왼쪽으로 휘었다가 다시 곧게 자란 모양새, 나무의 상단에만 겨우 존재하는 이파리들도 기이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충분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야말로 나무가 병들었다며 뽑아내자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둘로 분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에는 가끔 새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나무는 때가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피워냈다. 나무가 흥흥한 소문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병이 들었다거나, 뿌리가 썩었다고 하지 않는 대신에 사람들은 나무에 가장 마음에 드는 소문을 붙여 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믿음이 증명되면 나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낭설에 박차를 가한 것은 나무 아래 돌이 하나 생기더니 둘 셋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였다. 어떤 이가 시작한 행위인지는 몰라도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그 덕에 나무 아래 돌들은 나무의 성장만큼이나 빠르게 늘어났다.

이전에는 나무 바로 아래에 설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많은 돌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었다. 흙에 박혀 있는 돌들은 어떤 띠처럼 보였다. 돌들은 하나의 군락을 이루기 시작했다. 돌로 된 띠는 점점 늘어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놓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 나왔다. 그럴 때면 마을 사람 몇이 모여 울타리를 새로 만들었다. 누가 두고 가는지는 몰라도 돌이 늘어나면 울타리를 옮기는 것은 마을의 행사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인적이 드문 시각에 돌을 두고 가는 검은 실루엣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이 나무와 가장 가까운 집에 살았다. 벼락이 치기 전에도, 치고 난 후에도 근처에 있었다.

내가 이유 모를 구역질에 시달린 것은 오늘 아침의 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밤잠을 설치

고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푸르스름한 하늘을 보니 금방 해가 뜰 시각인 듯했다. 나무 밑동이 겨우 보이는 자리에서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떤 그림자가 지나갈지 생각하며 창에 기대었다. 볼품없는 나무 밑동, 크기가 제각각인 돌이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돌은 나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아니라면 벗어나고 있는 것이었을까.

나뭇잎보다 많은 돌, 어쩌면 나뭇잎에 가야 할 모든 것들을 돌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볼수록 이상한 나무였다. 여러 사람이 기대어 둔 돌은 더욱 이상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볼품없는 것에 무엇을 걸어 놓고 간 것일까.

창문으로 습한 바람이 들어왔다. 몇 없는 나뭇잎이 스쳤다. 그렇게 몇 분을 더 바라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이 새벽에는 돌을 들고 나무를 찾아온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었다.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떴고, 마을이 소란스러웠다. 이 작고 작은 마을에는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있었다고 한들, 지켜지지 않았다. 다들 길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고 말도 많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할 것도 없었다. 재미없는 마을 생활에 몇 마디 말을 엿을 수 있는 흥밋거리면 충분했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는 조용한 이웃이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닌 소문에 관심을 주는 것이다. 나도 곧 이 소란스러운 소문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마을을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가 나에게 알려줄지도 몰랐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소란은 저 현관을 넘지 않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수림이 죽었다.

소문이 대문을 넘었다. 이 마을에 더는 살지 않는 하은도 문을 넘었다. 나는 그때부터 구역질을 시작했다. 속이 울렁거리는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수림의 이름을 들은 것은 십여 년 만이었다. 십여 년 전에는 아주 잘 알았고 자주 불렀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더는 부르지 않게 되었다. 이름을 자꾸만 머금게 되었다. 입에 걸

리는 것 없는 이름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는 이렇게 다시 나의 곁으로 왔다.

사실 수림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삼 년 전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었다. 수림은 나와 같은 마을에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길을 걸으며 자랐다. 하은도 그랬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한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었던 사이, 태어난 곳이 같아 비슷한 배경을 공유했던 스쳐 가는 인연 중 하나. 인연이라는 말도 거창하게 느껴졌다. 단지 우연이라는 것으로 그와의 사이를 정의 내리고 싶었다. 한때 알았던 것으로, 아주 간결하게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바람이었을 뿐이었다. 오히려 수림은 그때의 관계를 영원토록 가져가고 싶어 했다.

삼 년 전, 수림은 길을 걷던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그날에도 하은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반갑게 불렀다. 알고 지낸 지 꽤 지났음에도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불린 내 이름에 본능적으로 멈춰 뒤돌아봤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날 분명 한눈에 알아보았다. 수림은 이전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를 애써 지우고 있었다. 의식해서 다니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집 앞 골목도 떠올랐다. 그 골목에 있는 배롱나무는 빨간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리라.

“어디 가는 길이야?”

수림은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나도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어딜 향하고 있었는지만 대답했다.

“아직 살던 곳에 살아?”

“응.”

“근데 왜 이제 마주쳤지?”

수림의 질문 하나하나가 나에게서 크게 다가왔다. 그와 나 사이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핵심에 다다르지 않은 채 그 주변만 계속해서 맴돌았다.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

“뭘, 그때 연락하던 몇몇이랑은 하지.”

“그래? 잘 지내?”

수림의 이 질문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나에게 던진 질문인지, 몇몇 알 수 없는 그들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 질문에도 역시 고개만 끄덕였다. 알아서 생각할 것이라 믿었다.

“나는?”

명랑하게 돌아온 물음이었다. 나는 이 물음이 장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이 질문에 장난으로 응해야 할지, 진심으로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장난일 수 있었던 시간을 훨씬 지나버렸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것은 더욱 그랬다. 그의 존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묻는 것조차 더는 편한 사이가 아니라는 의미 같았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었다. 나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고 싶었다. 묻고 싶은 것이 없었다. 만일 묻기 시작한다면 애써 묻어두었던 나의 과거가 떠오를 테고, 그렇게 되면 혼자서 미안함을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껴야 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수림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할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그랬다. 나는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해 지난 시간을 써왔다면, 그는 나와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나와는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이제는 커피도 마시는구나.”

그는 커피를 든 나를 보며 커피아이스크림도 먹지 않았던 나의 학창 시절을 기억한다는 듯이 말했다. 기억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런 사소한 일까지 기억에 남겨 두고 있었다는 것이 그와 내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는 과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냈다.

우리는 같은 마을의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냈고, 분명 헤어짐도 자연스러웠다. 하은은 졸업과 동시에 마을을 떠났으니 더욱 자연스러웠고, 나는 마을엔 남았으나 공통점이라고는 학교뿐이던 우리가 굳이 만남을 이어가지 않은 것이니 말

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찾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수림에게는 모든 관계가 서서히 끊어져 나가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여겼다. 인연이라는 것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으니.

수림이 나를 불러 세운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수림은 지난 시간의 나를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었을까. 같은 동네에 사니 나와 이런 만남을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혹시 집 앞에서 내가 나오길 기다리며, 우연을 가장해 인사를 건넨 것은 아닐까. 수림은 나를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느끼는 아주 조금의 죄를 파고들어 은은한 고통을 줄 날을 기다려 왔던 것은 아닐까. 나는 이 만남으로 오랫동안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멈췄던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교복을 입었을 때는 수림과 나는 떨어져 있던 시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가까웠다.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우리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혹시 내가 문제였을까?”

그는 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말에 나는 다시 교복을 입은 십여 년 전의 학생으로 돌아갔다. 편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교복,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잠가야 했던 시절로 돌아갔다. 나에게 교복을 입혀 놓고 떠났다. 다시 만나자는 말과 전화번호를 남긴 채 말이다.

그랬던 수림이 죽었다. 수림이 죽었다니. 그와 연락이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다시 또 뜬해진 이 시점에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을 어딘가에 계속 살아가고 있을 거라 희미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수림이 죽었다.

내가 이토록 동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그의 휴대 전화에 여전히 남아 있을 나의 번호, 짧은 대답으로 나뉘던 일방적인 연락들이 떠올랐다. 죽음을 실감하기도 어려웠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죽음이 슬프게 다가온 것도 아니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만큼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가 죽은 것이었다. 소식에 대한 감정을 굳이 따지자면 죽음에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잠시 혼란스러울 뿐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다. 게워 낼 것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게워야만 할 것 같았다.

최근 적막하던 마을이 수림의 소식 하나로 소란이었다. 마을에 활기가 도니 새삼스러웠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으니, 죽음 역시 마을에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어제 만난 사람이 있을지, 최근에 만난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수림의 죽음은 나흘 후인 오늘에야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의 가족이 죽음을 알린 것도 아니었다. 수림의 최초발견자이자 가까이 살던 사람의 입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수림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더라면 그의 발견이 더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와 마을 사이의 교류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보니 최근 만난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그를 억지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대문 뒤에 모여 수군덕거리는 것으로 그곳에 그가 있음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제 그는 마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존재를 다시금 느끼느라 바빴다.

죽음과 함께 사람들은 수림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림을 두고 어느 날에 훌쩍 동네를 떠난 가족들. 그들이 마을을 떠났을 때도 사람들은 대문 뒤에서 떠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었다. 나 역시도 그랬다. 수림이 가끔 내게 문자를 보내고, 나는 의무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 전부였다. 그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나는 찾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으나, 각자 붙인 이야기를 사실처럼 여겼다. 수림은 사실을 바로 잡을 생각도, 알릴 마음도 없었다. 수림을 둘러싼 소문들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수림은 소문이 커지는 것을 보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수림의 가족에게서 나로 관심을 옮겼다. 그들의 기억 속의 나는 여전히 수림과 다니던 친구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새로 덧씌워지지 않았다. 그와 내가 같이 다니는 것을 몇 해 동안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를 걱정할 것

이 전혀 없었지만, 집 앞을 지나며 혼잣말로 떠들어댔다.

수림은 길에서 만난 그 후부터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그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 이름이 없는 번호는 나에게 꾸준히 안부를 물어왔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된 연락에 이름이 없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연락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오는 것은 모두 받았다. 그것으로 내가 느낀 조금의 죄를 면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홀로 느끼는 그 감정은 연락이 계속될수록 나를 옥죄었다. 나는 나를 위해 시간 간격을 두고 연락에 응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 내게 여전히 존재했다. 언제 한번은 그의 번호를 없애고 싶다는 마음이 일기도 했으나, 그렇게 된다면 수림이 직접 대문을 넘어 들어올 것만 같아서 그러지 못했다. 무엇과 함께 넘어올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나는 수림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감정을 수림에게 갚는 것처럼 단순히 이행했다. 하지만 갚아지기는커녕 쌓이기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연락만으로는 갚을 수 없었다. 그의 연락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더 깊은 곳으로 파묻히게 만들었다. 내가 지레짐작으로 느낀 것이라 믿고 싶지만, 아무렇지 않아 하며 살갑게 다가오는 수림이 언제나 어려웠다. 두렵기도 했다. 나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수림의 속내를 알고 싶었다.

그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니 나는 그가 나와서 만남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만큼 대갚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수림은 현재를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말했다. 그는 과거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수림의 시간을 모두 공유받은 것이 아니기에 내가 모르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짐작만 할 뿐이었다. 수림은 그 시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내가 아는 그 시간에 대해서만 꾸준히 말했다. 나는 기억하기도 싫은 것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마을 중심의 나무도 어느 순간에는 다른 나무를 넘어설 정도로 컸는데 말이다.

수림이 그럴 때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이전으로 돌리고 싶었다. 수림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데 나라고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라야 했다.

그를 받아들였다. 내가 남을 가려 받을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자라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무만큼 자랄 수 있을지, 그저 썩은 나무로 남을지도 몰랐다. 자라지 않더라도 썩지 않길 바라며 그를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자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의 나무는 어딘가 이상했고, 불규칙적으로 가지를 뻗었다. 수림은 나와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계속 다음으로 미뤘다. 혹시 길에서 다시 만날까 한 번 만났던 골목으로는 다니지 않았고, 밖에서는 땅만 보고 걸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무처럼 어딘가 이상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의 연락이 드물어졌다. 나는 여전히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고마워.

수림에게 이 세 글자만 온 날이었다. 다짜고짜 고맙다니, 나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알 길이 없었고, 추측할 것도 없었다. 혹시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오래 고민했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지, 어떤 답을 원하는지. 정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오답은 피하고 싶었다.

-응.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혼란스러울 것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묻기에는 다음에 올 말이 상상되지 않아 더욱 두려웠다. 다음을 묻지 않으며, 표해준 감사에 응하는 최선의 답장이었다고 생각했다. 고마움의 실체를 깨닫지 않으려 했다. 어쨌든 그는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 없을 것이니까.

수림의 가족은 연락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일도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수림의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족이 떠난 뒤 그와 연락을 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마을과 떨어져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수림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없었다.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걱정인 사람들은 많았다. 연락이 닿지 않는 수림의 가족 덕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대로 수림을 둘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했다. 마을은 다시 건조해졌다. 나는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다. 근처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오가는 말들을 들으며 생각만 했다.

혹시 내가 수림의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다. 가봐야 했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수림의 집으로 가는 길은 아직 생하지만, 쉽사리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의 집 근처 배롱나무는 아마 올해에도 꽃을 피울 것이었다. 그 배롱나무를 본 일은 오래된 일이지만, 흐드러진 선홍빛의 꽃망울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기억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배롱나무를 지나면 높은 담벼락, 담벼락을 따라서 조금 더 걷다 보면 그의 집 대문이 나온다. 수림의 문은 하얀색이었던가, 푸른색이었던가. 배롱나무는 기억하면서도 같은 시간 지나들었던 문의 색은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나는 그 시절을 잊으려고 썩 열심이었던 것 같았다.

“우리도 가봐야 하나?”

맞은 편에 가만히 앉아 있던 하은이 물었다. 하은도 어딘가 얼이 빠진 모습이였다. 다식은 차를 습관처럼 불러 마시고 있었다.

“그래야 할까?”

말 그대로였다.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뭐라 말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의 집을 찾아야 할 것 같다가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집에 갔다가 의도치 않게 마주하기 싫은 사실과 직면하게 된다면 어쩌할 것인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르겠다.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뒤로 미룬 진실을 맞닥뜨리는 순간, 미뤄 둔 시간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랐다. 나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의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 무게를 추가해 온 것이다. 수림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나에게 그 공간은 미지의 공간이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은이 어찌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하은을 보았다.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은이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내용이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자리를 옮겼다.

“안 가려고?”

하은은 오늘은 아닌 것 같다며 중얼거리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은이 머물렀던 맞은 편에는 찻잔만 남았다. 수림이 떠올랐다. 내가 먼저 그를 떠올린 것은 처음이었다.

미지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집은 내게 멀리 떨어진 공간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걸어본 거리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는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배롱나무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몇 해 동안 견지 않았다고 해서 익숙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골목은 변함이 없었고 내게도 낯설지 않았다. 배롱나무를 지나서 높은 담벼락을 따라 얼마 견지 않았는데 수림의 집이 나왔다. 문은 하얀색도 아니었고, 푸른색은 더더욱 아니었다. 배롱나무꽃을 닮은 색이었다. 조금 바란 느낌이 있었지만, 헛갈릴 수 없는 색이었다.

밖에서 들여다본 그의 집은 고요했다. 집안 곳곳이 어수선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적막했다. 수림의 집은 항상 그랬던 것 같다. 사람이 집에 있든 없든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수림 그 자체였다. 하은과 함께 와야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집 앞까지 호기롭게 왔으나 그 뒤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지, 이대로 돌아가도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이내 결심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와 어딘가 닮았을 것 같은 어둑한 거리와

고요한 집이 나에게 들어오라 하는 것 같았다. 그가 계속해서 내게 던졌던 돌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돌아왔고, 나는 지금이야 정신이 든 것 같았다. 그가 던졌던 돌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은 전달되지 않는 숨죽인 물결이 되었다.

문고리를 잡으니 어딘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여름밤의 열대야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오는 동안 흘렸던 땀은 그새 말라 있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니 문이 열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 내부는 나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족이 빠져나갔으니 그만큼의 공간이 비워져 허전해 보이는 곳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 어딘가 슬퍼 보이거나 하진 않았다. 드물게 보이는 그의 흔적이 그렇게 느껴지게 했다.

가장자리만 움푹 내려앉아 있는 소파, 단정히 정리된 침대가 여전히 있었다. 소파도 침대도 기억과 일치했지만, 노랗게 때가 탄 액자의 흔적은 낫설었다. 본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을 때는 흔적이 아니라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를 수림이 떼어낸 것인지, 가족이 떠날 때 떼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수림은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맞은편의 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앉았을 소파 반대쪽에 앉아 집을 찬찬히 둘러 보았다. 창으로 가로등의 빛이 새어 들어왔다. 실내로 외부의 빛이 들어오니 가뜩이나 허전하게 느껴진 공간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이곳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내게 소름이 돋았다. 내가 와도 되는 공간이었을지, 이곳에 온 나를 수림이 반겼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 이곳은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수림이 잡고 싶었던 그 과거에 대한 실마리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집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그토록 원했던 시간이라도 느낄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수림이 떠난 자리에 다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아침은 다른 곳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데 활짝 열린 그의 방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아까 느꼈던 감정을 다시 잊은 채 밖이 아닌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의 침대 아래 빠져나온 종이의 모서리, 나는 그것을 꺼내어 보았다. 종이에 수림의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수림의 글이었다. 가

장 맨 위에 나의 이름이 적힌 유서.

아, 나는 너를 왜 미워했을까. 내가 너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은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나에게 준 죄였다. 내가 두려워할 실체 같은 것은 이곳에 없었다. 수림은 나를 가둔 적이 없고, 나 역시 그를 가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스스로 가뒀고,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최후를 맞이했다.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했던 것이었는지 부끄러워졌다.

수림의 방 안에 앉아 밖을 보니 훼손되지 않은 현관문의 손잡이가 눈에 들어왔다. 망가지지 않았으니 문을 잠갔던 적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멀쩡히 들어와 그를 발견했다. 항상 그렇게 문을 잠그지 않고 지냈던 것일까. 그는 문을 열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올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나는 결국 이렇게 늦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세상에는 그가 전부였다. 홀로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 있을 테지만, 수림에게 그 길은 버거웠고, 함께 걷고 싶었던 거였다. 그리고 그의 외로움은 갑작스럽게 생겼다. 외로움은 대비되는 것도 아니니 더욱 어려웠을 것이었다. 한순간에 다가온 이별들, 수림은 계속 혼자였다.

함께였다가 홀로 남은 이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혼자였던 적이 별로 없기에,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알량한 감정일 거였다. 수림의 문을 넘어오는 사람은 없었고, 수림 역시 굳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가끔 수림이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오래 지나자 수림은 스스로 만든 문 안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다. 수림에게 저 문은 통로가 되지 못했다.

글을 다 읽고 보니, 수림의 글은 유서가 아니라 편지였다. 내 이름 아래 남긴 것이긴 했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했을 편지였다. 어쩌면 누구에게든 닿고 싶었던 수림의 말일지도 모르겠다. 맨 위의 이름이 다른 글보다 조금 더 진하게 적혀 있었다. 수림이 고른 나의 이름. 수림에게 답장하고 싶었다. 수림에게 보낼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수림의 말을 듣기 위함이었다. 익숙했지만, 한껏 어색하고 싶었던 골목을 걸었던 이유는 이 종이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의 집에 온 것을 들리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영원히 고요했고, 다시 숙연해질 그의 방을 보았다. 수림의 인생과 닮았다.

잠긴 적이 없던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발밑의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 들어올 때는 피해서 들어온 것이 나갈 때 말썽이었다. 괜히 돌에다 대고 화풀이를 했다. 돌은 쉽게 들러서 땅에 박혀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 뽀족하게 드러난 부분과 달리 흙이 진득하게 묻은 쪽은 모난 곳 하나 없었다.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수림의 집으로 찾아온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나, 근처에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다시 숨죽이고 인기척이 사라질 때를 기다렸다.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높은 담벼락 골목을 지나서 배롱나무를 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은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하늘이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해가 뜨려나 보다, 창밖을 보는데 나무 아래로 작은 실루엣 하나가 어른거렸다. 검은 그림자는 나무 아래에서 몸을 웅크려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이마다 한 걸음씩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 앉았던 자리보다 몇 걸음을 더 옮긴 뒤에야 온 길을 되돌아갔다.

하은이 뒤척거렸다. 곧 깨어날 듯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얼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수림의 편지와 돌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편지는 손이 닿지 않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하은이 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무 아래로 향했다.

이제는 내가 나무 아래의 그림자가 되어 한 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의 돌은 다른 돌들과 달리 모난 곳 없이 둥그런 모양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돌을 두는 동안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일어나면서 어떤 기도도 빌지 않았다. 그 누구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만 했을 뿐이었다.

마을 중심에는 큰 나무가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앙상하게 빼죽 큰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 주위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보다 더 시선을 끄는 것은 제각각으로 생긴 돌이 흠에 이리저리 박혀 있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돌을 두는 것으로 어떤 의식행위를 해오고 있었다. 나무 아래에 두고 간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 탓에 울타리는 비슷한 주기마다 옮겨졌다. 돌이 밖으로, 밖으로 퍼져 나올 때마다 그랬다. 언젠가는 저 돌들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올지 모른다. 나는 그 나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다.

commentary

생각해 보면 뭐든 쓰면서 지냈다.

혼자 보는 일기장, 가까운 이가 받아볼 편지지, 그저 하얗기만 한 곳 어디든.

결국엔 쓰게 되었다.

쓴 것에 만족하는지 물으면 곧장 고개를 끄덕이진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쓰게 된 것이 좋은지 묻는다면 천천히 오랫동안 끄덕일 것이다.

나는 나무 아래에 그 모든 것을 심어 두었다.

희곡

손서영
유하정
진유리

손서영

피노키오 룸메이트

- 등장인물**
- 해영 20대.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카페 매니저를 하고 있다.
- 예주 20대.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 은혜 30대. 봉사활동을 하러 보육원에 갔다가 해영을 만났다.
- 의사 해영 담당의
- 무 대**
- 넓은 원룸이다. 무대 중앙에는 원형 테이블과 의자 두 개가 놓여 있다. 무대 왼쪽에 옷장, 화장대와 의자가 있다. 무대 오른쪽에 매트리스가 있다. 매트리스 옆에는 이동식 행거와 옷걸이가 몇 개 걸려있다. 무대 뒤편에 스크린이 있다.

1장

무대는 형체만 보일 정도로 어둡다. 해영이 화장대 위 여러 종류의 비타민 통을 정리하고 있다. 예주가 등장한다. 예주, 현관문을 힘차게 두드린다. 소리에 놀란 해영이 비타민 통 하나를 떨어트린다. 해영,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밖을 본다.

해영 누구세요?

예주 저 은혜 언니 친한 동생인데요! 연락받으셨나요?

해영 아, 들어오세요.

해영이 문을 열면 무대의 조명이 점차 밝아진다. 예주,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온다.

해영 저기 신발은 벗고.

예주 아, 죄송해요. 제가 오랜만에 귀국해서 잊고 있었네요.

해영 아닙니다. 닻으면 되니까요.

해영이 물티슈로 바닥을 닦는다. 예주, 들고 있던 캐리어를 놔두고 주변을 둘러본다.

예주 생각보다 작네요.

해영 네?

예주 집 크기 말이에요. 여기서 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주, 테이블 표면을 손으로 쓸어본다.

예주 요즘 원목 인테리어가 유행인가. 다 원목이에요?

해영 네, 언니가 신경 써서 고른 가구들이에요.

예주 와, 진짜 비쌌겠다. 그래도 예쁘긴 하네요. 집 분위기랑은 언밸런스 하지만.

해영 ...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예주 커피 주세요. 얼음 가득 넣어서요.

해영이 퇴장하면 예주, 바닥에 떨어진 비타민 통을 주워 화장대에 올려놓는다. 예주, 바닥에 앉아 캐리어 짐을 풀기 시작한다. 끝도 없이 나오는 옷들. 다른 생필품은 없다. 예주, 일어나서 옷장으로 다가간다. 해영이 커피잔을 들고 등장, 예주 앞을 막아선다. 커피가 넘쳐흐른다.

해영 (다급하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예주 제가 먼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흰 블라우스에 커피 쏟으셨어요.

해영 아... 옷장에는 옷걸이가 없어요. 저기 있는 행거 쓰시면 됩니다.

예주 블라우스 한번 벗어 보실래요? 제가 얼룩 지우기 고수라.

해영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주 부끄러움이 많으시네.

해영 (잠시 땀을 들인 후) 방금 쏟아버려서 남은 게 별로 없네요.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예주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아니요, 잘 마실게요.

단숨에 커피를 털어 마신 예주가 해영에게 컵을 건넨다. 예주, 행거에 옷을 하나씩 걸기 시작한다. 해영, 컵을 가지고 퇴장. 사이,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밝아진다. 예주는 매트리스 위에 걸터앉았고, 해영은 이불을 들고 등장한다.

예주 제가 진짜 침대에서 자도 돼요? 매트리스 새 거 있는 것 같던데.

해영 은혜 언니 돌아오면 쓰라고 안 뜯었어요.

예주 (한숨을 뱉으며) 그러면 어디서 잘 거예요?

해영, 매트리스와 조금 떨어진 곳에 이불을 깐다.

해영 이불 깔고 자면 돼서 괜찮아요.

예주 바닥 차갑잖아요.

해영 보일러 틀어서 괜찮아요.

예주 한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한 달 동안 바닥에서 자겠다고요?

해영이 말없이 눕는다. 예주, 따라 누워 있다가 뒤척인다.

예주 저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해영, 대답이 없다. 예주가 해영 쪽으로 돌아본다.

예주 언니, 안 자는 거 다 알아요. 대답해 봐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해영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주 근데 언니는 왜 저한테 존댓말 써요?

해영 저는 존댓말 쓰고 싶어요.

예주 그렇구나. (돌아서며) 언니는 제가 왜 이 집에 왔는지 안 궁금해요? 은혜 언니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라던가. 생각해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 받아준 것도 신기해요.

해영 언니 부탁이었으니까요.

예주 (서운하다는 듯이) 그렇구나. 언니, 바닥에서 자는 거 안 불편해요? 침대에서 같이 잘래요?

해영 바닥이 편해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고개를 돌리며) 안녕히 주무세요.

해영이 정자세였던 몸을 반대편으로 돌린다. 예주, 키득거리며 한참을 웃는다.

예주 잘 자요.

암전.

2장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진다. 바람 소리 들린다. 해영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다. 이부자리 정리를 하고 퇴장한다. 사이, 예주가 뒤척이다 별떡 일어난다. 해영을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본다.

예주 (중얼거리며) 없네. (두리번거리며) 먹을 게 없네.

예주, 다시 누우려는데 해영이 샌드위치를 들고 등장한다.

해영 일어났네요. 아침 먹어요.

예주 (놀라며) 뭐야. 언니, 아직 안 갔어요?

해영이 말없이 테이블에 앉는다. 예주, 마주 앉아 웃는다.

예주 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해영 출근까지 시간 남았어요.
예주 (웃으며) 아, 그래요. 근데 언니 무슨 일 해요?
해영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해요.
예주 오, 어쩐지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해영,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예주가 해영을 쳐다본다.

해영 (마주보며 한참 후에) 예주 씨는요?
예주 (활짝 웃으며) 저는 그냥 백수죠.
해영 (뜸을 들이며) 그렇군요.
예주 사실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믿음직하다는 아들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제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뭐 어찌겠어요. 동생 못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고생하고 있겠죠.
해영 저 먼저 나가볼게요.
예주 언니 돈 많이 벌어 와요. 제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해영이 퇴장하면 조명의 세기가 떨어지고, 핀 조명이 예주를 비춘다. 예주, 샌드위치를 먹는다.

예주 오, 맛있다.

사이, 예주를 비추던 핀 조명이 꺼진다. 해영이 등장한다. 해영이 화장대 의자에 앉으면 다시 핀 조명이 켜진다. 해영, 거울을 바라본다. 출입문 방울 소리 들리면 예주, 퇴장한다.

해영 (활짝 웃으며)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딸기스무디 하나요. 사천오백 원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개 돌리며) 이십이 번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개 돌리며) 아, 바닐라라떼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개 돌리며) 이십 번 손님 바닐라라떼 시켰대요. 부탁드립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영 비추던 핀 조명 꺼지면, 예주가 닳은 크로키북을 들고 등장한다. 예주가 테이블에 앉으면 핀 조명. 연필 소리 한참 들린다.

예주 (한숨을 쉬며) 재미없다. (벌떡 일어나며) 클럽이나 갈까?

예주가 일어나면 핀 조명 꺼지고 조명이 천천히 밝아진다. 예주, 행거에 걸린 옷 몇 벌을 이리저리 몸에 대본다.

해영 (웃으며) 사장님, 저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듯이) 네? 아, 내일이요. 내일은 시간을 비워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해영이 퇴장하면, 예주가 옷을 갈아입는다. 예주, 화장대로 걸어가서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다가 퇴장. 사이, 해영이 택배 상자를 들고 등장한다. 해영, 매트리스 위에 널브러진 예주의 옷을 쳐다보다가 택배를 뜯는다. 상자 안에서 파티션을 꺼내서 편다.

암전.

3장

무대는 어둡다. 포장지 뜯는 소리가 들린다.

예주 (중얼거리며) 왜 이렇게 안 뜯겨.

사이, 커터 칼 소리 들린다. 포장지 뜯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조명 갑자기 밝아진다. 해영,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예주, 바닥에 앉아 포장지를 손에 들고 있다.

해영 뭐해요?

예주 매트리스요. 새벽 내내 끄꿍대길래.

해영 설마 뜯었어요?

예주 네, 새거라도 너무 오래 놔두면 습기 먹으면서 썩어요. 이거 냄새 나니까 제가 쓸게요. 언니는 원래 쓰던 거 써요. 침구 싹 갈아 놓을게요.

해영 (한숨을 쉬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거예요.

예주 오랜만에 클럽 가서 마셨어요. 왜요? 술 냄새 심해요?

해영 (일어나며) ...아니예요.

해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예주, 입고 있는 옷의 냄새를 맡는다. 겹옷을 벗고 매트리스 위치를 잡는다. 사이, 옷을 갈아입은 해영이 등장한다.

예주 (파티션을 가리키며) 근데 이거 뭐예요?

해영 공간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주 안 그래도 좁은 데 걸리적거리잖아요. 인테리어용으로 안 예쁘다고

해영, 의자에 앉는다. 의사, 마우스를 딸각거린다.

의사 저번에 진료 한 번 빼먹으셨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해영 그때 급한 일이 생겨서 카페에 나갔었거든요.

의사 그랬군요. 해영 씨가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피곤하거나 어지러우면 하고 있던 일을 당장 멈추고 몸이 쉴 수 있게 하셔야 해요. 또 커피나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해영 씨,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해영 최근에 잠을 좀 설친 것 같아요. 새로운 룬메가 생겼는데, (잠시 말을 멈추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나봐요.

의사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해영 (한참만에) 조금요.

의사 해영 씨는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민감해서 자극이 있었을 거예요. 약은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해영 아, 이번에 더 처방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의사,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두드린다. 해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인사하고 퇴장한다. 자판 소리 들리다가 푸른 핀 조명 꺼진다. 예주에게 핀 조명 비추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다. 매트리스 침구를 바닥으로 끌어내고, 옷장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핀 조명 따라간다. 예주가 옷장을 열어 이불을 꺼내면 약통들이 굴러 나온다. 예주, 약통 몇 개를 집어 테이블에 올려둔다. 뚜껑을 열어 테이블 위로 쏟는다. 알약 쏟아지는 소리.

암전.

4장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진다. 해영과 예주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 캔이 여러 개 있다. 예주, 손에 맥주 캔 들고 있다. 해영의 앞에는 머그잔이 있다.

예주 (느리게) 죄송해요. 언니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받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빨리 찾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늦어졌어요. 적당한 곳 찾았으니까 내일 나갈 거예요. (엎어질 듯 고개 숙이며)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해영 그런데 예주 씨는 돌아갈 집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집 아니에요?

예주 (분명한 목소리로) 언니, 저는 제가 원하는 집을 만들 거예요. (돌아서며) 살고 싶은 집이요. 그래서 건축학과에 진학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요. 들어가기 전부터 실례고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따뜻한 집. 본가에 제방에만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값비싼 땅에 단독 주택인데도 잘못 설계한 거죠. 여기도 빛이 잘 안 들어오던데. 언니는 계속 이 집에서 살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잖아요.

해영 (밝은 표정으로) 저는 여기가 좋아요. 십 년 동안 살면서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국내든 해외든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어요. 살고 싶은 집을 찾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언니 여행 가본 적 없죠. 집에 캐리어 하나 없던데.

해영 배낭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예주 그 말 진심이에요? 저한테 케리어 가방은 인생의 동반자예요.

사이, 예주가 맥주를 마신다.

예주 언니는 거짓말쟁이에요.

해영 갑자기요?

예주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영 (한 걸음 다가서며) 제가 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주 언니는 은혜 언니 관련된 것에만 솔직해지잖아요.

해영 (머뭇대며) 그랬나요.

해영, 머그잔에 남은 차를 다 마신다. 예주, 해영을 보다가 맥주를 마신다.

예주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쑥 감정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웃으며) 그때 되게 재밌어요.

예주, 테이블 위 새 맥주 캔을 집어 든다.

해영 (맥주 캔을 빼앗으며) 많이 취했어요.

예주 아, 맞아요. 저 취한 것 같아요. 언니, 저 휴대폰. 폰 좀 찾아주세요...
내일 아침에 건물주 전화 받아야 하는데 폰이 없어졌어요...

예주, 매트리스로 걸어가 위로 쓰러진다. 해영, 전화를 걸어 찾는다. 행거 쪽에서 진동 소
리 들린다. 화면에는 '피노키오'라고 떠 있다.

해영 (고개를 가웃하며) 피노키오?

해영, 예주의 전화를 받는다.

해영 아.

휴대폰에서 해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해영, 웃는다. 웃음소리가 연달아 두 번 들린다. 해영이 소리에 놀라 끊는다. 해영, 잠든 예주를 바라보다가 화면에 뜬 은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내역을 발견한다.

해영 예주야 전화를 왜 안 받니.

은혜(E) 예주야 전화를 왜 안 받니. 너 또 클럽이야? 나 다음 달에 오빠랑 같이 귀국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너 본가에 좀 들르라고 전해주라셨어. 이걸 온라인 청첩장. 해영이한테 전해줘, 부탁할게.

해영 (난감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면 시곗바늘 소리 한참 들린다. 사이, 푸른색 조명으로 서서히 밝아지며 시계 소리 끊긴다. 해영이 화장대에 앉아 있다. 예주, 뒤척이다 일어난다. 예주가 해영을 발견한다.

예주 언니, 지금 몇 시예요?

해영, 대답이 없다. 예주, 해영에게 걸어간다.

예주 어, 휴대폰 찾았네요!

예주가 해영에게서 휴대폰을 들고 가려 하고 해영, 손에서 놓지 않으며 돌아본다.

해영 이 문자 뭐예요? 언니가 다음 달에 온다는 건 뭐고, 어머니는 또 누구고, 청첩장은 뭐냐고요!

예주 그게 그러니까. (땀을 들인 후에) 은혜 언니는 이 집에 안 돌아와요.

해영 아니요, 여기는 은혜 언니 집이에요. 그 언니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예주 은혜 언니 저희 오빠랑 결혼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언니 집이 된 지 오래예요. 은혜 언니가 해외로 간 지 사 년이 지난 거 알아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

해영 없기는 뭐가 없어. 언니가 쓰던 것들 다 보관해 놨다고.

예주 그러니까, 그게 은혜 언니 것들이예요? 몇 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고 옷장 안에 방치해 놓은 게? 그냥 주인 없는 고물이야, 기한 지난 것들이라고요.

해영 그래,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너랑 달라. 더 이상 잃을 것조차 없다고!

예주 멋대로 판단하지 마요. 언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해영과 예주, 한참 서로를 쳐다본다. 시곗바늘 소리. 사이, 해영이 휴대폰을 화장대에 올려두고 퇴장한다. 예주,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캐리어 짐을 짬다. 사이, 푸른색 조명이 완전히 밝아지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예주 네, 지금 갈게요.

예주, 포스트잇에 메모를 적고 화장대 거울에 붙인다. 예주, 집을 둘러보다가 캐리어를 끌고 퇴장한다. 시곗바늘 소리. 사이, 해영이 등장한다. 예주가 쓰고 간 포스트잇을 본다.

해영 (느리게) 수면제는 적당히 먹어요. 저도 먹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현관문 차임벨 소리 들린다. 해영, 서둘러 문을 연다. 해영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상자를 뜯어 안을 바라본다. 시곗바늘 소리. 사이, 해영이 상자에서 캐리어를 꺼낸다. 시곗바늘 소리 점점 빨라진다.

암전.

5장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진다. 무대에는 테이블과 의자만 남았다. 의사와 해영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해영,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다. 옆에는 캐리어가 있다.

해영 선생님 은혜 언니 기억하세요?

의사 그럼요, 처음에 해영 씨랑 같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니 못 뵈지 꽤 됐네요.

해영 네, 언니가 해외에 발령 났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랑 오늘 결혼해요.

의사 어머, 축하할 일이네요. 해영 씨가 대신 인사 전해주세요.

해영 글썽요, 못 전해 줄지도 몰라요.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잠시 말을 멈춘 후)저랑 언니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언니는 봉사 활동을 하러 온 대학생이었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중학생이었죠. 언니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 맑고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외로움도 모르고 다정하고 단단하고.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며) 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개를 내리며) 제게 있어서 은혜 언니는 가족이었어요. 처음에 언니가 선생님이랑 건너 건너 아는 사이라면서 이 병원에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선생님, 저 그만 오려고요. 앞으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해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해영이 퇴장하면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사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다 한순간 조용해진다. 사이, 결혼 행진곡이 들리면 무대가 난색 조명으로 밝아진다. 예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손뺍 치고 있다. 사이, 해영이 캐리어를 끌고 등장한다. 결혼 행진곡이 찾아들면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예주, 해영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조명은 암전되고 예주, 해영에게 핀 조명. 해영, 나가려 한다.

예주 언니, 해영 언니! 신해영!

해영, 돌아본다. 해영과 예주 사이의 거리는 멀다.

예주 사진 찍고 가요.

해영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안 찍을래.

예주 찍고 싶으면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해영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예주 집에 찾아가면 문 열어 줄 거예요?

해영 응

예주 거짓말 그만해요.

해영 (열게 웃으며) 그래, 거짓말이었어. 문이 잠겨 있을 거야. 내가 없을 거

고. 집을 팔았거든. 매트리스, 화장대, 옷장이랑 테이블 전부 버렸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버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

예주 (한 걸음 다가서며) 이사했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 들린다.

하객(E) 구예주! 사진 찍는데. 안 들어오고 뭐 해.

예주 (돌아보며)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해영 어서 들어가 봐.

예주 (빠르게) 어디로 가는데요!

해영 (활짝 웃으며) 이제 찾아보려고.

해영, 캐리어를 끌고 나간다. 예주, 한참을 바라본다. 예주가 몸을 돌리면 안전.

막.

commentary

소원 동경 방향 미련 희망

고장난 알람 시계는 울지 않습니다. 긴 시간 같은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으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따라가기에 벅칩니다. 지나간 날만큼 울다 소리가 멎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웃습니다.

유하정

파라다이스 편의점

등장 인물 강현정(20대, 여)
 안지원(20대, 여)
 점장(50대, 여)
 손님 1
 손님 2

무 대 화사하게 꾸며진 대학가의 편의점. 왼쪽에는 계산대와 뒤편에는 담배 진열대가 놓여있다. 계산대 오른쪽에는 창고로 통하는 작은 문이 달려있고, 그 앞에는 출입문이 있다. 문의 위쪽에 달린 작은 종이 사람의 출입 시 종소리를 낸다. 무대 중앙에는 매대와 취식 공간인 2인용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놓여있다.

1장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편의점 내부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리고 있다. 이내 정적을 깨는 종소리와 함께 말쑥한 정장 차림의 현정이 편의점으로 들어온다.

현정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무도 안 계시나요?

편의점 안은 정적만 흐른다. 현정은 무대 앞을 어슬렁거린다.

현정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너무 일찍 왔나? 세 시간이나 일찍 온 건 좀 오
번가….

지원 (매대 뒤쪽에서 갑작스레 불쑥 튀어 오르며) 이제 오셨네요?

현정 으악!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란 현정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지원 괜찮으세요? 일부러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현정 (간신히 일어서며) 괜찮아요. 혹시 알바생이세요?

지원 아, 정식 알바생은 아니구요, 오늘부터 수습 기간 알바예요.

현정 수습 기간이요? 저도예요!

지원 그쪽도 어제 문자 받으셨죠? 혹시 이름이….

현정 강현정이라고 해요.

지원 저는 안지원이요. 한국대 다니시죠?

현정 어떻게 아셨어요?

지원 과감 보면 딱 알죠. 국문과 다니시네요.

현정 (쑥쓰러운 듯 웃으며) 네, 그쪽은 학과가.

지원 전 기계공학과요.

현정 공대생이시구나.

지원 아까 유리창으로 오시는 거 봤는데 뭔가 국문과일 것 같더라고요.

현정 정말요?

지원 (웃음을 참으며)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현정 잠깐. 아까 저 오는 거 봤으면 지원 씨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조끼는 또 어디서….

지원 (고개를 숙여 자신이 입은 파라다이스 편의점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보며) 아, 이거요? 저는 다섯 시간 전에 와 있었거든요.

현정 다섯 시간이요?

지원 눈도장 찍을 겸 해서 조금 일찍 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저더러 대타 좀 서달라고 조끼 넘기고 나가시더라고요.

현정 (놀란 표정으로) 정말 다섯 시간 전이요?

지원 준비된 알바생의 자세죠. (주위를 둘러보며) 계속 서 있지 말고 좀 앉아요. 어차피 아까부터 손님도 거의 안 와요.

현정 아, 네. (왼쪽 의자를 뒤로 밀며) 앉으세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는다.

지원 참. (의자에서 일어나 매대 뒤편에서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다) 이거 오늘 자정 지나면 버리는 폐기인데, 혹시 배고프시면 드실래요?

현정 고마워요. 저녁 거르고 오느라 배고팠거든요. (바구니에서 빵 하나를 고른다) 근데 어떻게 벌써 매대 정리를 할 줄 알아요?

지원 예전에 편의점 알바 해본 적 있어요.

현정 경험 있으시구나.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요.

지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요?
 현정 (멋쩍게 웃으며) 네. 좀 창피하긴 한데 사실 이번이 첫 알바 거든요. 초 짜라 떨리네요.
 지원 몇 학년이신데요?
 현정 저 삼 학년이요.
 지원 삼 학년인데 여태 안 해 보셨다고요?
 현정 (한숨을 쉬며) 실은 일 년 휴학했다가 이번에 복학해서 제 동기들은 지 금 다 졸업반인데 저만 삼 학년 신세예요.
 지원 휴학은 뭐 때문에 했는데요?
 현정 호주로 교환 학생이요. 근데 괜히 갔다 싶어요.

지원은 팔짱을 끼고 등반이에 비스듬히 기대 현정을 살짝 흘겨본다.

지원 해외여행 좋겠네요. 전 한 번도 안 가 봐서.
 현정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정작 영어는 별 로 안 늘었는걸요. 한국 적응 겸 사회생활 맛보기로 알바 지원했는데 얼떨결에 면접까지 와서 놀랐어요. 이 편의점 경쟁률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유학 경험에서 점수 좀 탄 것 같아요. 점장님이 외국 인 상대할 사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원 사회생활 맛보기요?
 현정 네?
 지원 (헛웃음을 치며) 아니에요. 말이 헛나왔어요. 며칠 전에 저도 아르바이 트 지원서 내러 여기 왔을 때 놀랐잖아요. 심야 시간대 모집이면서 무 슨 지원서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여 있대요?
 현정 그죠? 저도 놀랐어요. 수습은 두 명만 뽑는데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나 마 근처에 최저시급이라도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포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지원 혹시 지원서 몇 장 쓰셨어요?

현정 전 스물여섯 장이요.

지원 저는 서른여덟 장이요.

현정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지원서가 그 정도까지 써지던가요?

지원 (어깨를 으쓱하며) 뭐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썼죠. 컴활, 토익, 봉사 실적, 한능검, 학점, 신체 특기 사항, 가족관계, 향후 진로 계획서까지. 심지어 더 길게 써야 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 생기부도 떼서 체육 시간에 멀리뛰기 한 거랑 제 체력이랑 연관 지어서 썼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데 이런 쓸데없는 것도 써야 하는 게?

현정 그러니까요. 쓰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도대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데 한국사 시험이나 컴활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안 해 봐서 모르긴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냥 바코드 찍고, 거스름돈 거슬러 주고, 담배 찾아 주는 게 다 아닌가요? 전공 학점이랑 봉사 활동 여부가 편의점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어요. 고작 아르바이트하는 데 이렇게까지 지원서를 길게 써야 한다면 취직할 때는 진짜로 백 장쯤 써야 하는 걸까요?

현정은 말을 끝내고 바구니에서 또 다른 빵을 집는다.

지원 빵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빵 좋아해요.

현정 정말요?

지원 아까 들어오시기 전까지 빵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저 안쪽 깊은 데에 포켓몬 빵을 숨겨놨더라고요. 아마 낮에 들른 초딩들 짓인 거 같던데 마침 폐기이기도 하고 괴씸하기도 해서 제가 먹어 버렸어요.

현정 (빵을 먹으며) 요즘도 포켓몬 빵 인기 많아요?

지원 예전보단 식었다 하는데 그래도 인기 있어요. 애들도 애들인데 어른들은 왜 그런 걸 사 먹는지 몰라. 돈 아깝지도 않은가?

현정 다 추억이니까요. 그 시절의 추억을 사 먹는 느낌이라 딱히 돈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빵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전 왜 소리를 못 들었죠? 제 귀가 먹은 걸까요?

지원 (피식 웃으며)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소리 안 내고 움직이는 게 특기거든요.

현정 우와. 닌자 같아요.

지원 그래요? 닌자 같단 얘긴 처음 듣네요. 맨날 귀신 같다, 스토커 같다, 기분 나쁜단 소리만 들어서. 그거 좋은 뜻이죠?

현정 (손사래 치며) 그럼요. 전혀 나쁜 뜻 아니었어요. 뭔가 무림 고수 같은 느낌이랄까?

지원 (현정을 눈으로 살짝 흘기며) 칭찬치고는 신선하네요. 근데….

현정 네?

지원 (뜸을 들이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현정 말씀하세요.

지원 진짜 말해도 돼요?

현정 (살짝 웃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여요? 그냥 말해도 돼요.

지원 그 정장인지 양복인지 말이죠.

현정 (자신이 입은 정장의 재킷을 들어 올리며) 이거요?

지원 (웃음을 참으며) 설마 산 거예요?

현정 네. 며칠 전에 아울렛에서요. 왜요?

지원이 허리를 젓히며 힘껏 웃는다. 현정은 어리둥절하여 폭소하는 지원을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본다. 지원은 한참 웃다 겨우 진정한다.

지원 (눈가의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아 죄송해요. 너무 웃겨서.
 현정 뭐가요?
 지원 네?
 현정 제 웃이 뭐가 웃긴데요?
 지원 아까 유리창 너머로 봤을 때 그 생각했거든요. ‘머리하며 웃이며 구두며, 딱 봐도 아싸 문과생 그 자체구나.’ 하고요. 그래서 아까 국문과라고 하셨을 때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현정은 할 말을 잃고 지원을 쳐다본다. 현정이 지원에게 뭐라 하려던 찰나, 종이 딸랑 울리는 소리와 함께 점장이 들어온다.

지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점장님 오셨어요?
 현정 (엉거주춤 일어서며) 오셨어요?
 점장 현정 학생도 빨리 왔네? (현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오늘 정장 입고 일하기는 좀 힘들 텐데.
 현정 (당황하며) 아 그게...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지원 (현정의 말을 끊고) 그러게요. 일반 회사 면접도 아니고, 좀 웃기긴 하죠.

사이. 현정이 지원을 흘깃 쳐다본다.

점장 신발은 편해 보이네. 현정 학생, 괜찮겠어요?
 현정 네!
 점장 다행이네. 둘 다 빨리 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지원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점장 아, 우리 딸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고 씻겨주고 잠자리 봐주느라고 좀 있으면 잘 시간이거든.
현정 아. 따님이 많이 어리시구나. 그럴 수 있죠.
지원 아직 아이니까요. 한창 엄마 손길 필요할 때죠.
점장 뭐?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학생들이랑 거의 비슷해. 올해 대학 입학 했거든. 하긴 나한테 여전히 아기지만.

현정과 지원이 서로 마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현정 그럼... 따님이 성인인 거죠?
점장 그렇지. 올해 스무 살. 참! 학생 둘 다 한국대 다니지?
현정, 지원 (동시에) 네.
점장 잘됐네.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린데 학생들이랑 친구하면 되겠네.
현정 (마지못해 대답하며) 네. 그럼 좋겠네요.
지원 잘됐죠. 저도 친구 없었는데.
점장 어머 내 정신 좀 봐. 조끼 쥐야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조끼 가져올게.
지원 제가 가져올까요?
점장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어차피 나 우리 딸 재우러 다시 가봐야 하니까 괜찮아. 둘이 얘기하고 있어.

점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현정과 지원의 눈이 마주친다.

지원 허! 스무 살? 얘기?
현정 처음엔 무슨 유치원생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점장님도 대단하시네요.

지원 대단하긴 하네. 그 나이 되도록 엄마가 씻겨주다니.
 현정 (한숨을 쉬며) 좀 부럽긴 하네요.
 지원 부럽다고요? 저게?
 현정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 주니까...
 지원 저 나이 되도록 극성인 건 징그러운 거죠. (몸서리 치며) 난 절대 싫어.

점장이 창고에서 조끼를 가져온다. 현정과 지원은 대화를 중단하고 점장을 향해 공손한 자세로 선다.

점장 (현정에게 조끼를 건네며) 창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찾는 데 시간 좀 걸렸네. 지원 학생. 좀 있다 시간 되면 창고 정리 좀 부탁해요.
 지원 당연하죠.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현정 (조끼를 입으며)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점장 문자 받았죠?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부득이하게 수습 기간이라도 면접처럼 진행하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수습 기간 거친 후에 둘 중 고객 만족도 더 높은 사람 하나 뽑는 걸로.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도 똑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불만 가지지 마요. 심야 시간대는 오히려 나온 편이에요. 제일 인기 많은 오후 시간대는 다섯 명에서 수습 기간 가지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붐 잡은 거지. 안 그래?
 지원 그렇죠. 붐 잡은 거죠. 둘 중 하나잖아요. 더 간절한 쪽이 살아남느냐 아님 도태된 쪽이 떨어지느냐. 명확하니 좋네요.
 현정 (불안한 눈치로 지원을 흘깃 보며) 그런 셈이죠...
 점장 지금 심야 시간이라 손님도 많지 않을 테니까 먼저 안 날리게 가게 청소하고, 손님 오시면 친절하게 계산 도와드리고, 손님 취식 후에 테이블 청소하는 정도? 별거 아니에요. 포스기는 사용할 줄 알죠?
 현정 (천천히 손을 들며) 저...

점장 응? 왜요.
 현정 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포스기를 사용할 줄 몰라요.
 점장 아 맞다. 학생 유학과라 아르바이트 처음이라고 했지? 깜빡했네. 그럼 지원 학생.
 지원 제가 가르칠게요.
 점장 지원 학생이 경험이 많아서 다행이야. 지원 학생은 포스기 기능 다 익혔죠?
 지원 그럼요. 포스기는 눈 감고도 다 외우죠.
 점장 지원 학생. 그럼 혹시 학생이 일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딸 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야. 몇 시간 전부터 일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지원 필요. 부족한 사람 가르쳐 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지원의 말에 현정이 불편한 기색으로 지원을 쳐다본다.

점장 그래. 둘 중 하나라도 할 줄 아니 다행이야. 그럼 지원 학생, 잘 부탁해요.
 지원 어서 다녀오세요. 가게 잘 보고 있을게요.
 현정 (다급한 말투로) 어서 다녀오세요. 저도 가게 잘 보고 있을게요.
 점장 학생들이 푹푹해서 안심되네. 꼭 우리 딸 보는 것 같아. 그럼 혹시 비상 상황 생기면 나한테 문자 해요. 전화는 우리 딸 예민해서 깨니까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말고.
 현정, 지원 (동시에) 네!
 점장 아 참!

현정과 지원이 동시에 점장을 쳐다본다.

점장 그 시시티브이로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현정 (손사래를 치며) 당연히 안 훔치죠!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점장 (째째한 표정으로) 뭐 어차피 집이 편의점이랑 같은 건물이라 금방 다
시 올 거니까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현정, 지원 (동시에) 다녀오세요!

점장 수고해요.

점장이 편의점 밖으로 퇴장한다.

지원 점장님은 우리가 물건이나 훔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현정 그러게요. (지원의 눈치를 보며) 저 지원 씨.

지원 네?

현정 저 포스기 쓰는 법 좀 알려 주세요.

지원 (건성으로 대답하며) 아, 그거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워 봐요.

현정 네?

지원 (귀찮은 말투로) 저도 다 그렇게 했어요. 원래 포스기 일일이 잘 안 가
르쳐 줘요. 대충 눈치 보고 익히는 거지.

현정 그래도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지원 (한숨 쉬며) 휴대 전화 좀 줘봐요.

현정이 지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준다. 지원은 현정의 폰으로 ‘포스기 사용법’을 검색해 현정에게 돌려준다.

지원 자, 이거 찬찬히 읽어보고 해봐요. 저 참고 정리해야 하니까.

현정 네? 그래도 점장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

지원 어차피 편의점은 저녁엔 조용해서 사람 거의 안 와요. 얼른 정리하고 알려줄 테니까 일단 계산대 앞에 그냥 서 있어요.

현정 네….

지원이 창고로 들어가고 현정이 주뻗대며 계산대에 선다. 잠시 후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며 귀에 헤드셋을 낀 손님 1이 들어온다.

현정 (허리 굽혀 인사하며) 어서 오세요!

손님 1이 현정의 인사를 무시한 채 곧장 계산대 앞으로 향한다.

손님 1 에썸 하나 주세요.

현정 (당황해하며) 네?

손님 1 (헤드셋을 벗으며) 에썸 하나 달라고요.

현정 네!

현정은 자신의 뒤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에썸을 찾으려 하지만 잘 찾지 못한다.

손님 1 아니 저 오른쪽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요.

현정 (왼쪽 밑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며) 이거요?

손님 1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른쪽이라구요.

현정 (손을 허우적대며) 혹시 담배 포장에 무슨 색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1 파란색이요. (핸드폰을 쳐다보며) 빨리 좀 찾아주실래요?

현정 (오른쪽 위 방향에서 파란색 담배 한 갑을 꺼내며)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님 1 아,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 무슨 아르바이트가 예뻐 하나를 못 찾아?
 (투덜대며) 아르바이트가 뭐 이래? 사장 나오라고 해!
현정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수습 기간이라 아직 익숙하지
 가 않아서요.

이때 창고에서 지원이 나온다.

지원 (손님 1과 현정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손님 1 아니, 무슨 아르바이트가 이래? 담배 하나를 제대로 못 찾아.
현정 (허리를 숙이며) 정말 죄송...
지원 (현정의 말을 자르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일이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현정 씨, 잠깐 비켜봐.

현정이 주눅 든 표정과 움츠러든 자세로 지원이 담배 진열대 앞으로 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고, 옆에서 지원이 담배 고르는 걸 지켜본다.

지원 (진열대에서 담배를 고르며) 아까 안에서 잠깐 들었는데, 예뻐라고 하셨죠?
손님 1 네.
지원 (오른쪽 밑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며) 여기 있네요.
손님 1 이렇게 쉽게 찾는걸. (현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애 뭐예요? 사람복장 터지게 하고.
현정 (연신 허리를 숙이며) 정말 죄송...
지원 (다시 현정의 말을 끊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현정이 고개를 숙인 채로 지원을 흘끗 흘겨본다.

손님 1 아니, 죄송하면 다야? 아르바이트 상태 왜 이래? 여기 점장 없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원 지금 자리를 비우셨어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수습 기간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어서 헛갈렸나 봐요.

손님 1 (손을 휘휘 저으며) 아 됐고, 그냥 빨리 계산이나 해 줘요.

지원이 팔꿈치로 현정을 툭툭 치며 포스기를 쪽으로 고개를 까딱거린다.

현정 (얼떨결에 포스기 쪽에 서며) 아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1 빨리 좀 해줘요.

현정 (바코드를 찍으며) 총 사천오백 원입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1이 카드를 내밀고, 현정이 두 손으로 받아 든다.

현정 (카드를 포스기에 연신 긁는다) 어라?

손님 1 (짜증을 내며) 이번엔 또 왜요?

현정 이게 결제로 안 넘어가서...

손님 1 이거 아까 전까지 잘 되던 카드데? 다시 한번 제대로 긁어 봐요.

현정이 다시 여러 번 카드를 긁지만, 여전히 결제되지 않는다.

손님 1 아르바이트가 허접해서 카드도 잘 안 긁히나 보네.

현정이 손님 1의 타박에 울먹거리며 계속해서 카드를 긁는다. 지원이 현정을 옆으로 밀쳐

내고 카드를 리더기에 꽂는다.

지원 (옆에 있는 현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포스기에 긁는 게 안되면 리더기에 꽂아 보는 게 상식이예요.

손님 1 진짜 가지가지하네. (현정 쪽으로 손가락을 탁탁 튕기며) 어이 거기!

깜짝 놀란 현정이 숙였던 고개를 든다.

손님 1 (현정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확인하며) 강현정? 여기 뭐 서비스 만족 조사 그런 거 없어요?

지원 (포스기 옆의 안내 포스터를 가리키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직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하실 수 있으세요.

손님 1이 지원이 안내한 포스터를 휴대 전화로 찍는다.

지원 (담뱃갑을 손님에게 내밀며) 결제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1 (담뱃갑을 확 빼앗아 들며) 강현정... 이름 딱 기억해둔다.

손님 1이 퇴장한다. 현정이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다. 지원은 포스기 안의 현금을 센다.

사이

지원 그러게 일찍 일찍 좀 익혀 두지 그랬어요. 포스기 조작 쉬운데.

현정 (지원을 쨌려보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원 (코웃음 치며) 뭐라고요?

현정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부터 나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은근 눈치 주고
말 자르고. 포스기 작동도 제대로 안 알려 주고 카운터에 세워 두는 게
어딴데요?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 (이마를 짚으며) 저기요. 강현정 씨.

현정이 지원 쪽으로 몸을 돌린다.

지원 강현정 씨가 뭘 모르나 본데. 여기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데예요. 그
쪽은 잘 모르겠지만.

현정 무슨 뜻이에요?

지원 그러니까, 각자도생이라고요. 각자 살아남는 거. 아까 점장님 말씀하
시는 거 못 들었어요? 둘 중 하나만 뽑는 다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사
정 급한 거 누가 몰라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얻자고 별 생쇼를 한
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쪽은 잘난 유학까지 다녀오신 몸이라 사정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번 학기 이 아르바이트 못하면 생활비
빵원으로 학교 다녀야 해요. 당신한테 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냥 사
회생활 맛보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간절하대구요.

사이.

현정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아까 고객 만족 서비스 알려주신 건 너무했어
요. 차라리 그냥 저를 자르라고 고사를 지내지….

지원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쪽이 자진해서 나가든 아까 손님
한테 항의 걸려서 잘리든 여기서 나가주길 바랐어요.

현정 (사이) 뭐요?

지원 아니, 딱 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 정장 차려입고 온 것만 봐도

어병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 더 솔직히 말하자면...

현정 뭐요!
지원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그냥 내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거든.
현정 (흥분한 목소리로) 나도 나름 열정 가지고 이 일 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쪽 사정은 그쪽 사정이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이때 손님 2가 문을 열고 등장한다. 두 사람은 서둘러 고개 숙여 인사한다.

현정, 지원 (동시에) 어서 오세요!

손님 2가 두 사람의 우렁찬 인사에 흠칫 놀라고, 이내 진열대 쪽으로 이동한다.

현정 (작게 속삭이며)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해요.
지원 그럴 일 없을걸? 어차피 그쪽 오늘 안에 잘릴 것 같은데.
현정 뭐?

손님 2가 현정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 현정과 지원 쪽을 바라본다. 현정은 손님 2를 향해 허리를 숙인다.

현정 죄송합니다.
지원 (현정에게 속삭이며) 저 손님도 컴플레인 거는 거 아니야? 하는 거 보니 오늘이 아니라 한 시간 안에도 잘릴 것 같은데. 잘 좀 해봐.

현정이 다시 소리치려다 손님 2쪽을 쳐다보고 참는다. 지원은 천연덕스럽게 포스기 안의 현금을 센다. 현정은 계산대에서 나와 손님 2에게 다가간다. 손님 2는 진열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현정 (손님 2에 몸을 숙이며)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손님 2 (화들짝 놀라며) 네? 아뇨, 괜찮아요.
 현정 아까부터 찾으시는 거 못 찾으신 것 같아서요. 저한테 찾으시는 물건 말씀하시면 제가 창고에서라도 꺼내올 수 있거든요.
 손님 2 (당황하며) 아니 괜찮아요.
 현정 그럼 저는 여기 가까이 있을 테니까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제가 금방 도와드릴게요.
 손님 2 아, 네.

현정은 손님 2와 세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손님 2의 행동을 살핀다. 지원이 계산대에서 나와 현정의 근처로 다가간다.

지원 무슨 편의점에서 손님을 졸졸 따라다녀? 손님 부담스럽게.
 현정 아니, 그쪽이 아까 도발하니까 나도 뭐 좀 해보려고 그런 거지. 참견 말고 저리 가세요. 나도 내 방식대로 이 자리 따낼 거니까.
 지원 (코웃음 치며) 그래서 잘도 하겠네.
 현정 그쪽은 뭐, 뽀족한 수 있어?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데, 그쪽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데?
 지원 (팔짱을 끼며) 발상의 전환.
 현정 발상의 전환?
 지원 손님이 아르바이트한테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손님의 니즈를 파악하고 먼저 가져다줘야죠.
 현정 먼저 가져다준다고? 어떻게?
 지원 이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 세 가지 중 하나지. 급하게 떨어진 생필품, 약 아니면...

현정 아니면?
 지원 먹을 거.
 현정 에이 뭐야. 생필품, 약, 먹을 거. 이 세 개가 편의점에 있는 모든 물건 아
 닐까? 무슨 도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춰?
 지원 근데 저렇게 우물쭈물대는 사람은 보통 먹을 거지. 생필품이나 약은
 목적이 확실하잖아. 간식거리의 편의점에서 사니까 더 싼 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꾸물거리지. 나 하는 거 잘 봐.

지원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빵과 젤리, 과자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손님 2에게 다가간다.

지원 손님!
 손님 2 (화들짝 놀라며) 네?
 지원 (창고에서 갖고 나온 것을 내밀며) 아까부터 뭐 찾으시던데, 혹시 이게
 맞으실까요?
 손님 2 예?
 지원 계속 쪼그리고 앉으셔서 만지시던데. 간식거리 찾으시는 거 아니었어
 요?
 손님 2 저, 그게….

현정이 지원과 손님 2 곁으로 다가간다.

현정 (지원에게 몸을 숙이며) 딱 보니까 그쪽도 아닌 것 같은데? 지는 뭐 잘
 났다고. 누가 누굴 설교해?
 지원 야!
 현정 뭐!

손님 2가 두 사람의 소리에 놀라 주저앉는다. 동시에 점장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다.

점장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이. 지원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현정과 함께 다급히 허리 숙여 인사한다. 손님 2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다.

지원 오셨어요?

현정 어서 오세요!

지원 (현정을 팔로 툭 치며) 야! 정신 차려.

현정 오, 오셨어요?

점장 아니, 아르바이트 맡겼더니 손님 앞에 두고 그새 짬박질이나 하고 있어?

지원 저 그게 오해예요. 저는 손님 물건 찾는 거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애가 저를 방해해서...

현정 (손사래를 치며) 아니예요! 재야말로 저를 놀려서...

손님 2 둘 다 그만 좀 해요!

손님 2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난다.

손님 2 진짜 사람 쪽팔리게 만들고, 저리 비켜요!

손님 2가 세 사람 사이를 헤치고 밖으로 퇴장한다. 손님 2가 떠난 자리에는 콘돔 상자가 놓여 있다. 세 사람은 잠시 콘돔 상자를 내려다본다. 이윽고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본다.

암전.

2장

무대에 불이 켜진다. 계산대에는 점장이 홀로 서 있다. 시계는 저녁 아홉 시를 가리키고 있다. 점장이 휴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점장 (잠시 뜸을 들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일주일째 혼자서 계산대 보고 있다니까? 어휴 암전하게 생긴 애들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잠시 멈추고) 어떻게 됐기는! 진즉에 둘 다 내쳤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야. 내가 개네 뭐 흠칠까 봐 우리 딸 재우고 집에서 시시티브이로 가게 보고 있었거든? 처음에는 둘이 잘 보더니 갑자기 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손님 두고 소리 뽁뽁 지르고. (몸서리를 치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둘이 붙여놓고 경쟁시키면 더 잘하려고 노력할 줄 알았더니만. 앞으로는 대학생 안 쓰려고. (잠시 뜸을 들이고) 앞으로는 좀 믿을만한 사람을 써야지. 이제 생판 남은 잘 못 믿게 되더라. 응, 응.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어 알겠어. 끊어~

점장이 전화를 끊고 휴대 전화 화면을 만지다 황급히 다시 귀에 휴대 전화를 갖다 댄다. 상대가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점장이 굽신거리는 자세를 취한다.

점장 우리 애기, 엄마한테 전화했어? (휴대 전화를 잠시 귀에서 멀리한다)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친구 정애 이모 알지? 그 이모랑 통화하

느라 우리 공주 전화를 못 받았어. 미안해. 용서 좀 해 주라. 응? 우리 공주는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는 더 이쁘잖아. 응? (사이) 저기 얘기가. 엄마가 우리 애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다시 휴대 전화를 귀에서 멀리한다) 아휴, 성질내지 말고 좀 들어봐. 이제 애기도 엄마 없이 돈도 벌구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예행연습한다 치고 한번 도전해 봐. 정 불안하면 엄마가 옆에서 우리 애기 일하는 거 도와주면 되지. (잠시 뜬 들이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고 엄마한테 얘기해 줘. 응, 당연히 엄마는 우리 공주 사랑하지, 응….

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무대의 조명도 함께 천천히 열어지다 완전히 암전.

막.

commentary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한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작가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해 온갖 사건들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반대죠.

주변 사람들이 작가에게 캐릭터와 사건을 제공합니다. 작가는 그저 잘 지켜보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야기의 소재를 주변인들의 삶 속에서 찾아내죠.”

가장 막막했던 시기의 경험이 이 작품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창작의 양분이 되어 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유리

백오십 원의 행복

등장 인물	김진(24세, 여자) 휴학한 대학생. 기본 예의만 지키는 인물. 최순례(78세, 여자) 가정주부, 저렴한 물건을 좋아하고 회원 포인트를 꾸준히 모은다. 마트 사장 주인공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장으로 갑을 관계
때	저녁
무 대	동네 마트

입구는 무대 왼편이며 출구는 오른편이다. 계산대는 입구와 붙어 위치한다. 뒤에는 마트에 파는 물건들이 그림으로 붙어 있다. 몇 개의 물건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다. 라면 몇 봉지와 설탕 같은 것들이 같이 진열되어 있다.

1장

조명이 켜지고 김진이 무대로 등장한다. 김진은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 김진은 손님을 기다리며 계산대에 서서 종량제 봉투를 접는다. 저녁 시간의 마트는 몇몇 손님이 가끔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고요하다. 종량제 봉투를 어느 정도 접고 손님이 안 오자 김진은 계산대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다.

마트 사장이 무대에 등장하고 김진의 옆으로 가 말을 건다.

마트 사장 손님 안 오면 앉고 그래도 되는데 내가 강조한 게 뭐였지?
김진 친절이요.
마트 사장 그래, 친절하면 돼. 여기가 동네 마트라서 그게 중요하거든. 손님은 왕이야, 알겠지?
김진 네.

김진은 단답형으로 말한다. 마트 사장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짓지만, 딱히 트집 잡지 않는다.

마트 사장 그리고 여기 물건 정리 틈틈이 해야 해, 편의점 냉장고 아니거든. 손님들 미지근한 음료 같은 거 싫어하니까 계속 확인해서 차가운 거 앞으로 진열하고. 알지?
김진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마트 사장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무슨 일 생기면 나 부르지 말고, 최대한 알아서 해결해.

김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마트 사장은 별말 없이 퇴장한다.

김진은 마트 사장이 자리를 비운 후 잠시 매장 내에 있는 시시티브이를 응시한다. 김진

할머니 그럼 이 설탕은? 이 주전부리는? 다 각각 얼마야?

김진은 처음에는 대답을 해 주다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든다.

할머니 그래서 이게 다 얼마라고?

김진 (귀찮다는 듯이) 만삼천오백 원이요.

할머니 아니, 몇 개 샀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휴, 우유는 며칠 사이에 삼백 원이나 올랐네.

김진 그러게요.

할머니 비싸서 못 사 먹겠네, 잠시만 기다려 봐.

할머니가 무대 밖으로 퇴장하고 잠시 뒤 손에 어포 튀각을 든 채로 들어온다.

할머니 이건 행사 상품이지? 얼마야?

김진 (바코드를 찍으며) 삼천칠백오십 원이요.

할머니 삼천칠백오십 원? 옆에 마트는 삼천육백 원이던데. 다시 찍어봐, 잘못 된 거 아니야?

김진 (다시 바코드를 찍으며) 삼천칠백오십 원이에요.

할머니 그럴 리가 없는데, 확실해?

김진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찍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사장님께 물어볼까요?

할머니 아니, 됐어. 그거 튀각 빼고 계산해 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래도 돈이 얼마야?

김진 네, 쓰레기봉투 필요하세요?

할머니 됐어, 집에 많아.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꺼내 계산한 물건들을 담는다. 물건을 다 담고는 아무 말 없이 김진을 쳐다보다 손을 내민다.

할머니 영수증은 줘야지.

김진 아, 네……. (영수증을 건네며)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는 장바구니와 영수증을 모두 챙겨 무대 밖으로 퇴장하다, 다시 무대로 들어온다.

할머니 맞다, 포인트 적립해 줘야지.

김진 (포스기를 만지며) 아, 네. 적립 번호 알려 주세요.

할머니 3247.

김진 네, 적립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가 완전히 무대 위에서 퇴장한다.

김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 전화를 만진다. 휴대 전화를 만지면서 한숨을 쉬고 무대 조명이 꺼진다.

2장

조명이 켜지고 김진이 무대에 등장한다. 1장 때와는 다른 차림의 옷을 입고 있다. 흰색 반팔 티에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이다. 김진은 집에서 금방 나온 듯 더러워진 슬리퍼를 신고 있다. 김진은 계산대에 서서 종량제 봉투를 연속해서 접는다. 봉투를 열 개 이상 접고 난 후에는 가만히 서 있다.

김진 집에 가고 싶다, 눕고 싶다, 자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김진이 몇 마디를 내뱉은 후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자마자 할머니가 손님으로 등장한다. 김진이 출입문을 쳐다보다 바로 자리에 서 일어난다. 할머니의 손에는 어포 튀각이 들려 있다.

김진 어서 오세요.

할머니 (어포 튀각을 내밀며) 이거, 아직도 3,750원이야?

김진 잠시만요, 제가 찍어 보고 말해드릴게요. (바코드를 찍으며) 네, 삼천칠백오십 원이에요.

할머니 여긴 왜 그렇게 비싸?

김진 그건, 저도 아르바이트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행사 상품이라서요, 원래 오천이백 원인데 지금 할인하는 거예요.

할머니 옆에 마트는 삼천육백 원인데?

김진 (한숨을 쉬며) 네, 근데 이게 가게마다 가격이 달라요.

할머니 (어포 튀각을 내밀며) 이거 같은 물건 아니야?

김진 맞는데요, 이게 가게마다 가격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나아 모르지.

김진은 고민하다 휴대 전화를 들고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 수신음이 다섯 번 정도 울리고 마트 사장은 전화를 받는다.

김진 사장님, 어포 튀각 삼천칠백오십 원 맞나요? 바코드 찍으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더 할인하고 있나 해서요.

마트 사장 그렇게 나오면 그런 거지. 왜?

김진 옆에 마트는 삼천육백 원이라고 해서요.
 마트 사장 그냥, 삼천칠백오십 원이라고 해. 이런 건 알아서 잘 좀 해봐.
 김진 네.

김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할머니를 쳐다본다. 할머니는 어포 튀각을 들고 답답해 한다. 김진은 할머니에게 다시 설명한다.

김진 손님, 저희 매장은 어포 튀각이 3,750원 맞아요. 이게 가게마다 물건 납품하는 업체도 다르고 그래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네요.
 할머니 그래도 그렇지. 이 물건은 여기서 사고 다른 거는 옆에서 사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 몇 개만 싸게 팔지 말고 아예 다 싸게 팔든가 해야지.
 김진 (어색하게 웃으며)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 어휴, 그럼 내가 다른 것도 같이 살 테니까 그냥 여기에도 이제 3,600원에 팔아. 사장한테 그렇게 말 좀 해 봐.
 김진 네, 할머니. 근데 그냥 어포 튀각은 다음부터 옆 가게에서 그냥 사세요.

김진은 마트 사장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할머니는 어포 튀각을 계산대에 그냥 내려놓는다.

할머니 (화난 목소리로) 아르바이트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내가 여기 마트만 이십 년을 넘게 다녔는데, 아가씨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겠어.
 김진 아,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마트 밖을 나가 버리고 무대에서 퇴장한다.

김진은 잠시 한숨을 쉬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가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김진

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다.

마트 사장이 무대 위로 등장하고 김진은 다시 의자에서 일어선다.

마트 사장 아까 그 손님 어떻게 됐어?

김진 가격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안 산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마트 사장 (표정을 찡그리며) 자주 오시는 분이야?

김진 어제도 오시긴 했는데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십 년 이상 단골이
라고 하시는 할머니셨어요.

마트 사장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긴 한데, 어떻게 생겼어?

김진 그냥 보라색 외투 입으신 것만 기억나요.

마트 사장 그 식당 하는 할머니인가? 아, 그 할머니 좀 그런데. 알아서 좀 설득하
지, 그랬어.

김진 말이 잘 안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마트 사장 그 할머니 또 나한테 화낼 텐데, 알아서 해결해.

김진 네.

마트 사장이 무대에서 퇴장하고 김진은 짜증 내며 다시 의자에 앉는다. 조명이 꺼진다.

3장

조명이 켜지고 어수선한 목소리가 겹쳐 들린다. 할머니 여러 명의 목소리다.

소리 저기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럼 그냥 옆 마트 가자. 사장한테는 미안하
지만, 뭐 우린 옆 마트도 이웃인 걸 어찌.

소리의 주인공들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사라진다. 무대는 김진이 혼자 앉아있다. 곧이어 조명이 다시 꺼진다.

조명이 켜지고 김진과 마트 사장이 함께 무대에 등장한다. 마트 사장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오며 김진에게 말을 건넨다.

마트 사장 오늘 그 할머니 다시 왔어?
 김진 아니요.
 마트 사장 이러다 단골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몰라.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많이
 와?
 김진 네, 근데 할머니 손님들이 잘 안 오세요.
 마트 사장 그 손님이 다 말하고 다닌 거 아냐? 어포 튀각이 얼마데?
 김진 3,750원이에요. 옆 마트는 3,600원이고요.
 마트 사장 가끔은 좀 비쌀 수도 있는 거지, 백오십 원이 뭐라고.

마트 사장이 혀를 차며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김진은 계산대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

김진 그러게…… 백오십 원이 뭐라고. 요즘에는 동전도 안 쓰지 않나? 나중
 에 십 원짜리 모아서 계산만 안 하면 다행이지. 시급도 십 원 단위고,
 어휴. 내가 알바생이지, 사장인가. 가게 망하면 본인 손해지. 나한테 어
 쩌라고. 빨리 그만둬야겠다, 여기 알바생 자주 구하는 이유가 있었네.

김진의 말이 끝나고 할머니 손님이 들어온다. 김진을 힐끗 찌려보며 허리를 굽히고 뒷
 짐을 지고 있다.

김진 어서 오세요. (혼잣말로) 또 오셨네, 또 오셨어.
할머니 뭐라고?
김진 (어색하게 웃으며) 편하게 둘러보시라고요.
할머니 싱겁긴.

할머니가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김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다. 다른 손님이 왔을 때는 항상 서 있다.

김진 왜 또 오신 거야? 안 오신다더니.

할머니가 우유와 라면을 들고 계산대에 온다. 김진은 할머니가 계산대에 오고 나서야 의자에서 일어난다. 계산대 위에 놓인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 김진. 할머니는 김진을 쳐다보다 물건을 받고 장바구니에 넣는다.

할머니 오늘은 또 얼마야?
김진 팔천 원이요.
할머니 왜 또 돈이 올랐대? 내가 올 때마다 돈 일부러 올리는 거 아니야?
김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올랐어요.
할머니 그럼 오를 거라고 미리 사라고 말을 해 줘야지, 나 원 참.
김진 할머니가 안 오셨잖아요.
할머니 내가 돈이 있어야 오지.

할머니는 김진에게 현금 팔천 원을 건넨다. 김진은 할머니의 돈을 받고 적립 번호를 알아서 입력한다. 영수증까지 할머니에게 준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고 구겨 주머니에 넣는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무대 밖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할머니가 무대에서 사라질 때쯤 잠시 뒤돌아서 무대로 나온다.

할머니 아가씨, 근데 어포 튀각이 얼마라고?

할머니가 퇴장하고 마트 사장이 무대에 등장한다. 마트 사장은 김진에게 다가가 종이를 건넨다.

김진 이게 뭐예요?

마트 사장 가격 바뀐 거 다 끼워 넣으라고, 매일 종이 뽑기도 귀찮다 이제.

김진 그럼 다 가격이 오른 건가요?

마트 사장 그럼 내리겠냐, 뭐 하나쯤은 내린 것 같기도 하다.

김진 네…….

마트 사장 어휴, 그놈의 어포 튀각. 맞다, 개만 내렸어. 하도 난리를 쳐서는.

김진 얼마인데요?

마트 사장 옆 마트가 3,600원이니까 우리는 3,590원으로 가는 거야.

김진 아, 네.

마트 사장 옆 마트 사장도 얼마나 깡죽거리던지, 할머니 손님들이 다 거기서 갔다나 뭐라나. 넌 뭐 아는 거 없어?

김진 몰라요.

마트 사장 내가 뭐랬어? 손님은?

김진 왕이요.

마트 사장이 무대에서 퇴장한다. 김진은 마트 사장이 퇴장하자마자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아서 바뀐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보는 김진.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다.

김진 제발, 시급도 올려 주시죠, 사장님. 물가 오른다고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들 나한테만 난리인지. 누가 보면 내가 올린 줄 알겠어.

(사이) 우유 또 올랐던데 할머니 또 화내시겠네. 그래도 뭐 튀각은 내렸습시다.

김진은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물건 앞에 붙인다. 물건에 붙은 가격이 관객들에게도 보이는 크기다.

할머니가 무대로 다시 등장한다.

김진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인사를 무시하고) 아가씨, 어포 튀각 아직도야?
김진 가격이요?
할머니 그럼 뭘 묻겠어?
김진 아, 그거 가격 백육십 원 내렸어요.
할머니 응? 백육십 원은 또 뭐야.
김진 그러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르바이트생이 모르면 누가 알아?
김진 그냥 옆 가게보다 조금 더 싸요. 삼천오백구십 원이요.
할머니 그 숫자는 뭐야, 그럴 거면 삼천오백 원에 그냥 줘.
김진 죄송해요.
할머니 안 되겠어, 옆집 사장한테 말해야지. 뉴스만 봐도 뭐 마트들이 자기들끼리 가격 내리는데.
김진 거긴 대형마트라서 그래요, 가격 보장제 이런 게 동네 마트에는 없어요.
할머니 말해 봤자, 난 모르고.

김진은 표정이 구겨진다. 친절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혼잣말로 말한다. 할머니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 한숨을 쉬는 김진.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김진 할머니, 그래서 어포 튀각 사실 거예요?
 할머니 고민 좀 해 보고, 아직 집에 있어서.
 김진 그럼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어포 튀각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고.
 할머니 꼬투리? 말버릇이 왜 그래?
 김진 저도 참다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장도 아니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할머니도 식당 하신다면서요.
 할머니 그게 뭐?
 김진 제가 할머니 손님으로 와서 그래 봐요. 화 안 나세요?
 할머니 당연히 화나겠지, 나는 나가라고 내쫓을 거야.
 김진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할머니 아가씨는 그러면 안 돼.
 김진 왜요?
 할머니 지금은 내가 손님이잖아, 나이도 한참 어리면서. 그리고 나는 식당 주인이고 아가씨는 직원인데.
 김진 (한숨을 쉬며) …….

김진과 할머니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마트 사장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마트 사장은 김진을 지나쳐 할머니의 뒤에 선다. 마트 사장을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한다.

마트 사장 (할머니의 두 손을 잡으며)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할머니 이게 누구야, 왜 요즘 없어?
 마트 사장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은, 마트에 물건 사러 오지. (김진을 쳐다보며) 마트 사장이 계

산할 때가 좋았는데.

마트 사장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 무슨 일은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이 무섭네.

마트 사장 왜요? (김진을 보며) 뭐 잘못된 거 있어?

김진 아니요.

할머니 아니, 뭐. 아가씨는 잘못 없지. 그냥 내 잘못이야.

마트 사장 이 동네 천사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해요.

할머니 뭐, 나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 (표정을 찡그리며) 아무래도 내가 죽을 때가 됐어.

김진은 할머니의 말에 기가 찬 듯 바람 빠진 소리로 웃는다. 마트 사장은 할머니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 할머니를 등지고 김진만 본다.

마트 사장 (화를 내지만 김진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진짜 그랬어?

김진 아니요.

마트 사장 그럼 할머니 말은 뭐야? 할머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김진 그렇겠죠.

마트 사장 내가 뭐 많은 걸 하랬어? 그냥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잖아.

김진 충분히 친절했어요.

마트 사장 그럼 할머니가 왜 그러는 거야?

김진 그건 저도 몰라요, 할머니가 가격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시는 거라니까요?

할머니 (큰 목소리로) 뭐 꼬투리?

마트 사장 (손사래 치며) 할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할머니 어휴.

마트 사장 (다시 김진에게) 조심하라고, 조심. 저 할머니 친구가 몇인데. 마트 망

하게 생겼어.

김진 네.

사장이 김진을 등지고 이번에는 할머니와 대화한다. 김진은 계산대에서 등을 돌린다. 마트 사장은 그런 김진을 잠깐 보고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트 사장 할머니, 화 푸세요. 제가 어포 튀각 가격 내렸어요. 들으셨어요?

할머니 그래, 그 어포 튀각이 문제야.

마트 사장 에이, 제가 가격 내렸어요. 이거 진짜 힘들게 내린 거라니까요?

할머니 그럼 뭐 해. 아가씨가 사지 말라네.

김진 할머니, 제가 언제요?

마트 사장 할머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포 튀각 말고 여기 명태 튀각도 팔거든요. 한 번 잡춰 보세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할머니 아무것도 안 샀는데 받아도 돼?

마트 사장 그럼요, 단골이신데.

할머니 아이고, 고마워. 내가 동네 할머니들한테 잘 말해 줄게.

마트 사장 네, 다음에도 오세요.

할머니가 무대에서 퇴장한다.

김진과 마트 사장 둘이 무대에 남고 사장은 이마를 짚으며 김진을 쳐다본다.

마트 사장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하자, 할머니들한테는 그냥 좀 들어줘.

김진 네.

마트 사장이 무대에서 퇴장한다.

김진은 계산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 알바 구해지지도 않으면서, 험박은. 내가 먼저 그만둔다.

무대에 조명이 꺼지고 김진도 퇴장한다.

4장

김진이 무대로 등장한다.

흰색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김진은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다. 무대 계산대 옆에는 선풍기가 놓여 있다.

김진 지금이 몇 월인데, 이제 선풍기야? 더워 죽겠어.

김진이 계산대에 서서 얼굴에 부채질하고 있다. 먼지 묻은 선풍기의 버튼을 누르는 김진. 선풍기를 틀고 기침을 한다. 김진이 부채질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휴대 전화를 만진다.

할머니가 마트에 등장한다.

할머니 오늘도 아가씨네?

김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번에 나 때문에 화났어? 미안해.

김진 아니에요.

할머니 화날 수도 있지, 근데 아가씨가 만약에 손님이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화가 안 나겠어?

김진 할머니, 제가 가격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그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나도 장사해 봐서 알잖아.
 김진 네.

할머니는 김진에게 가격을 묻지 않고 스스로 가격표를 본다. 김진은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계산대에 서 있다. 할머니는 매장 내부를 둘러보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어포 튀각 두 봉지와 명태 튀각 하나를 가져온다. 김진은 할머니가 내려놓은 물건들을 계산한다.

김진 만구백삼십 원이요.
 할머니 이 애매한 가격은 또 뭐야?
 김진 어포 튀각이 애매하게 저렴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언제쯤 마음에 들게 저렴해지려나.
 김진 그래도 오늘은 두 봉지나 사시네요, 명태 튀각도 사시고.
 할머니 아가씨가 하도 뭐라 해서 그렇지.
 김진 네?
 할머니 농담이고, 사장이 힘들게 싸게 해 줬는데 어떻게 안 사? 명태도 저번에 맛보라고 공짜로 주고.
 김진 아, 네.
 할머니 아가씨는 모르겠지만, 장사는 다 그런 거야.
 김진 네.

김진은 할머니를 계속 응시한다. 할머니는 산 물건을 다 챙기고 나가려다 멈춰 선다.

할머니 뭐 할 말 있어?
 김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할머니 뭔데? 말해 봐.

김진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가격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동전을 누가 써요. 대부분 카드 쓰고 거스름돈이 십 원 단위면 손님들이 그냥 버리고 가세요. 필요 없다고.

할머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돈 아까운 줄 모르네. 그럼 나 줘.

김진 그건 안 돼요.

할머니 이것도 농담이야.

무대의 조명이 한 톤 어두워진다. 김진이 계산대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더 꺼낸다. 김진이 할머니에게 의자를 건네주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다. 김진과 할머니, 둘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다.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

할머니 아가씨, 내가 돈에 너무 집착하는 거 같아서 짜증 나?

김진 솔직히 말하면 조금요, 근데 궁금한 마음이 더 커요.

할머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놀랄 정도야.

김진 일단 말해 주세요.

할머니 내가 식당 하는 건 알지?

김진 네, 유명하다면서요.

할머니 그럼, 식당 이름은 알고 있고?

김진 그건, 몰라요.

할머니 청도 할매 추어탕이야.

김진 청도에서 사셨어요?

할머니 아니, 할매 앞에 뭐라도 붙여야 할 것 같아서 붙인 거야.

김진 할매 추어탕보단 청도 붙인 게 나은 것 같네요.

할머니 그렇지? 아무튼, 간판에 할매라고 적힌 식당 가 봤어?

김진 네, 완전 옥쟁이 할머니들이 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옥쟁이라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 그래, 나 요즘엔 욱 잘 안 써.
 김진 네.
 할머니 믿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 아가씨. 내가 말을 시작도 못 하네.
 김진 계속 말하세요.

김진과 할머니 모두 전보다 편해진 표정이다. 할머니는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어포 튀각을 한 봉지 꺼낸다. 할머니는 어포 튀각을 뜯고 조각 하나를 김진에게 건넨다. 김진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들고만 있다.

할머니 아무튼, 이 맛있는 어포 튀각을 왜 그렇게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김진 뭘, 저도 싸고 좋은 거 좋아하는데요. 할머니는 약간 집착하는 거 같아요.
 할머니 그래, 싹 건 누구나 좋아하지. 근데 나는 이게 습관이야.
 김진 습관이요?
 할머니 그래, 습관. 아가씨는 언제까지 부모님 지원받을 거야?
 김진 네? 일단 취직할 때까지요.
 할머니 취직하면, 바로 집에서 나갈 거야?
 김진 아니요, 계속 집에 같이 살겠죠.
 할머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김진 할머니, 요즘 시대에 무슨 결혼이에요. 안 할 거예요.
 할머니 결혼도 안 하면, 언제 집에서 나갈 거야?
 김진 돈이 생기면 하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집을 사 주거나.
 할머니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김진 네? 이게 왜요?
 할머니 자식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네,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생하는

지 모르고.

김진 할머니도 자녀분들이 계세요?

할머니 그럼, 손녀 손자까지 다 있지.

김진 그럼 자녀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할머니 그게 말이 쉽지, 다들 먹고살기 힘든데.

김진 그럼,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남편분이요.

할머니 죽었어.

김진 아, 죄송해요.

김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난다. 조명이 한 톤 밝아져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김진은 다시 계산대로 걸어간다. 걸어가는 김진을 할머니가 붙잡는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사람은 어차피 죽어.

김진 그래도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잖아요.

할머니 괜찮아, 내가 살면서 행복했으면 추억만 생각나겠지.

김진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 오랜만이네. 정말 괴팍하고 못된 사람이었어.

김진 근데 추억이 있어요?

할머니 정말 미워해도 내가 좋아하긴 했나 보더라고, 가끔 그리워.

김진 할머니도 참.

할머니 내가 열여덟 살에 시집가서, 한 오십 년은 넘게 살았었네.

김진 되게 빨리 결혼하셨네요?

할머니 그땐 그게 당연했어.

김진 그래서 할아버지랑 왜 결혼하셨는데요? 왜 굳이 그렇게 괴팍한 할아버지랑.

할머니 내가 얼굴에 반했지 뭐, 옛날 사람들이 다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다 맞는 말이야.

김진 그래도 전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할머니 어휴, 말도 안 듣네.

김진과 할머니는 눈이 마주치며 웃는다. 김진은 어느새 친해진 할머니의 모습이 어색한 지 잠시 등을 돌려 허공을 바라본다. 할머니는 그런 김진의 등을 보며 살짝 웃는다.

할머니 아무튼, 알아서 해.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해서 전쟁 나간 남편 걱정하랴 얼마나 힘들었는데.

김진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셨어요?

할머니 그래, 뭐 국가 뭐라고 하더라. 전쟁 나가서 다리 하나 잃고는 얼마나 사람이 더 괴팍해졌는지. 나한테 일도 다 시키고 십 원 하나 허락받고 쓰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김진 에이, 할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할머니 그래도 돈을 적당히 아꼈어야지, 다른 집 자식들 다 티브이 보고 라면 먹을 때 우리 애들은 그런 거 하나 못 사 줬어.

김진 저희 엄마는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자식들만 못 먹고,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과자 하나 사 먹이고, 남편은 매일 혼내고.

김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아끼시는데요?

할머니 아까, 말했잖아. 습관이라고. 그리고 돈 아껴야 죽고 나서 자식들 뭐라도 주지.

김진 어휴, 오래 사시고 자식들 걱정도 그만하세요. 알아서 잘 살겠죠.

할머니 그러는 아가씨는 부모님한테 집 사 달라고 하고?

김진 할머니, 그건 다른 거죠.

할머니 (살짝 웃으며) 뭐가 달라, 똑같아.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있는 의자를 다 치운다. 김진과 할머니도 같이 퇴장한다. 김진은 하늘색의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고 다시 등장해서 계산대에 서 있다.

김진 어서 오세요.

할머니 그래.

김진 할머니 또 오셨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 안을 둘러본다. 우유를 집어 들고 그 자리에서 김진에게 얼마인지 물어본다. 김진은 입 모양으로 삼천 원이라고 말한다.

할머니 또 올랐어?

김진 네.

할머니 어휴, 이제 안 사.

김진 할머니, 또 그러시네요. (웃으며) 이번에도 사장님한테 말해 보세요.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김진도 할머니를 쳐다보며 웃는다.

막.

commentary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시도도 잘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니까요. 차이를 인정하면 세상 살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혼자서요.

누군가를 위한 글보다 누구도 해하지 않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꾸준히 지키겠습니다.

타임캡슐 — 10년 후 나에게

김지민	김룡희
김진서	김혜인
남연지	김희은
박소정	서인희
박지오	장재혁
윤선아	황혜림
이인서	손서영
장은지	유하정
하서희	진유리
권주은	

김지민

4년 짧다는 말 안 믿었는데 진짜더라? 이렇게 찰나인데 앞으로 곱절의 시간을 들어서 추억하겠지. 우리 모두 거침없이 부딪히고 힘껏 사랑해 보자. 많이 보고 싶겠지만 다시 만나리라 믿어. 글을 사랑하는 마음도 졸업하는 건 아니니까!

2025.01.08

김진서

이제 잘 걷고 있을까, 어쩌면 뛰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대는 하지 않을게. 넘어지는 법만 안 까먹었어도 그게 어디야. 고꾸라지지 말고, 날개도 없이 날려고 하지도 말고, 잘 걷기만 해도 좋으니 계속 걷자.

남연지

고민으로 머리를 쉬는 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네 지도를 기대하고 있어. 오늘은 겨울이야. 물 자국을 남기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생일 축하해. 도착하지 않는 선물을 풀었길 바라.

박소정

나보다 동화를 먼저 배워 온 친구가 동화를 계속 써 보라 하고
나보다 시를 좋아했던 사람이 시를 계속 써 보는 건 어떨겠냐 했다.

남에게 글 보여 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뭐든 쓰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박지오

지오야, 서른다섯의 넌 지금의 나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매번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자.

윤선아

할 말 없음

이인서

지금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어. 미래의 나는 그 모습과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모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장은지

잘했어. 괜찮아. 열심히 했네. 고생했어. 고마워. 힘내보자. 오늘 하루를 돌아보자.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아쉬워할지언정 후회하진 말자.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어. 사랑해!

하서희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타임캡슐에 답을 글을 썼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과거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10년 후가 되어도 궁금하지 않을 것 같다.

권주은

더 늦기 전에 고사리를 하나 키우세요. 별과 물과 애정을 많이 주
어 키우세요

김룡희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을까? 10년이면 많은 걸 할 수 있
는 시간인데 원하는 건 이뤘을까? 나는 아직 너의 미래가 잘 그려지
지 않지만, 멋진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김혜인

야! 나 대학 생활 진짜 좋아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해 보고 좋아
하는 교수님들도 양껏 따라다녔어! 너도 너 하고 싶은 걸 해. 살면서
이렇게 후회 안 되는 순간은 처음이야.

김희은

십 년 뒤의 저보다는 차라리 제 친구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 애들아! 너희 덕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어^^ 연락이 좀
 뜬해도 나는 너희를 항상 친구라고 생각한단다. 그건 십 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가야!

서인희

학교에서 보낸 4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우왕좌왕하면서 속절없이 지나간 순간이지만,
이 순간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겠지.
힘들면 멈추고, 가끔 뒤로 돌아갈 때도 있겠지만,
앞을 바라보며,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
결국은 나아가고 있을 거야. 그리 믿고 있으니.

장재혁

넌 지금 어때니? 새로운 글을 쓰고 있니? 너는 지금의 나보다 더 멋지고 그럴듯한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힘내 건강 관리 잘해.

황혜림

아득히 먼, 오지 않을 것 같던 날들도 어느 틈엔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어떤 것을 하며 어떤 이들과 그리고 어떠한 감정으로 지내고 있는지 말해 주었으면 한다.

손서영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는 어때? 무엇이 되었던 의지를 응원 할게. 나를 믿고 가. 아, 네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유하정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나눌 수 있었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10년 후엔 대학 시절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진유리

책을 펼친 넌 어떤 기분과 표정 때문이었을까?

피
내
는
말

이별 앞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이 적어졌다는 생각에 조금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문학을 배웠던 기억이 제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고심의 글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 년 동안 문학 속에 살았던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을 양분 삼아 편집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편집부원들과 여러 번 돌려 읽으며 교정·교열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의도의 의도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두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무리였을 겁니다. 미숙한 편집장이었지만, 능숙한 부원들 덕에 졸업작품집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책상 앞에 앉았던 날들, 내 글을 꺼내 보였을 때의 부끄러운 순간들, 학우에게 던지시 던져 보았던 조언의 순간들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삶의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졸업이지만, 이제 시작이겠지요. 모두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 시작의 좋은 발판이 되었기를, 앞으로가 더 큰 문학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문예창작학과 편집부 편집장
이인서

700大 2025

700大 2025